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국립국어원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국립국어원 2019-03-02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국립국어원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목 차

용어 설명	vii
교재의 방향과 구성	ix
제1장_ 농인에 대한 이해	1
1. '장애'와 '불편'	3
2. 다수와 소수	7
3. 농, 농인에 대한 정의	10
4. 언어적 소수자, 농인	13
5. 농인의 눈으로 본 사회	15
참고 문헌	17
제2장_ 농정체성	19
1.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21
2. 농정체성 패러다임	22
3. 농정체성(Deaf Identity)과 장애 정체성(Disability Identity)	28
4. 농정체성의 연관 요소	29
5. 농정체성의 결정 요소	36
6. 농정체성의 지향점	40
7. 농정체성을 지원하는 사회	42
참고 문헌	43
제3장_ 농문화의 바탕	46
1. 들어가며	48
2. 농문화-세상을 눈으로 사는 경험과 유산	49
3. 농문화-‘소리 없음’에서 출발한 문화	50
4. 농문화-소리 세계와의 갈등과 수용	52
5. 농문화와 농인의 문화 향유	54
참고 문헌	56
제4장_ 농문화의 실재(實在)	58
1. 들어가며	60
2. 언어와 가치	61
3. 일상과 규범	63
4. 여가와 놀이	65
5. 농인 문학	69
6. 농인 예술	73
참고 문헌	75

제5장_ 농문화와 한국수어	77
1. 들어가며	79
2. 농문화와 한국수어	80
3. 한국수어 바로 알기	83
4. 한국수어의 주요 특성	89
5. 한국수어 보전의 필요성	93
참고 문헌	98
제6장_ 농교육과 수어로 배울 권리	100
1. 들어가며	102
2. 농사회와 농학교 교육	103
3. 농사회와 통합교육	110
4.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	113
5. 맺으며	119
참고 문헌	122
제7장_ 농인의 사회 참여	125
1. 들어가며	127
2. 농인의 사회 참여	129
참고 문헌	151
제8장_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와 농사회 관련 법률	156
1.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	158
2. 농사회 관련 법률과 제도	165
참고 문헌	172
제9장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법	175
1. 들어가며	177
2. 언어권의 개념	178
3. 농인의 언어권과 언어 정책	183
4. 농인의 언어권과 한국수화언어법	193
5. 언어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수화언어법의 의의와 과제	202
참고 문헌	206
부록 : 한국수화언어법	208

목 차

제10장 청능주의의 이해	223
1. 청능주의의 정의	225
2. 청능주의의 종류	226
3. 그림으로 본 청능주의	229
4. 청능주의의 실제	231
5. 농인과 청능주의	233
6. 청능주의에 대응한 사례	235
7. 청능주의에 대응하는 방안	238
참고 문헌	240
제11장 농사회의 문화 수용	242
1. 문화의 다양성과 범주화	245
2. 농사회에 들어온 소리 문화(청각 문화)	247
3.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시각 문화와 자신의 이야기를 입혀가는 농사회	250
4. 문학으로 농인의 삶을 드러내는 농사회	252
5. 문화 수용이 갖는 의미와 한계	257
6. 보호되어야 할 문화, 한국수어	259
참고 문헌	260
제12장 농문화와 농사회의 미래	263
1. 들어가며	265
2. 한국수어로 보는 농문화의 현주소	266
3. 도전에 직면한 농문화	269
4. 미래를 위한 선택	273
5. 맺으며	276
참고 문헌	278

아래 내용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의한 개념을 수용하고 집필진의 의견을 추가하여 각 용어의 개념을 심화한 것임을 밝힌다.

농인: ‘농인’은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진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계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모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이다. 농인들은 ‘눈 중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보는 사람’이란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과 다르게 소리에 의존하며 ‘귀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듣는 사람’을 청인이라고 부른다. 다수자인 청인들은 자신들을 ‘건강인(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농문화와 시각언어에 기반을 갖고 사는 농인들을 ‘건농인’이라 불러주지는 않는다.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언어 사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수어: 농인의 언어로, 여타의 자연언어와 같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언중에 의해 생성, 발전, 소멸, 변화해 간다. 매우 시각적인 방식(공간, 비수지, 수지 등)으로 정보를 처리하며 소리를 사용하는 음성언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법을 갖추고 있다. 음성언어의 하위구조가 아니며 그 자체로 완전한 언어이다.

구화: 시각적인 방식이 아닌, 소리를 이용하고 대부분 입을 통해 발화되는 언어이다. 수어와 다르게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각 언어의 모음 처리에 의해 입모양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음의 차이로 발생하는 소리의 변화에도 입모양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소리를 배제하는 경우 입모양으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다른 보조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수지한국어(손짓한국어): 한국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가 가진 문법구조와 틀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손짓을 통해 발화된다. 따라서 손의 움직임과 모양은 한국수어를 차용하지만 모든 의미와 문법구조는 한국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범주와 동일하다. 누락되는 문법정보와 의미 정보를 입모양, 문맥, 정황, 공유하는 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하기 때문에 대상, 상황, 의사소통 대상 간의 공유정보 정도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어 단어에 한국수어 단어를 일대일로 대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수어의 특질을 구현하지 못하며 의미 전달에 많은 제약이 있다.

한국수어: 한국 농인의 언어로 한국 농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성장해 왔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한국에서는 음성언어, 문자언어와 더불어 또 하나의 국가 공용어로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한국 농인 언중에 의한 언어로 한국 농인의 삶과 문화, 사고방식 등을 담고 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소수 언어인 한국수어는 환경의 격변 속에 위기 언어의 길에 내몰리고 있다.

농(Deaf): 소리(청각)에 의한 가치를 모두 배제하고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온전하게 수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시각적 요소에 근거한 정신, 가치관, 의식 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는 철학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이다.

농문화: (협의의 개념으로) ‘농’의 개념을 받아들여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켜 가는 문화이다. 소리의 진동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 요소를 배제한다. 소리 안에는 청각적 요소와 촉각적 요소가 공존하는데 농문화는 그중 청각적 요소에 의한 부분(현상, 이념, 이상)을 자기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농인은 그 상태로 온전하며 따라서 청력 상태를 보완하거나 수정, 극복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농문화의 범주를 지키고자 하는 현상을 타문화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문화사대주의 혹은 문화절대주의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속한 문화의 범주와 경계를 이해해야 자신의 문화를 지킴과 동시에 타문화와 교류하고 관계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문화는 문화상대주의로 설명 가능하다. 농문화는 청문화와 우위를 겨루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다. 상대와 나의 문화를 있는 본래의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상대 문화의 자연적·사회적·역사적 내력을 받아들이며 존중하기 위한 개념이다.

농사회: 앞서 설명한 ‘농’개념을 소유하거나 농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사회 구성원 모두가 ‘농’개념과 농정체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농사회는 농학교와 출발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농학교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절대적 소수자인 농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통된 행동양식을 추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농학교의 발달과 함께 공통된 언어와 문화 양식을 공유하는 시공간이 형성되면서 농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농문화와 농인의 언어가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농문화와 농사회』 교재에 대하여

김 유 미



교재의 방향과 구성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흥미로운 도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언저리를 맴돌 뿐 그 언어를 제대로 탐험하고 누리지는 못한다.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에는 좋은 교사와 좋은 교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좋은’이란 그 언어를 탐방하는 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도(地圖)를 의미한다. 학습자들에게 해당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지도(地圖)가 필요하다. 지도는 지경(地境) 전체를 조망한 결과물이며, 각각의 길들이 이끄는 결과 또한 보여주지 마련이다. 한편, 새롭고 낯선 언어에 입문한 이들, 혹은 그 언어권 안에 있지만 지도를 본 적이 없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는 이들에게 지도의 일부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 결과물이 가져다 줄 결말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크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교재라는 이름의 이 지도가 탐험자 즉,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내용을 이 지도 안에 담을 수 있었다는 데에 보람을 느낀다.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는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사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언어는 공동체(言衆)가 있기에 유지된다는 점에서, 해당 언어의 기반인 문화와 사회를 원어민의 입장과 관점에서 설명하는 일은 원어민과 학습자 모두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작업이다. 사실 언어를 배우는 이가 해당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와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더 유능한 언어 화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 언어 교육은 원어민과 언어 공동체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문화 전승에 일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어를 가르치는 이에게는 그 언어 공동체의 고유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기꺼이 그 문화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자세, 그리고 그에 걸맞은 지식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교재는 한국수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지도(地圖)가 되어 줄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교재는 한국수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농문화와 농사회 관련 주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학습자들은 본 과목을 통해 농문화와 농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접근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교재의 내용은 크게 【농문화】와 【농사회】 두 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장에서 제5장, 그리고 제11장은 【농문화】 관련 단원이다.

이 단원들에서는 ‘농인에 대하여’, ‘농정체성’, ‘농문화의 바탕’, ‘농문화의 실재(實在)’, ‘농문화와 한국수어’, ‘농사회의 문화 수용’을 다루고 있다. 농문화는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과 그 공동체의 무형의 영토인 동시에 유산이다. 농문화 단원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의 진면목, 그리고 공동체의 무형의 영토이자 실제적 유산인 농문화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6장에서 제10장까지는 【농사회】 관련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는 ‘농교육과 수어로 배울 권리’, ‘농인의 사회참여’,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 및 농사회 관련 법’,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법’, ‘청능주의(오디즘) 이해’를 다루고 있다. 농사회 단원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인 농사회의 실제적 모습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12장에서는 ‘농문화와 농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농사회에 대한 전망을 담음으로써 두 단원을 갈무리하고 있다.



학습목적

- 가. 한국수어 교원이 농인의 정체성을 농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한국수어 교원이 농인의 문화를 농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한국수어 교원이 농사회의 전체적인 특성을 농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

- 가. 농정체성이 갖는 의미와 의의를 이해한다.
- 나. 시각 경험에 바탕을 둔 농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 다. 농문화와 한국수어의 관계를 이해한다.
- 라. 농교육과 관련한 농사회의 특성을 이해한다.
- 마. 농인의 언어권과 관련한 농사회의 특성을 이해한다.
- 바. 농인의 사회참여 현황을 통해 농사회의 특성을 이해한다.
- 사. 농사회의 문화 수용 현상에 대해 이해한다.



단원 설명

- 제1장** [농인에 대한 이해]에서는 기존 병리적 관점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언어적 소수자로 농인을 이해할 때 비로소 명료하게 드러나는, 농인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 제2장** [농정체성]에서는 ‘농인됨’을 구성하는 정체성의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고, 농인은 태생적인 존재가 아니라 ‘농인이 되어가는’ 특수한 여정에 있는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글리크먼 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농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이중문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 제3장** [농문화의 바탕]에서는 ‘문화’에 ‘농’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농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 ‘농문화’와 ‘농인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현상’ 간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 제4장** [농문화의 실재(實在)]에서는 농문화 안에 내재된 소수자로서의 문화와 시각 중심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호와 전승이 필요한 농문화와 농예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제5장** [농문화와 한국수어]에서는 농문화의 정수(精髓)인 한국수어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해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수지한국어 권력의 확장과 위기 언어인 한국수어 보전에 대한 주제들도 간단하게 설명하여 심화 학습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제6장** [농교육과 수어로 배울 권리]에서는 농사회의 특성 중 구화주의 중심의 농교육이 농인들에게 가져온 결과들을 살펴보고 농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바람직한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 제7장** [농인의 사회참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농인들이 어떻게 고군분투하며 자아실현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농인의 사회참여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 제8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 및 농사회 관련 법률]에서는 농사회의 구성원들이라면 알아야 할 관련 법률과 관련 서비스를 소개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가치와 방향을 고민하였다.
- 제9장**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법]에서는 농사회의 특성 중 농사회의 언어 환경과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황을 언어권과 수화언어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제10장** [청능주의(오디즘) 이해]에서는 절대 다수인 청인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청능주의(오디즘)가 소수자인 농인과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으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농인과 청인이 동등하게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제11장 [농사회의 문화 수용]에서는 농인이 향유하고 다루는 모든 문화와 예술 장르를 살펴봄으로써 문화 수용 및 확장의 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12장 [농문화와 농사회의 미래]에서는 소수 언어이자 위기 언어인 한국수어와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다루고, 농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찰하였다.



교재의 특성

본 교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는 언어학, 문화학, 사회학 등의 도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재의 출발점은 ‘농인의 관점’이며 도착점 또한 ‘농인의 관점’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본 교재에는 청인의 입장이 아닌 농인의 입장이 담겨 있으며, 구태여 따지자면 농학(Deaf Study)의 관점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농학의 관점이 아닌 다른 학문의 관점에서 볼 때 수용하기 어렵거나 설명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본 교재에 담긴 관점과 내용이 절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농인과 농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의 하나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인의 입장을 잘 담은 교재, 농인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설명할 때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견해를 담은 교재를 목표로 성심(誠心)을 다해 걸어왔음을 밝히고 싶다.

제 1 장

농인에 대한 이해

김 유 미

1. '장애'와 '불편'	3
2. 다수와 소수	7
3. 농, 농인에 대한 정의	10
4. 언어적 소수자, 농인	13
5. 농인의 눈으로 본 사회	15
참고 문헌	17

요 약

농인에 대한 이해가 다수자인 청인의 관점이 아닌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리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소수자인 농인과 농사회는 오랜 시간동안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다수자인 청인이 이해하고 해석한 이미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청각장애’는 다수자인 청인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장애 담론에서 출발하여 장애 담론 안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이 장은 병리적 관점에서 출발한 장애 담론이 농인의 진면목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언어적 소수자로 이름 붙일 수 있는 농인의 진면목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금 사회에서는 청인이 절대다수이며 농인이 극소수이다. 농인으로 산다는 것은 ‘청각장애’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험, 즉 ‘문화로서의 농’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농사회와 다른 장애 커뮤니티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독자적 언어 체계 유무에 있다.

농인들은 자신에게 ‘청각장애인’이라는 이름이 아닌 ‘농인’이란 이름을 붙였다.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 ‘세상을 눈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언어·문화적 관점을 내포한 정의이다. 농인들은 자신의 언어(한국수어)가 아닌 다른 언어(한국어)가 통용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농인들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청인이 점유한 사회에서 ‘장애’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오늘날 농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이자 언어인 ‘수어’를 통해 공동체와 농문화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진면목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고 있다.

1. ‘장애’와 ‘불편’

1) 장애의 해석

오늘날 장애의 의미는 재해석되고 있으며 장애의 범주 또한 확장되고 있다. 장애 영역의 당사자들이 이 담론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

작하면서 장애 개념에 대한 발전된 해석과 실천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그 결실 중 하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2001)」이다. 이제 장애 담론은 신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차원,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으로 그 해석의 장을 넓혀가고 있으며, 장애를 의료적 차원에서 신체적 결함으로 다루기보다는 존재 양식과 같은 문화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해석이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 담론의 뿌리는 여전히 신체손상과 결함이라는 다수자의 시선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를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담론이 여전히 출발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장애라는 단어 기저에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 결함이 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여전히 깔려 있으며 그 결함의 도착점은 여러 차원에서 겪는 불편이다. 소소한 불편에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는 불편에 이르기까지, 당장에 드러나는 불편에서부터 인식조차 어려울 만큼 숨어 작용하는 불편까지, 불편의 양태와 차원은 다양하다.

2) 장애가 불편이 되는 사회

신체적 장애는 당사자에게 물리적 불편뿐만 아니라 타자의 시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또한 겪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이 장애 그 자체에서 온다고 할 수는 없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경험하는 불편은 당사자의 신체적 결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불편이 결함이라 규정된 신체적 상태에서 오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체적 상태가 불편의 요인이 되는 데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결함과 장애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경험하게 하는 상황이 바로 결함과 장애를 가진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는 이미 도시공학과 건축학의 기본 이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현대 사회는 다양한 생애 주기와 신체 조건에 처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기반 시설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편, 특히 접근권 등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왔다. 물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과 차별들이 존재하나 시민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이 문제도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설계와 과학 기술의 발달은 ‘청각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한’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각 정보를 시각 정보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크게 발전해 왔다. 따라서 청각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한과 불편은 큰 틀에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보편적 설계와 접근권이 확보된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신체 조건으로 인해 더 이상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된다. 엘리베이터 시설 의무화, 저상버스의 운영 확대, 음성 안내 시스템과 문자 안내 시스템 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 생활 환경 중 일부이다. 이런 환경이 지구 전체에 구현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신체적 조건을 나눠 ‘장애’, ‘비장애’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신체 조건 자체가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신체 조건이 사회적 불편과 제한으로 다가올 때 ‘장애’라는 이름은 지배력을 갖게 된다.

3) 농은 장애인가?

‘소리가 들리지 않음’은 신체 상태와 그로 인한 경험이지만, 지금의 사회 구조에선 불편한 일상으로 귀결되는 결함이다. ‘소리가 들리지 않음’은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신체적 상태로 봐야 한다. ‘소리가 들림’과 ‘소리가 들리지 않음’은 둘 다 상태와 경험일 뿐이며 가치 체계의 개입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난다. 또한, 그 경험에 ‘결함’이라는 가치 판단을 부여한 것은 농인과 농사회가 아니다. 예컨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 대한 공포는 청인들이 만들어 낸 신념이다. 농인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공포로 경험하지 않는다.

청인 사회에서 농은 ‘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이 가치 판단을 농인이 구축하지는 않았으나 농사회는 다수자인 청인의 가치 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농인들은 ‘듣는 것’을 더 우월한 가치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인들에게 ‘듣는 경험’의 획득과 ‘농사회와의 분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선택은 청인들의 예상을 빗나가곤 한다.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은 대체적으로 듣는 경험을 가져 보기를 원하지만 농인 없는 세상, 수어 없는 세상을 원하지는 않는다.

농인으로 산다는 것은 ‘청각장애’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경험, 즉 ‘문화로서의 농’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나다(棚田)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라는, 청인·중도실청인·난청인·통합교육 경험자에게 공감되거나 감동을 주는 말에 대해, “그것은 외부

시점의 발상 전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농인의 시점에서 보면,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하물며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는 쪽이 더 맞다.”라고 말하였다(다나다 1996, 이시카와 준·나가세 오사무 2009: 187~188).

4) 농, ‘장애’에서 ‘문화’로

사회적 제한과 불편의 원인이 개인의 신체적 결함에 있다는 것은 다수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신체적 상태와 조건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면, 그건 ‘내가 장애를 가져서’가 아니라, ‘사회가 내게 맞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2001)」를 통해 장애 경험이 개인의 신체적 결함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생긴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장애 이해도 신체적 결함의 차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사회에서 장애는 더 이상 불편과 차별의 요인이 아니다.

오늘날 ‘장애’를 주제로 하는 수많은 논의들은 이 지점, 즉 개인의 신체적 결함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회적 소수자이기에 떠안게 되는 유무형의 차별을 다룬다. 그리고 장애를 신체적 결함이 아닌 하나의 ‘문화’라고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지점에 이르러서 농과 타 장애 영역은 갈림길에 들어서게 된다. ‘농’은 애초에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연대감을 넘어서는 문화적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독자적 언어체계이다.

바야흐로 언어는 사고의 조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아울러서 언어가 사상형성(Gedankenildung)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지닐 수 있다. 언어의 현존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동체적 사고는 또한 동일한 세계관, 즉 모국어적 세계관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바야흐로 흠볼트에 있어서 언어의 창조는 인류의 내면적 욕구이며, 공동체적 교류의 유지를 위한 외적인 욕구이다.

(이성준 2007: 141)

농사회와 다른 장애 커뮤니티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독자적 언어 체계 유무에 있다. 이것이 농사회를 ‘문화를 갖고 있는 공동체’로 인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각각의 장애 커뮤니티도 그 집단만이 경험하

고 알 수 있는 고유한 내력을 축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자기 이해와 전망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집단들은 독자적인 언어를 갖고 있지 않다. 언어가 없는 공동체의 경험과 해석도 문화 영역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경험과 해석에 장애 문화라는 이름을 붙인다 해도 농문화와 같은 수준의 밀도와 실체적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바넛(Sharon N. Barnartt)의 말처럼 언어가 없는 공동체의 경험은 ‘문화’가 아니라 ‘일체감(collective consciousness)’에 가깝기 때문이다(이시카와 준·나가세 오사무 2009).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농사회’를 병리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다. 그로 인해 농사회는 ‘청각장애’라는 담론이 만들어 낸 무수한 간섭들에 포위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 구조가 개선되면서 ‘청각장애’ 담론에 기초한 복지 사업들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병리적 관점에서 농은 그저 사라져야 할 열등한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농인이 사라지면 그들의 문화도 사라진다. 그것은 다른 장애영역이 갖지 못한 문화의 정수, 한국수어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문화적 존재로서의 농인, 독자적 언어를 갖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농사회의 진면목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수와 소수

‘장애’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의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장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장애’는 기존의 담론을 넘어 ‘사회적 소수자’라는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인’은 ‘장애’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 하나를 얻게 되었다.

사실 그것을 가르는 것이 무엇이든 지구촌에는 다양한 상황과 기준에 기인한 다수와 소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소수에 속한 이들은 여러 사회적 제한과 불편을 겪는다. 신체적 장애도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다수와 소수를 가르는 조건이 역전된다면 ‘신체적 장애’로 불리던 조건은 주류와 기득권의 표지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절대다수가 손가락이 여섯 개인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서 손가락이 다섯 개인 사람은 결함을 가진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자.



[그림 1] 청인이 다수인 지금 사회



[그림 2] 농인이 다수인 사회가 있다면?

이 그림은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이 극소수인 오늘의 세상[그림 1],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이 절대다수인 세상[그림 2]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림들이 표현하는 세상은 장애의 유무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수어 화자인 농인들은 세상을 ‘장애’, ‘비장애’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에게 세상은 농인과 청인이 사는 곳이다. 앞에서 말한 장애, 비장애의 개념에는 병리적 관점만 들어 있지만, 농인과 청인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문화적 관점이 깔려 있다. 단순한 청각장애 유무를 넘어 수어 사용과 같은 조건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농인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그림 1]이며 농인들이 꿈꾸는 세상은 [그림 2]일 것이다.

1) 청인이 절대다수인 세상

우리는 청인이 절대 다수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림 1]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구조는 청인의 삶의 양식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청인은 다수자이다. 다수자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기초한 사회 시스템은 다수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이며 적절한 것이므로 청인들이 지금 사회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운용되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차별과 소외를 느끼는 소수자들이 있다. 바로 농인이다. 이들은 청인들이 만든 세상에서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들은 곧잘 이런 말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농인이면 좋겠어!”

2) 농인이 절대다수인 세상

[그림 2]는 소수자인 농인들이 한 번쯤 꿈꿔 보는 세상이다. 농인이 절대다수인 사회 말이다. 어느 날 세상이 바뀌어 다수자와 소수자의 위치가 역전된다면 어떤 사회가 펼쳐질까? 이런 사회에서 농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사회에서도 청인은 지금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농인이 절대다수인 세상이 있다면 그 곳의 사회 체제는 농인의 방식에 맞게 구조화되어 있을 것이며, 그 체계 안에서 청인은 여러 장애를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인인 그가 수어를 할 수 없다면 지금의 농인들이 겪는 일상처럼 청인인 그의 삶은 고군분투해야 하는 삶 그 자체일 것이다.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꿈속의 세상은 현실과 정반대였으며, 꿈속에서의 나는…)

나는 청인…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다. 나를 제외한 내 가족과 마을 사람… 아니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가 귀로 소리를 듣거나 하는 불필요한 기능 따위는 갖고 있지 않다. 나같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천 명에 한두 명 꼴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수어를 사용하고 수어 능력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학 입학도 불가능하다. …(중략)…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불필요하게 무언가가 들린다는 점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소리)들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되어 다가온다.

가족들과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나를 안타까워하며 나를 주류 사회인 농사회에 적응시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엔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청력 기관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 수술을 받은 청인들이 농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나도 이 수술을 받고 좀 더 수어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수술이 두렵기도 하고 ‘내 모습 이대로 살아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낀다.

(김유미 2016: 95-96)

3) 상대적 가치

사회의 주류, 다수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좋아 이만한 지위와 권리를 누린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들 중 누군가는 소수에 속한 사람들을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며 소수에 속한 이들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이들 중 누군가는 소수에 속한 이들이 사회 주류에 통합되도록 기꺼이 도울 마음을 갖고 도움을 실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에 속한 이들이 가진 기득권(편리와 안정과 실현 등)의 대부분은 단지 양적 우위에 의해 주어진 것

이다. 다수에 속한 자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수에 속한 자는 많은 위기를 겪는다. 이런 사회 현상의 본질은 냉혹하게도 수의 전쟁에 있다.

만약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절대다수가 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회 구조와 인프라는 시각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언어는 수어로 재편될 것이며 권력은 수어 사용자의 것이 된다. ‘농’이 절대다수인 사회, ‘농’이 기득권자인 사회에서는 유전적 ‘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전 공학이 발달할 수도 있다. 지금의 세상이 이와 반대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청각 기능’의 상태는 절대 가치가 아니다. 다수와 소수를 결정하게 되는 수와 연관된 상대적 가치일 뿐이다. 다만, 지금 사회에서는 청인이 절대다수이며 농인이 극소수이다. 농인은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 양식이 위협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간의 외적 조건에 절대적 가치란 없다. 상대적 가치가 있을 뿐이다.

3. 농, 농인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법적으로 2개의 이름을 갖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명시한 ‘청각장애인’,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해 명시한 ‘농인’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의학적 관점의 정의이고, 후자는 문화 · 언어학적 관점의 정의이다. 그리고 전자는 주류 사회에서 대상화한 것이며, 후자는 농인 당사자들이 선택한 정의이다.

1) 청인에 의한 정의: 병리적 관점

인류의 절대다수는 ‘듣는 사람’, 즉 청인이다. 청인의 입장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청인은 이런 보편성에서 이탈된 이들을 ‘청각장애인’이라 부른다. 청인들에게 이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이라는 보편적인 기능을 상실하거나 그 기능에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자신들이 정상이니 농인은 비정상이고, 좋게 표현해도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 즉 장애인일 뿐이다.

‘장애’ 프레임은 병리적 관점에서 도출된 정의이며, 의료, 교육,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근간이 되었다. 의학적 정의는 병리적 관점에서 신체적 결함 유무에 집중한다. 그리고 청력의 손상 정도 등에 따른 장애의 기준을 제시한다. 의학적 관점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는 ‘청각장애’이며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하고 극복의 대상이며 궁극적으로 과학 기술의 진보를 통해 사라져야 할 숙제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 보편적인 것이다. 실제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언어 습득과 사회화를 위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짐은 양육자의 몫이기도 하다. 이렇게 청각장애라는 이름을 얻은 아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재활 치료와 특수교육,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되고, 청인이 구축한 사회 구조에 잘 적응하여 나아가 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인간상이 되어야 한다는 유·무형의 메시지를 주입받는다. 그렇게 ‘청각장애’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들은 모두 장애 극복의 길에 내몰린다.

그렇다고 의학적 정의의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 정의에서 출발한 ‘장애’ 패러다임은 오늘날 그 논리의 출발점과는 다른 궤적을 보이고 있다. 장애도 하나의 개성으로 이해할 만큼 사회적 논의가 성숙해져 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이 다양한 사회 제도와 체계에 반영되고 있다. 자연히 신체적 장애가 사회적 장애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는 방향으로 사회구조도 발전하였다.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청각 정보가 시각정보로 변환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정착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여러 혜택도 ‘장애’ 패러다임 틀 안에서 구축되었기에 ‘청각장애’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청인이 만든 사회 체계에 적응하여 자아를 실현하려면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이 의학적 정의로 대표되는 ‘청각장애’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의학적 정의를 따른 가치 체계만으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이들의 상황과 요구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해하고 담아낼 수 없다. 엄밀히 말해 ‘청각장애’라는 의학적 정의는 농사회 밖에서 농인과 농사회를 규정한 정의이다. 다수자인 청인들은 자신과 다른 이 소수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했다. 청인은 농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개성을 간과한 채 그저 ‘청각장애인’으로 규정하였다. 농인이 갖는 신체적 상태에 집중하여 그들을 범주화함으로써 농인의 진면목, 문화적 개성을 외면한 것이다.

2) 농인에 의한 정의: 사회·문화적 관점

농사회 안에 있는 농인에게 ‘청각장애’는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다. 농사회 안에 있는 이들은 자신이 다른 장애 영역의 사람들과 함께 묶일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농사회에 소속되었을 때 안도감과 평안을 느낀다. 심지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수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들조차 한국수어 사용자인 농인들과 함께할 때 동질감과 안도감을 느낀다.

애초에 청인이 아닌 다음에야 이들에게 잔존 청력 정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 태도이다. 여기서 내적 태도란 한국수어로 대변되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이들은 한국수어 원어민이거나 제1언어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자신이 청인들과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구화주의로 대변되는 청능주의(오디즘)는 청인 사회가 농인들에게 강요해 온 세계관이다. 구화주의의 세례를 받고 성장한 농인들은 청능주의(오디즘)에 노출된 만큼 자신의 상태를 그저 장애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밀라노 선언’¹⁾ 이후 농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빼앗기고 억압받은 채 암흑기를 보내야 했다. 청인의 역사에서 중세가 암흑기라면 농인의 역사에서 밀라노 선언 이후의 시간이야말로 뼈아픈 암흑기였다. 이들이 수어를 통해 자신의 지적 토대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는 원천 봉쇄되었으며 청능과 구화의 기치 아래 ‘음성을 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소비해야 했다. 그리고 구화주의 100년의 역사 동안 농인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이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미국의 농인 연구자들은 자신들을 장애인으로 보는 사회에 ‘노(No)’라고 선언했으며, ‘청각장애’라는 신체적 조건에 집중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사회를 비판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농인

1) 밀라노 선언: 밀라노 회의(1880년) 참석자는 모두 164명이었는데, 청인 대표들이 163명이었고, 워싱턴 캔들학교(Kendall Demonstration Elementary School) 교장인 제임스 데니슨(James Denison)만이 유일한 농인 대표였다. 나라별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대표들이 143명으로 다수를 이루었고 미국 대표는 5명뿐이었다. 구화주의 신념을 가지 이탈리아와 프랑스 대표들로 넘쳐난 이 회의에서 “농아동 교육에 수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미국 대표들은 소외되었다. 결국 밀라노 회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을 채택하였다. “수어보다 말(언어)이 우수하다는 데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등 대회에서는 (1) 농인들을 사회생활에 복귀시키기 위해 또한 (2) 농인들에게 언어라는 도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농교육과 수업에서 말을 가르치는 것이 수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선언을 채택하는 데에 반대 의사를 낸 사람은 164명 중 불과 6명이었다(장진석 역 2007: 186-190).

들의 세상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편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니다. ‘농’은 불편하지 않다. 불편은 청인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농인 학자들 중에는 농인의 세상을 꿈꾸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신체적 한계가 아닌 문화적 다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농인과 청인 모두에게 역설했다. 이러한 자아관과 세계관은 농사회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갤러뎃 대학(Gallaudet University)의 데프 파워 운동도 농사회에 농인의 주도권과 힘을 되돌려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농사회의 생각과 열망은 기무라 하루미(木村晴美)와 이치다 야스히로(市田泰弘)가 발표한, 일본의 ‘농문화 선언’에 잘 드러나 있다.

‘농인이란 일본어와 다른 일본수어를 말하는 언어적 소수자다.’ 이것이 우리들의 ‘농인’에 대한 정의이다. 이것은 ‘농인=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즉,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에서부터, ‘농인=일본수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언어적 소수자’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木村·市田 1995=2000, 곽정란 2017: 15 재인용)

농인들은 자신에게 ‘청각장애인’이라는 이름이 아닌 ‘농인’이란 이름을 붙였다.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 ‘세상을 눈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언어·문화적 관점을 내포한 정의이다. 한국어로는 청각장애 심도 난청을 나타내는 용어인 ‘농(deafness)’과 문자가 같아서 혼란을 주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농인’이란 말은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하거나 제1언어로 사용하려는 언어적 소수자를 의미한다. 영어권에서는 대문자 D를 사용하여 병리적 척도로서의 농(deafness)과 언어·문화적 존재로서의 농인(Deaf person)을 구분하고 있다.

4. 언어적 소수자, 농인

1) 농인은 ‘보는 사람(seeing people)’

농인의 입장에서 세상은 청인과 농인으로 나뉜다. 청인은 ‘듣는 사람’이고 농인은 ‘보는 사람’이다. 청인은 세상을 귀로 사는 사람이며 농인은 세상을 눈으로 사는 사람이다. 청인들은 자신들도 눈으로 세상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각 경험이 배제된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청인들은 시각을 중심으로 한

기기들이 발달할수록 청각 경험에 대한 의존도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어폰 없이 휴대 전화를 보고 있는 청인들은 많지 않다. 청인들에게 청각 경험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농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각 경험이 아닌 시각 정보의 제공 여부이다. 농문화의 본질은 청각 경험이 아닌 시각 경험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상을 눈으로 산다. 사회의 모든 구조와 콘텐츠들이 시각정보를 온전히 담아낸다면 청각 경험에 대한 갈증을 느낄 이유가 없다. 농인들이 청각 중심의 주류 사회를 살면서 경험하는 불완전함과 그로 인한 갈증은 청인 사회가 만들어낸 욕망의 산물이다. 실제 농인들은 다른 장애 영역과는 달리 농인들만 모여 있을 때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다. 시각 장애를 가진 이들끼리 모이거나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들끼리 모인다고 가정할 때 그 시공간 안에서 그들은 나름의 일체감을 경험하고 편안함을 느끼지만 여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은 어떤 불편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농인들은 수어 사용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들 안에 ‘듣지 못해’ 생기는 불편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듣지 못함’이 신체적 장애라는 말은 농인만의 회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잘 보는 사람’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2)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농인의 입장에서 세상은 청인과 농인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그들의 세계에서 세상은 구화 사용자와 수어 사용자로 나뉜다. 그만큼 농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어이다.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가 수어인지 아니면 구화인지는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보다 때로 더 엄중한 가치 기준이 된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농인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한국수어 화자가 아니라면 농인에게 이들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일 뿐이다.

사실 과학 기술 발전과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등으로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들은 조금씩 해소되어 가고 있다. 청각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편도 장애 차별 금지와 접근권 강화 정책을 통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깊은 ‘정보 접근권 보장’은 그다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들에게는 한글 자막과 같은 형태의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수어라는 언어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자막 형태의 시각 정보로 제공되어도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접근일 수밖에 없다. 한국어 문자인 한글을 시각화한 정보는 한국수어 사용자들에게 제2외국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한국수어는 언어 구조가 다르다. 이러한 언어 차이로 인해 농인은 언어적 장벽을 겪는다. 한국어를 시각화한 한글 자막이나, 한국어 문법을 그대로 수용한 채 수어 단어만 대입한 수지 한국어 통번역 영상은 한국수어 화자인 농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불친절한 정보 콘텐츠들이다. 보다 ‘한국수어’다운 통번역 서비스를 농인들은 필요로 하고 있다.

농인들은 자신의 언어(한국수어)가 아닌 다른 언어(한국어)가 통용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농인이 겪는 고충은 한국인이 타국에서 겪는 고충과 유사하다. 타국살이를 하는 한국인들이 겪는 사회적 장애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있다. 오늘날 한국수어 화자인 농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충 역시 ‘듣지 못함’이 아닌, 언어와 문화가 다름, 그리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한 것이다.

오래도록 병리학적 자기 이해와 구화주의 교육에 노출되어 온 농인들은 자신들의 ‘(잘) 들리지 않음’을 불완전함과 결함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해 자책하게 되는 악순환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열등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사건과 경험들은 ‘듣지 못함’이 아닌 ‘언어가 다름’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잘 듣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존중받는 소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요구된다.

5. 농인의 눈으로 본 사회

청인 사회는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을 장애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접근해 왔다. 장애라는 개념은 신체 기능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신체 기능의 가치와 유용성은 당사자가 아닌 다수자의 경험에 준거해 판단되어 왔다. ‘장애’ 대 ‘비장애’는 청인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인은 오래도록 청인들의 ‘청능주의(오디즘)’ 이념을 노골적으로 때론 암묵적으로 강요당해 왔다.²⁾ 그러나 이러한 억

2) ‘청능주의(오디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서 제10장 ‘청능주의(오디즘) 이해’를 참조할 것.

압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도 농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수어를 전승해 왔다. 농인들은 단순히 장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청인이 점유한 사회에서 '장애'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오늘날 농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이자 언어인 '수어'를 통해 공동체와 농문화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진면목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고 있다.

농문화를 가진 농인들에게 지금의 사회는 한국어라는 음성언어와 문자 기반을 가진 청인 중심의 사회이다. 청인은 절대다수이며 사회의 권력자이고 모든 기술 문명의 향방을 쥐고 있는 기득권자이다. 농인의 입장에서는 세 부류의 청인이 있다. 농문화를 이해하고 진정성 있게 동행하는 청인, 농인을 재활과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청인, 농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농인에 대해 무지한 청인이다. 그 외에도 농사회 밖에 있는 구화 사용자들, 그리고 청각장애를 갖고 있고 수어도 구사하지만 농문화를 열등하게 바라보거나 농문화의 경계선에 있는 '겉만 농인'인 이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농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그들이 단순히 청각장애 유무만을 기준 삼지 않고, '청각장애 유무'에 '농문화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더하여 세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농인들은 언어와 문화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회의 지향점은 여전하다. 농인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가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 그리고 농문화와 한국수어를 지향하는 이들이 농사회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농인으로서의 삶은 청각기능의 문제가 아닌 문화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곽정란(2017), 「장애학과 농인」, 『한국 농사회의 이해』, 국립국어원.
- 김병욱 역(2011), 『언어들의 죽음에 맞서라』, 나남. [Claude Hagège(2000), *Halte à la mort des langues*, Odile Jacob.]
- 김유미(2016), 『영혼에 닿은 언어』, 홍성사.
- 김유미(2018a), 「농인의 강점과 농문화에 맞는 일상」, 『농인의 생활과 문화』(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유미(2018b), 「청인사회와 농인」, 『농인의 생활과 문화』(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박미애 역(2004),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 한길사. [Elias, N. · Scotson, J. L.(1965), *Etablierte und Außenseiter*, Suhrkamp.]
- 이와이 · 김만영 · 김상화 편역(2002), 『농문화의 이해』, 농아사회정보원.
- 조원일 역(2009), 『장애학에의 초대』, 청목출판사. [石川 准 · 長瀬 修 編(1999), 『障害学への招待——社会、文化、ディスアビリティ』, 東京: 明石書店.]
- 장진석 역(2007), 『미국 농사회의 변천사』 교육과학사. [Van Cleve, J. V. · Crouch, B. A.(1989), *A Place of Their Own: Creating the Deaf Community in America*, Gallaudet University Press.]
- 장진석 역(2012), 『오디즘과 인간으로서의 농인』, 교육과학사. [Nordell, P.(2011), *Deafhood/Audism*, Dövia konsult & tjänster.]
- 장진석 역(2014), 『미국의 농문화』, 교육과학사. [Padden, C. · Humphries, T.(1990),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제2장

농정체성

김 유 미

1.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21
2. 농정체성 패러다임	22
3. 농정체성(Deaf Identity)과 장애 정체성 (Disability Identity)	28
4. 농정체성의 연관 요소	29
5. 농정체성의 결정 요소	36
6. 농정체성의 지향점	40
7. 농정체성을 지원하는 사회	42
참고 문헌	43

요 약

농인은 언어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이중문화 환경을 살아가는 이들이며, 태생적인 존재가 아니라 ‘농인이 되어가는’ 특수한 여정에 있는 존재이다. 이 장에서는 농정체성과 관련한 담론들의 문제와 한계를 살펴보고, 농정체성의 핵심 요소와 그 요소들을 통해 ‘농인됨’의 길을 가는 농인의 삶을 다룬다.

클리크먼과 홀콤의 이론은 국내 농정체성 담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에는 ‘농인됨’이라 불릴 만한 핵심 요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체성’과 ‘환경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지 않은 점은 결정적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농인들의 ‘농’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 의식이 몰입 정체성 단계로 무조건 대입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농정체성에 대한 오해는 농정체성을 장애 수용이나 장애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데에서도 생겨난다. 농인에게 청각장애는 ‘농인이 되어가는 여정’의 출발점이지만 그 도착점에는 언어적 소수자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기다리고 있다. 인공와우 이식 여부, 구화 능력 수준, 성장 과정의 환경 등은 농정체성의 연관 요소이기는 하나 핵심 요소는 아니다.

농정체성의 핵심 요소는 농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한국수어 중심의 언어생활, 농문화에 대한 애착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붙잡고 가는 한 농인 개개인이 출발한 환경과 연관 요소의 변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들 모두는 ‘농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농사회는 데프후드(Deafhood)라고 부르며, 언어문화적 소수자인 자신들의 가치를 ‘데프 게인(Deaf Gain)’이란 개념을 통해 피력하고 있다.

1.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 이미지이다. 정체성은 자아개념의 핵심으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인지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에릭 에릭슨(Erik Homburger Erikson)은 정체성을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이재훈 역 2002). 동일성과 차이성은 개개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자와 관계를 형성하며 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인인 동시에 동력이다. 인간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동일성과 차이성을 다루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살아간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 인간은 문화 정체성, 성 정체성, 민족 정체성 등과 같은 다층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다.

농정체성은 문화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민족 정체성에 비견될 만한 의미와 무게를 갖는다. 어떤 의미에서 민족 정체성보다 더 우선되는 정체성이기도 하다. 농인에게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있으며 고유의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인의 눈에 세상은 농인과 청인으로 나뉘며 때로는 농인 동료보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 농인에게 있어 농인이란 존재는 개별자가 아닌 공동 운명체이며 정서적으로 유기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인은 오랫동안 병리학적·우생학적 접근의 대상이었으며, 사회학적 접근이 이루어진 최근까지도 장애 범주 안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패러다임들은 오늘날까지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농정체성 담론들은 장애와 통합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농정체성 패러다임

1) 글리크먼(Glickman, N. S.)과 홀콤(Holcomb, T. K.)의 이론

1993년에 발표된 글리크먼의 논문 「농정체성 발달: 이론적 모델 구축과 검증 (Deaf identity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heoretical model)」은 이후 농정체성 발달 이론의 척도처럼 많은 학자들에게 인용되어 왔다. 글리크먼은 농정체성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보았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농인이 겪는 현상들을 소개하고 이중문화 단계를 최종적인 발달 단계로 평가하였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물들을 통해 다양하게 인용되었으며 농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표 1] 글리크먼의 농정체성 발달 이론 Theory of Deaf Identity Development

발달단계	준거집단	농에 대한 시각	농사회에 대한 시각	주요 정서
Stage	Reference Group	View of Deafness	View of Deaf Community	Emotional Theme
청인	청인	병리적	정보가 없거나 전형적	좌절, 우울
Hearing	Hearing	Pathology	Uninformed & stereo-typed	Despair, Depression
주변	유동적	병리적	좋고 나쁨을 오감	혼란, 마찰
Marginal	Switches	Pathology	Shifts from good to bad	Confusion & conflict
몰입	농인	문화적	긍정적, 성찰하지 않는	분노/ '농인됨'을 사랑
Immersion	Deaf	Cultural	Positive, non-reflective	Anger/ "in love with Deafness"
이중문화	농인	문화적	긍정적, 개인적, 통합된	자기 수용, 자부심
Bicultural	Deaf	Cultural	Positive, personal, integrated	Self-accepting & group pride

(Glickman, N. S. 1993: 111)

우리나라에서 글리크먼 이론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홀콤(Holcomb, T. K.)의 이론이다. 홀콤은 그의 논문 「Development of deaf bicultural identity」에서 전형적인 농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농인이 공유하는 단일 정체성도 없다는 전제하에 농정체성을 7가지로 범주화(Categories Of Deaf Identities) 하였다(문화적 유폐(culturally captive), 문화적 고립(culturally isolated), 문화적 주변(culturally marginal), 문화적 분리(culturally separate), 청인 문화 우위 이중문화(hearing dominant bicultural), 농인 문화 우위 이중문화(Deaf dominant bicultural), 균형 잡힌 이중문화(balanced bicultural)).(Holcomb, T. K. 1997)

2) 두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

글리크먼의 정체성 이론은 국내 농정체성 관련 담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확산된 이론이다. 글리크먼의 농정체성 이론은 MID(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by Sue&Sue 1979)를 모델로 개발한 이론이었다. MID는 소수민족, 특히 미국의 흑인들의 정체성 발달 모델을 주제로 한 이론으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글리크먼은 농정체성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홀콧의 이론은 농학생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상호 유사성과 차이점을 주제로 한 농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범주화한 것이었다. 이후 홀콧은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장애라는 이름표(라벨)를 거부하고 문화·언어적 모델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Holcomb, T. K. 2012: 263). 그러나 홀콧이 묶어낸 농정체성 범주(category)들이 글리크먼의 단계와 융합되며 범주가 단계로 해석되기 시작하였고, 농정체성이 갖는 다층적인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채, ‘균형 잡힌 이중문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두 이론 모두 농정체성의 실제 요소를 제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체성의 바람직한 최종 단계를 ‘이중문화’라는 이름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 때문에 두 이론은 한국 농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원 취지와는 달리 농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글리크먼과 홀콧의 이론이 학술적으로 인용되면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으며, 농사회 안에서도 별다른 검증 없이 수용되고 있다. 동시에 이 이론이 농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글리크먼 이론의 한계이자 문제는 단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정체성의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단계를 설정한 데에 있다. 이로 인해 농인들의 ‘농’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존 의식이 몰입 정체성 단계로 무조건 대입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났다. 예컨대, ‘농’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건강한 농정체성 형성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글리크먼의 이론에 대입하면 몰입 정체성의 특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농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몰입 정체성으로 간주됨으로써 농정체성의 핵심 요소를 가진 농인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미성숙한 인격체로 오인되고 배척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실 글리크먼과 홀콧은 농정체성과 관련한 다양한 양상을 단계와 범주로 묶어 놓았을 뿐, 농정체성의 실제, 즉 농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들의 이론에는 ‘농인됨’이라 불릴 만한 핵심 요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사회에 대한 농인들의 다양한 태도들을 표면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놓았을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농정체성의 실체가 아니다. 몰입 정체성과 이중문화 정

체성 등은 농정체성의 요소도 실체도 말해 주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농정체성을 몰입 정체성과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나눌 수도 없다는 것과 이론에서 제시한 단계들을 직선적으로 밟아가며 정체성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정체성은 자기 자신과 타자(사회)와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기에 고정된 한 방향으로 단계를 밟아 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몰입’이라 규정되고 있는 ‘농인들의 자기 인식’은 내용상 자신의 본질을 규정하고 선언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며 일종의 인생 좌표로 작용한다. ‘자기 인식’이라는 좌표를 통해 농인들은 식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며 타자와의 관계 설정을 해 나갈 수 있다.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 인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인식 단계에 대한 깊은 성찰은 이 두 이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글리크먼의 정체성 이론은 농정체성의 진면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홀콤의 이론도 같은 말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 이론들이 갖는 결정적인 문제는 정체성과 환경에 대한 태도를 구분하지 않은 데에 있다. 글리크먼이 제시한 단계들은 상황, 태도,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단계 자체에 정체성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글리크먼이 ‘이중문화’에 대해 ‘농인으로서 자기 인식과 자부심을 가진 동시에 청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태’라고 설명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정체성이란 이름을 붙이면 혼란이 생긴다. 정체성 발달의 최종 단계가 농인과 청인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몰입’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몰입은 청능주의(오디즘)와 구화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청인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점에서 ‘몰입’은 정체성이 아니라 이중문화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를 설명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청인과 농인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 아니다. 농인과 청인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청인과 농인을 통합한다는 의미의 ‘이중문화’에 정체성이란 용어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이중문화는 농인이 살아가야 하는 환경일 뿐이며, 그 환경에 대한 태도와 그 환경 속에서 농인이 가지게 되는 정체성은 별개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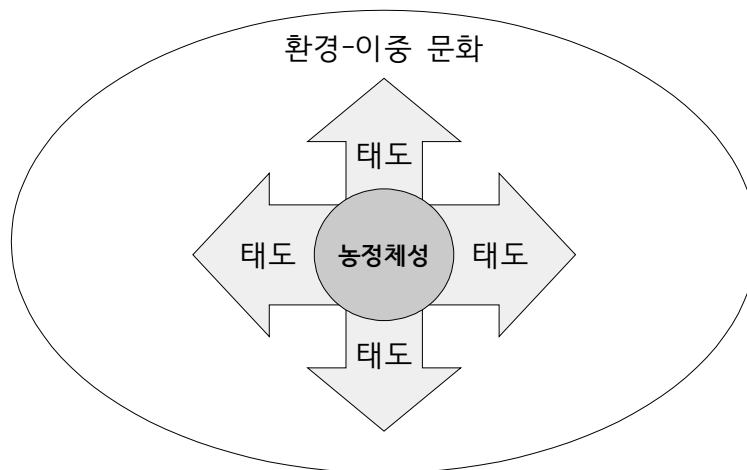
정체성 (자기 이해)	환경	반응과 태도
나는 보는 사람이다. 나는 농인이다. 나는 한국수어 원어민이다.	이중문화 청능주의 구화주의 청인 다수	청인은 믿을 수 없다.
		구화가 아닌 수어로 소통하고 싶다.
		좋은 청인도 있고 나쁜 청인도 있다.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는 다르다.
		청인 문화와 농인 문화는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청인은 유능하고 우월하다.

농인의 정체성은 장애 인식과 수용이 아니라 문화 인식과 수용으로 형성된다. 한편 글리크먼 이론은 소수자의 주류 사회 통합을 기본 가치와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 통합’이라는 개념이 장애 영역에서는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명제인 반면 문화 영역에서는 그리 간단하게 환영받을 수 있는 명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중문화라는 환경이 정체성이라는 이름을 입고 농정체성 발달의 최종 단계이자 모범인 것처럼 왜곡되면서, 농인 개개인이 실제 삶에서 드러내는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정당한 저항과 문제 제기를 억압에 대한 반발심이 가져온 부작용이나 위험한 우월주의로 치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3)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나라에서는 글리크먼 이론의 지대한 영향으로 이중문화 정체성을 농정체성의 최상의 발달 단계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한국 농사회는 글리크먼이 만들어 낸 이 정체성 이름에 묶여 자신의 ‘농인됨’을 드러내는 데에 당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예컨대 농인이 자신의 ‘농인됨’을 강하게 인식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애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순간 청인들은 그에게 ‘몰입 정체성을 가진 농인’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농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동하겠다는 농인의 언행에 ‘몰입 정체성’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버리고 위험 인물처럼 그를 대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농인에게 청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좀 더 성숙한 ‘이중문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거나 비판한다. 이러한 현상은 글리크먼이나 홀콕이 원했던 결과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농인들의 건강한 자아정체성 형성을 억압하는 데에 두 사람의 이론이 사용되는 역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중문화 환경에 적응하여 자아실현을 해 나가는 것과 이중문화 환경에서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지켜 나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디아스포라의 대표적 집단인 유대인들, 예컨대 미국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루는 핵심은 유대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에 둔다. 이들은 몰입 정체성이라 불릴 만한 내적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 문화와 유대 문화의 이중문화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조절하며 살아간다. 결국 몰입 정체성의 범주로 평가됐던 특징들은 오히려 건강하고 강인한 자아상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소들이야말로 상호 존중의 시공간을 구축하고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자신으로’ 존재하게 하는 무형의 거점에 뿌리내린 이들이 이중문화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환경이 되는 상황과 사건이 다양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단계와 발달의 기초를 가진 글리크먼의 이론처럼 인간의 정체성과 태도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따라가는 여정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림 3] 농정체성과 이중 문화 환경

이제 농정체성 담론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농정체성을 범주화하고 발달 단계를 규정하는 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상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농인됨’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농인의 내적 거점이 되고 청인들과 상호 존중하는 환경에서 자아를 실현하며 자기 효용감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농인이 있고 농인의 삶이 있다. 그러므로 소수자의 이중 문화 환경 적응을 단계화한 이론들에 농정체성이란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니라

농정체성의 실체와 그 요소들을 탐구하는 일에 역량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농정체성(Deaf Identity)과 장애 정체성(disability Identity)

농정체성에 대한 오해는 농정체성을 장애 수용이나 장애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데에서도 생겨난다. 농사회 안팎에서 특히 농교육의 현장에서 장애 정체성 이론과 농정체성 이론을 구분 없이 혼용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물론 농인은 장애 정체성과 농정체성을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두 정체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각장애’라는 신체 조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정체성이 같은 지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농정체성은 장애 정체성과 등가 개념이 아니다. 농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듣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형성된 정체성이 아니다. 농정체성은 신체적 다름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가 주류와 다름을 인식하고 그 다름이 ‘틀렸음’을 뜻하지 않음을 자각하는 데에서 형성된다. 농정체성은 청능주의(오디즘)가 지배하는 이 사회의 ‘장애’ 패러다임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고유의 방식인 데프 웨이(Deaf Way)를 지향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근거이자 원동력이 된다.

아래는 농정체성과 장애 정체성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시이다.

[표 2] 농정체성과 장애 정체성

	농정체성 Deaf Identity	장애 정체성 disability Identity
자기 인식	나는 농인이다	나는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 이해	‘극복해야 할 상태나 결여 또는 결핍의 상태가 아니며, 듣는 방식이 아닌 보는 방식으로 살아갈 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농인이면 편할 텐데’)	‘청각장애를 극복해야 해’
세계관	농인과 청인으로 세상이 구성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세상이 구성된다.
한국수어	제1언어	한국어 보완 수단
	우리만의 언어가 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워 한국어 대신 사용하게 되는 언어(소통 수단)
한국어	제2언어	제1언어
	학습과 삶의 질을 위해 익혀야 한다.	한국수어보다 한국어가 편하다.
수어통역	나는 제1언어인 한국수어로 정보를 전달받기 원한다.	나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

농정체성은 장애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인에게 청각장애는 ‘농인이 되어가는 여정’³⁾(Paddy Ladd 2003)의 출발점이지만 그 도착점에는 언어적 소수자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기다리고 있다. 정체성이란 공동체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 형성되는 무형의 거점이자 내적 태도이다. 그렇다면 농정체성을 구성하는 요건들은 무엇일까? 농인을 농인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요소들과 결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자.

4. 농정체성의 연관 요소

사회 구조의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은 농사회의 ‘농정체성’ 담론에 새로운 고민들을 가져왔다.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의 성장 과정과 환경, 신체 조건(인공와우 사용 등)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농사회가 수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담론은 ‘농인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농인됨’의 조건

3) 이와 관련해서는 <6장 농정체성의 지향점>을 참조할 것.

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에 대한 고민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주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체성이나 문화에 어떤 이름을 붙이려는 행위는 그 근거가 되는 기준 설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농사회는 이런 인식 속에서 농정체성의 기준 혹은 범주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담론을 위해 고려하게 되는 연관 요소들이 있다.

1) 청각장애

(1)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 대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 유무는 농인과 청인을 나누는 기본 전제이다. 청인이 아무리 한국수어를 잘 구사한다고 해도 그를 농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청인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신체적 조건이 ‘청력(들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부모의 청인 자녀들은 아무리 수어를 잘하더라도 ‘농인’이 아니다.

그런데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청각장애를 인식하고 수용한다고 해서 그가 농인이 되는 것 또한 아니다. 농인에게 ‘청각장애’는 농인이 되는 기본 요건이기는 하나, 개개인의 잔존 청력도가 농정체성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잔존 청력이 많이 남아 음악을 즐긴다고 해서 그를 농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잔존 청력이 전혀 없더라도 문화적으로 농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 농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험은 ‘듣지 못함’에 있지 않으며, ‘들을 필요가 없이’, ‘보는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다. 그래서 농인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을 뿐’, 그 ‘장애 경험’이 정체성의 주요 근간을 이루지는 않는다. 농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것은 시각적 삶의 경험이다. 이것은 결여와 결핍의 삶을 의미하지 않으며, 듣는 방식이 아닌 보는 방식의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농인이 자신을 ‘청각장애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다.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농인 자신이 용어의 의미를 자각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순응하여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다. “나는 청각장애를 가졌다.”와 “나는 청각장애인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 같지만 다른 자아관을 배경으로 한다. 청각장애는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으나 청각장애가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농인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때 그들은 자신을 ‘농인’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청인들이 못 알아들으니 내키지 않는 방식이지만 “나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라고 말하게 된다. 청인은 그때서야 상황을 이해한다. 그래서 농인은 자신들을 ‘농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청인에게 ‘청각장애인’이라고 소개한다.

(2) 잔존 청력과 농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농정체성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잔존 청력 정도는 농정체성과 그다지 연관 관계가 크지 않다. 잔존 청력과 청능·발화·독순 능력, 잔존 청력과 수어 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어떤 규칙도 나타나지 않는다. 잔존 청력과 청능·발화·독순 능력은 서로 정비례하지 않으며 청능, 발화, 독순 능력 사이에도 큰 연관 관계가 없다. 또 잔존 청력이 많다고 수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수어 능력은 습득 시기 및 습득 환경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어 사용자인, 농사회 내 농인들의 잔존 청력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음악을 듣거나 구화 소통이 가능한 이들도 있고, 전혀 불가능한 이들도 있다. 이들 모두 농사회 안에 있다. 잔존 청력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학교를 졸업한 이들도 있고, 잔존 청력이 거의 없음에도 통합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다.

농사회에서 잔존 청력의 수준은 환영의 기준도 배척의 기준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정체성에서 잔존 청력은 주요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잔존 청력을 대하는 농인의 태도는 그의 농정체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잔존 청력에 가치를 부여하는 언행은 ‘농인됨’의 기준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은 태도일 수 있다. 그리고 청인의 ‘듣는 능력’을 동경하고 우월한 것으로 규정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농정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잔존 청력을 가진 이들을 적대시하는 이가 있다면 그 또한 농사회에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정체성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2) 인공와우

(1) 인공와우 이식술의 발전과 확대

인공와우 이식술은 와우(달팽이관)의 질환으로 양측 귀에 고도의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환자가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청력에 도움이 안 될 때,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이다(서울대학교 의학정보 2018). 그러나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조건과 이식술의 부작용과 한계, 필수적인 후속 조치(조율과 언어 치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술을 받는 아동이 늘어나고 이식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이들이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아동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작용과 사회 적응 과정 등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실제적 조사와 보고가 필요하다.

물론, 인공와우는 기술적으로 계속 발달하고 있어서 수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또한 제도와 혜택 기부 등 다양한 경로로 이식술이 장려되면서 이식술 대상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과 심적 부담을 줄고 있다.

(2) 인공와우 이식술과 농사회

인공와우 이식술은 구화주의와 더불어 농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큰 위협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와우 이식술의 위험성과 제한점, 의료 윤리적 과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인공와우 정책의 가장 큰 쟁점은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공와우 수술’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세 미만의 유아에게도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후 12개월부터 수술이 가능하도록 미국 FDA의 공인을 받은 상태다. 가능한 한 소리에 빨리 노출시키는 것이 언어 습득에 유리하다는 의료계의 분위기,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 부모의 헌신적 사랑이 아이들의 수술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셈이다.

더욱 마음 아픈 건, 이런 부모의 선택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들은 수천 번 생각해 보고 고민하지만, 결국 음성언어 사회에서 ‘사람 구실’하게 하려면 이 방법 외엔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마침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는다. 이것은 외국과 달리, 수술 없이 수어를 익히며 성장해서도 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농인을 한국 사회가 키워 내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성공 사례가 없는 길을 누가 아이와 함께 걷고자 하겠는가!

(김유미 2016: 108)

무엇보다도 인공와우 이식술은 이전에 농인이 사용하던 의료 기기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과 위협을 농사회에 가져 왔다. 인공와우 이식술은 의료적 노력의 산물이며 청각장애 극복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궁극에는 농인의 소멸이 놓여 있다. 인공와우 이식술이 발전하고 확대될수록 한국수어와 농문화의 소멸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와우 이식술은 농문화 말살이라는 비난과 저항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그 영향력을 넓혀 왔으며, 농사회는 인공와우 이식술이라는 물결에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이제 농사회는 인공와우 이식술 확대 정책에 대한 실제적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인공와우 이식술에 대한 농사회의 정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소멸의 운명 앞에 처한 소수 민족의 저항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인들이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아동의 상당수가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고 있는데 농부모의 농아동들도 예외는 아니다.

농사회는 한동안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이를 ‘농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가졌다. ‘농정체성’이 있다면 인공와우 이식술을 거부해야 한다는 담론도 있었으며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들이 농사회 안에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문화적 존엄성을 지키고자 인공와우 이식술을 거부하는 농인들도 인공와우 이식술을 한 이들을 공격하거나 밀어내지는 않는다. 자신의 선택과 별개로 그들의 선택도 존중하고 있다. 사실 농인들은 인공와우 이식술을 통해 잔존 청력이 좋아진다고 해도 수술 당사자가 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 인공와우 이식술 여부는 성인이 된 농인들에게 농정체성을 가르치는 주요 요소가 아니다. 다만 청인 부모를 둔 대다수의 농아동들이 인공와우 이식술과 함께 농사회로 돌아올 길을 잃을까 봐 걱정할 뿐이다. 수술과 조율(맵핑), 언어치료, 그리고 통합교육이란 궤도열차에 오른 그 아이들의 손에 한국수어를 쥐어줄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3) 농사회의 전략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공와우 이식술 여부는 애초부터 농정체성의 판단 기준이 아니었다. 인공와우 이식술은 농정체성과 농문화를 위협하는 요소일 뿐 농정체성과 농문화 유무를 가늠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농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머리에 기계가 붙어 있든지 안 붙어 있든지 그 사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의

머리에 붙어 있는 기계가 아니라 그의 머리와 가슴에서 숨 쉬고 있는 언어와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았더라도 농인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한편 인공와우의 위세로 인해 사양길에 들어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보청기 업계 또한 기술적 발전을 일구며 인공와우와 경쟁하고 있다. 의료 기기들이 서로 어떤 협력과 경쟁 구조를 가지든 관계없이 농사회에서는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과 전수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은 농아동에게 수어 언어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수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농사회의 다급한 화두가 되었다.

3) 한국어 능력(구화 능력)

(1) 농학교와 농인(구화 능력과 농인)

농사회 안에 있는 농인들 중에는 구화주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거나 뛰어난 구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들 중에는 한국수어에 상대적으로 서툰 이들도 있지만 한국수어 구사력이 뛰어난 이들이 더 많다. 그러나 어떤 농인이 구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농사회가 그들에게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국수어 원어민 중에 농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농사회는 그런 이들 모두에게 이질감을 가지거나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지도 않는다.

실제 농사회 구성원들이 수어 사용자인 농인에게 그다음 단계에서 궁금해 하는 것은 출신 학교이다. 학령기 시절을 보낸 곳이 농학교인지 구화학교인지 그 외 다른 학교인지에 관심을 갖는다. 농학교 출신에 대해서는 그들이 농정체성을 가졌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구화학교 중에도 농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농인들은 그곳 출신들도 농정체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인지한다. 또 구화학교나 일반학교 졸업자라 하더라도 농인교회와 같은 농인 공동체에서 성장한 이들에게 당연히 농인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진다. 농학교와 농인교회(종교 커뮤니티)는 농문화의 요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인들은 이 두 커뮤니티에서 성장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농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뒤늦게 농사회에 들어온 것으로 인지한다. 다른 공동체에서 성장한 사람의 농정체성은 암암리에 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청인세계의

학연 지연 카르텔과는 다른 문제이다. 농인의 공동체는 청인 세계의 그것처럼 이익을 얻기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농인에게 농 정체성을 부여하고 길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사회에서 구화 능력은 농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구화 능력은 개인의 능력 혹은 경향일 뿐이다. 따라서 “그는 말(구화)을 잘 한다.”와 “그는 구화인이다.”는 서로 다른 접근이며 결론이 될 수 있다. 흔히 ‘구화인’이라 불리는 대상은 농정체성을 공급받고 성장한 사람이 아니며 현재 시점에서도 농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2) 한국어 습득자의 농사회 진입

구화 사용자는 제1언어가 한국어인 이들이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농사회와 연결 고리를 갖지 못하거나 약한 연결 고리로 인해 한국어 습득에만 몰두한 채 언어 습득 시기를 보내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를 제1언어로 하여 성장한 이들은 통합교육과 구화주의 학교 등에서 학령기를 보내면서 성인이 된다. 그 과정에서 농 공동체와 연결되지 못한 이들은 한국어 화자로서 장애 정체성을 갖고 성장한다. 문화로서의 ‘농’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동질감이 있는 집단을 찾아다니다 농사회에 발을 들이게 된다. 그러나 한국수어라는 언어 장벽 앞에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농사회와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거나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 그 사이 어디쯤에 머물게 되기도 한다. 한국어 화자인 이들이 농사회에 진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수어 습득이다. 그러나 한국어 화자인 청인이 한국수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피진(pidgin) 같은 수지한국어에 안주하는 것처럼 많은 구화 사용자들이 한국수어의 언어 특질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여 농사회의 주변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

수어 사용자와 구화 사용자 사이에는 문화적 간극이 있다. 문화적 간극은 언어적 간극이기도 하다. 수어 사용자와 구화 사용자의 언어적, 문화적 간극은 두 공동체 사이에 여러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일을 평가하는 기준과 처리하는 방식, 조직 운영의 우선순위 등 많은 면에서 서로 결정 방식이 다르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조율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차이로 오해가 생기거나 서로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주로 젊은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오랜 경험을 쌓은 장년층 농인들은 수어 사용자와 구화 사용자 간의 간극에 대해 상대적으로 예민하지 않다. 장년층 농인들은 구화 사용자들이 농사회에 진입하

고 안착해 나가며 농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켜봐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문화의 안정감과 동질화 과정에 대한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있다.

농정체성에서 한국어 습득과 구화 능력은 중대한 변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사회에서 구화 능력은 농정체성을 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 구화 능력을 어떤 가치 기준과 방식으로 드러내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구화 능력이나 한국어 실력을 과시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낸다면 나아가 한국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면 그의 농정체성은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혹은 구화 능력의 유무나 수준이 아니라 그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과 동기가 농정체성과 관련한 농사회의 관심 사안이라 할 수 있다.

4) 양육 환경

아이린 리(Irene W. Leigh)는 그의 저서 『A Lens on Deaf Identities』에서 농인들이 농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청인 부모와 전문가들의 존재를 언급했다(Irene W. Leigh 2009). 농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정환경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양육자가 청인인 경우, 양육자 중 한 명이 농인인 경우, 양육자 전체가 농인인 경우 등에 따라 농아동에게 제공되는 언어와 문화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육자가 농인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양육자가 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양육자의 양육 태도는 어떠한지 등의 여러 요소가 정체성 형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양육 환경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아동기에는 양육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지만 취학 이후 아이들은 보통 또래를 통해 농문화와 연결된 경로를 찾아낸다. 실제로 농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의 90%는 청인이지만, 그 아이들 중 상당수는 농사회와의 연결 고리를 찾고 농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5. 농정체성의 결정 요소

앞서 잔존 청력의 수준, 인공와우 이식술 유무, 한국어 혹은 구화 능력 수준, 양육 환경은 농정체성, 즉 ‘농인됨’과 연관된 요소일 수는 있어도 정체성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농정체성, ‘농인됨’을 가름하는 기준 중 내적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의문에 대한 농사회의 응답은 여전히 진화 중이다. 그러나 그간 농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합의된 ‘농인됨’의 지표를 분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소속감(일체감)

정체성이란 밖에서 규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정체성은 자신의 생존 환경과 자신의 내적 자존을 이해하고 자신의 환경과 내부의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결국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환경과 도전 속에 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신의 내적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정체성을 고민하고 드러내고 선언하는 이들 대부분이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과 갈등과 심지어 위협으로부터 자존을 지키고자 하는 약자나 소수자들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농인’인지 아닌지는 청각장애를 가진 당사자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가 스스로 자신을 ‘청각장애인이 아닌 농인이기로’ 결정하고 농사회에 들어와 심리적 등지를 트는 것이다. 잔존 청력의 수준, 인공와우 이식 여부, 구화 능력 수준 등은 문화적 존재인 ‘농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문화적 존재로서 ‘농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의 변수가 될 뿐이다. 농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농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느 시기에 농사회에 유입된 이들이다. 부모가 농인이어서 태생적으로 농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이들도 있고 부모가 청인이어서 학령기에 농학교나 농인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더 늦게는 성인이 되어서 농사회에 찾아와 구성원이 되는 이들도 있다. 지방의 경우 노년기에 농사회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다. 농사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들 모두에게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건 바로 ‘소속감’이다. 자신의 수어 구사 능력이나 구화 능력, 인공와우 이식 여부 등과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농사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며 더 나아가 존재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농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게 하고 소속감을 강화하게 한다.

한편 뒤늦게 농사회에 들어온 이들 중에는 의사소통과 농문화 적응에 실패하고

농사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농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데에서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어 능력 등이 상대 변수가 되기는 하지만 절대 변수는 아니며 개개인의 인생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와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본다. 그 예로 지방 농장년층의 경우 한국수어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농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청년층에게는 좀 더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하여 그로 인한 갈등과 융합이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농문화의 정수인 한국수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성장한 농청년들이 뒤늦은 성장통을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사회에 뒤늦게 유입된 이들이 수어가 부족하고 아직은 청인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애착을 형성해 가고 있는 한 이들에게 “농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은 “농인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농사회가 농정체성과 장애 정체성의 간극을 간과함으로써 두 정체성이 하나의 범주인 양 혼재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농정체성 담론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은 농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실제 그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장애 수용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농사회가 농정체성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좀 더 치열하고 솔직한 논의와 담론들이 농사회 안에서 생성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를 수용하고 인권 보장의 차원으로 수어통역을 요구하는 수준만으로는 ‘농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상태를 장애의 차원을 넘어 문화의 차원에서 인식할 때, 비로소 ‘농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듣지 못해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수어가 자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것이다.

2) 한국수어

농정체성은 특성상 언어학, 문화(언어)인류학, 사회학적 접근 등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복지, 교육의 해법 모색은 그 다음 절차이다. 농정체성과 장애 정체성이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정체성의 핵심에는 고유의 언어인 한국수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어의 유창성은 농정체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수어 원어민은 당연히 자신을 농인으로 인지한다. 한국수어가 모어인 동시에 제1언어인 ‘데프 패밀리’, 학령기에 농사회에 유입되어 제1언어로 한국수어를 습득한

이들은 자연히 ‘농인됨’을 갖추게 된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청인 사회와 농인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동족이 있다.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고유 언어를 가진 자신을 인지한다. 데프 패밀리의 정체성 형성은 소속감과 더불어 고유 언어인 한국수어를 통해 구체화된다.

한편, 한국수어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채 다양한 시기와 경로로 농사회에 들어온 이들도 자신의 ‘농인됨’을 형성해 나간다. 이들 중에는 무언어자이거나 흡사인 사용자, 한국어 화자들도 있으며 한국수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중간 과정에 있는 이들은 한국수어가 제1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지한국어와 같은 의사소통방식에 고착되기도 하는데 한국수어 원어민과의 교류를 지속해 가며 본인 스스로 농인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한국수어 원어민과 더불어 한국수어에 대한 애착을 갖고 한국수어 중심의 삶을 선택한 이들 또한 농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수어가 제1언어가 아니지만 일상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려 노력한다. 이들은 구화 능력이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잠그고 한국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농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이렇게 한국어가 제1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농사회에 많이 있다. 이렇게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려는 노력과 한국수어에 대한 애정은 농정체성 유무를 판별하는 데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

한국수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농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농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한국수어 능력을 향상하게 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멘토링을 지원하는 것이 농사회에 뒤늦게 유입된 이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3) 문화 애착

앞서 한국수어가 제1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어를 자신의 제1언어로 선택하며 일상어로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 말하였다. 이러한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농사회에 속하였다는 소속감과 더불어 농문화에 대한 애착에 있다. 농인들은 농문화를 향유하는 시공간에서 존재감을 경험한다. 농인들은 이중 문화의 환경을 살아가는 자신의 실존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 농인들이 결함이 있는 존재가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순간은 바로 농인들끼리 모여 수어로 소통하며 어떤 일들을 수행해 나갈 때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수어로 상징되는 농문화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여 문화적 자존감을 형성한다. 문화 애착을 가진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대립한다는 것과 다르다.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인식이 필요할 뿐이다. 자신이 속한 문화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보존과 전승에 힘쓰는 일은 모든 인간이 하고 있는 행위이며 지금도 다양한 영역, 다양한 층위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6. 농정체성의 지향점

농정체성은 결국 “농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이며 그 실마리는 농인의 역사와 문화 안에 있다. 지난 한 세기 농인들은 청능주의와 구화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론과 선언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그중에서 데프후드(Deafhood)와 데프게인(Deaf Gain)은 농인 자신과 농인이 사는 이 세계에 대한 통찰, 그리고 주류 사회의 청인들에게 보내는 농인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다.

1) 데프후드(Deafhood)

데프후드(Deafhood)는 패디 래드(Paddy Ladd)가 주장한 개념이다. 그는 농인을 수어인(Sign Language People)이라 부르며, 각각의 농인이 여기 지구에서 농인으로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탐사하는 여정으로 데프후드를 묘사하고 있다(Paddy Ladd 2003). 농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모든 면에서 시각적으로 다룬다. 농인은 음성언어가 아닌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만약 위의 설명이 자신에게 들어맞는다면 그는 이미 데프후드(Deafhood) 탐사를 시작한 것이다. 청력과 구화 능력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든 데프후드(Deafhood)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각각의

농인은 농인 공동체 및 문화라고 불리는 놀라운 집단적 경험에 연결된다. 데프후드는 농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농인의 길을 걷도록 농인들을 초대하고 격려한다. 이 개념이 갖는 매력은 데프후드(Deafhood)를 궁극적 상태로 규정하지 않고 과정으로 본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출발점과 층위에 있는 이들이 길을 잃지 않고 농인이 되어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2) 데프 게인(Deaf Gain)

‘데프 게인(Deaf Gain)’은 농인을 ‘청능을 잃은 존재’가 아니라 ‘농을 얻은 존재’로 이해하는 개념이다. 『데프 게인(Deaf Gain)』의 저자 바우먼(Bauman, H-Dirksen L.)과 머리(Murray, Joseph J.)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상(normalcy)’이라는 렌즈가 아닌 ‘생명문화적 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뚜렷하게 다가오는 또 다른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Bauman, H-Dirksen L. · Murray, Joseph J. 2014). ‘데프 게인(Deaf Gain)’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생태계의 건강 지수가 높아지는 것처럼, 문화, 언어, 신체, 정신의 다양성을 통해 사회적 생태계의 건강 지수도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농인됨’은 생물학적 손실이 아니다. ‘농인됨’은 단일 문화가 갖는 취약성, 그로 인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이득인 것이다.

『데프 게인(Deaf Gain)』에서는 ‘농인됨’을 개인, 더 나아가 생물 생태계의 손상과 손실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과 생명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상태와 존재로 해석하였다. 농인은 여러 의미에서 다양성을 담보하며 생물학적으로 생명문화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농인의 자아 존중감을 고양하고 농인에게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게 한다. 또한 다수자인 청인들이 언어·문화적으로 소수자인 농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된다. 이와 같이 ‘농인됨’을 비극적 손실이 아닌 문화적인 실체로 보게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야말로 많은 농인들이 원해 왔던, 농인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7. 농정체성을 지원하는 사회

농사회에 대한 소속감, 한국수어에 대한 지향성, 농문화에 대한 애착은 농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형성된 농정체성은 이중 문화의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농인들의 내적 거점이 된다. 이러한 내적 거점은 폐쇄적이거나 편협한 자기 이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중 문화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자신이 속한 두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제 다수자인 청인들은 농인을 장애인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적 소수자로 이해하면서 농인과 함께 걸어가는 사회의 가치를 알고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농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소수자인 농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 곽정란(2017), 「장애학과 농인」, 『한국 농사회의 이해』, 국립국어원.
- 김병옥 역(2011), 『언어들의 죽음에 맞서라』, 나남. [Claude Hagège(2000), *Halte à la mort des langues*, Odile Jacob.]
- 김유미(2016), 『영혼에 닿은 언어』, 홍성사.
- 김유미(2018a), 「농인의 강점과 농문화에 맞는 일상」, 『농인의 생활과 문화』(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유미(2018b), 「청인사회와 농인」, 『농인의 생활과 문화』(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박미애 역(2004),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 한길사. [Elias, N. · Scotson, J. L.(1965), *Etablierte und Außenseiter*, Suhrkamp.]
- 서울대학교 의학정보(2018), 「인공와우 (cochlear implantation)」, 서울대학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9721&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 송인섭(2013), 『자아개념』, 학지사.
- 이와이 · 김만영 · 김상화 편역(2002), 『농문화의 이해』, 농아사회정보원.
- 이재훈 역(2002),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Moore, B. E. · Fine, B. D.(ed)(1994),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 Yale University Press.]
- 장진석 역(2007), 『미국 농사회의 변천사』 교육과학사. [Van Cleve, J. V. · Crouch, B. A.(1989), *A Place of Their Own: Creating the Deaf Community in America*, Gallaudet University Press.]
- 장진석 역(2012), 『오디즘과 인간으로서의 농인』, 교육과학사. [Nordell, P.(2011), *Deafhood/Audism*, Dövia konsult & tjänster.]
- 장진석 역(2014), 『미국의 농문화』, 교육과학사. [Padden, C. · Humphries, T.(1990),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 조원일 역(2009), 『장애학예의 초대』, 청목출판사. [石川 准 · 長瀬 修 編(1999), 『障害学への招待——社会、文化、ディスアビリティ』, 東京: 明石書店.]
- Bauman, H-Dirksen L. · Murray, J. J.(2014), 『*Deaf Gain: Raising the Stakes for Human Diversi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lickman, N. S.(1993), 「Deaf identity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heoretical mode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Holcomb, T. K.(1997), 「Development of deaf bicultural identity」,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2(2), 89-93.
- Holcomb, T. K.(2012), 『*Introduction to American Dea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Ladd, P.(2003), 『*Understanding Deaf Culture: In Search of Deafhood*』, Multilingual Matters Ltd.
- Leigh, I. W.(2009), 『*A Lens on Deaf Ident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제3장

농문화의 바탕

김 유 미

1. 들어가며	48
2. 농문화-세상을 눈으로 사는 경험과 유산	49
3. 농문화-‘소리 없음’에서 출발한 문화	50
4. 농문화-소리 세계와의 갈등과 수용	52
5. 농문화와 농인의 문화 향유	54
참고 문헌	56



요 약

농인은 청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양식이 담긴 ‘보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보는 문화’를 ‘농인의 문화’, 즉 ‘농문화’라 일컫는다. 이 장에서는 청각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시각을 기반으로 한 ‘농문화’의 기저를 살펴보았다.

농문화에는 소리 세계와의 갈등, 상처, 좌절, 치유, 회복, 화해, 자유의 여정 등이 들어 있다. 농문화는 소리에 의미를 두지 않는 존재 양식이다. 농인의 내려티브가 들어 있든 없든, 소리를 필요로 하는 표현 방식들은 청인의 문화양식이다. 농인은 소리 없는 세계에 속하였으나 소리 있는 세계와 소리 없는 세계를 넘나든다.

청인의 세계는 언제나 청력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며 농인들에게 그 길을 따를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문화 요람에서 형성한 농정체성과 한국수어 능력, 그리고 언제나 거점이 되어 준 농공동체들 덕분에 그들은 청인의 세계에서 농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농인으로 살아남은 이들의 인생이 곧 농문화이며 농역사이다.

한편 농문화와 농인의 문화 향유는 별개의 것이다. 농인과 농사회는 다층적인 문화 구조의 한 부분에 위치하였기에 다양한 문화와 양식을 경험하고 향유할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소수 문화의 주체인 농인으로서 농문화의 특질을 지키는 일과 별개로, 인간으로서 농인은 모든 문화에 열려 있고 여러 문화를 누리고 소통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문화를 통섭할 수 있다. 다만 청인의 문화를 농인이 잘 다룬다고 하여 그 양식에 ‘농문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1. 들어가며

문화는 인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이러한 문화에 접근하거나 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인간은 관점이라는 렌즈를 사용해 왔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문화는 자연의 상태가 아닌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루어 낸 모든 유무형의 산물을 의미한다.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Edward B. Tylor)는 ‘문화’란 “지식, 믿음, 기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습득한 다른 모든 능력과 다른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라고 정의하였다(유기쁨 역 2018: 19).

인간은 문화라는 용어 앞에 문화의 범주를 한정 짓는 단어들을 붙여 그 대상을 설명해 왔다. 문화는 척도에 따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범주화 될 수 있으며, 그 범주들은 저마다 가치와 개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범주화된 문화들은 결국 원천이자 전승 주체인 공동체의 규모와 힘에 따라 그 운명이 갈리고 만다. 공동체 구성원의 수와 힘이 해당 공동체 문화의 위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수자인 청인에게 ‘듣는 문화’는 너무나 당연한 세계의 기초이며 공기처럼 편안한 환경이다. 그러나 소수자인 농인에게 ‘듣는 문화’는 어떤 도구와 절차를 필요로 하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농인은 청인의 문화가 지배하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 농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양식이 담긴 ‘보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농인 공동체에도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형성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보는 문화’를 농인의 문화, 즉 ‘농문화’라 일컫는다.

2. 농문화-세상을 눈으로 사는 경험과 유산

농문화는 농인의 문화이다. 병리학적 관점과는 달리 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은 결함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농인은 자신의 환경을 시각적 방식으로 다루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듣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듣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보는 사람’이며, 시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종의 동족이 있다. 이들은 세상을 눈으로 이해하고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농인은 ‘수어인’이라 불리기도 한다(김철관·윤병천 2014: 153). 수어는 세상을 눈으로 해석하고 대응하게 하는 농문화의 정수이며 농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유산이다. 농인들은 농인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정체성과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며 농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하고 전승한다. 농인의 문화는 청각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농인의 문화는 시각을 기반으로 한 모든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담아낸 유무형의 형식과 내용이다.

농인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회합의 장들이 있으며 그 회합의 장에서 펼쳐지는 수어 대화들 안에는 농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오롯이 담겨 있다. 소리 문화(청각 문화)가 아닌 농인들의 회합에서는 시각적 쾌적함과 시야가 확보되고, 시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배제된다. 그러한 조건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수어 담론들은 농문화 그 자체인 동시에 농문화의 전승 통로이기도 하다. 농인 공동체 안에서 농인은 장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문화를 가진 존재가 되며 비로소 완전한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세상은 소리 문화(청각 문화)를 가진 청인들이 절대다수이며 농인들은 그 청인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농인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물리적으로 농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인생에서 그리 길지 않다. 농인 가족을 둔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농인 공동체에 모여 서둘러 문화적 언어적 해갈을 하고 다시 청인의 세계에 들어가 일상을 살아야 한다. ‘청인의 세계에서 농인으로 살아가기’가 농인의 삶이다. 농인들은 소리가 정보가 되고, 청력이 기득권이 되는 듣는 문화권에서 청인들과 섞여 노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삶을 경작한다.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시각적 가치관과 문화, 자신과는 다른 존재 양식을 가진 외부 세계의 가치관과 문화가 서로 교환되고 충돌하면서 농인은 자신의 문화를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지식 또한 축적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이야기들은 농인의 방식, 시각언어인 수어와 수어문학을 통해 승화되며 농문화의 자양분이 된다.

3. 농문화-‘소리 없음’에서 출발한 문화

소리에 의존하는 양식은 농문화가 아니다. 농인의 내러티브가 들어 있든 없든, 소리를 필요로 하는 표현 방식들은 청인의 문화양식이다. 청인의 문화 양식에 농인의 내러티브가 들어 있다고 그것이 농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농문화는 소리와 무관한 문화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농문화의 유산들, 예컨대 모든 예술적 표현들도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소리 없음’은 농문화의 출발점이다. 다만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1) ‘소리 없음’이 갖는 의미

청인의 관점에서 ‘소리 없음’은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이다. 소리가 없음은 청인에게 일종의 공포가 된다. 바다 속과 같은 진공의 상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청인은 음성으로 청력으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청인은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소리 없음은 청인들에겐 낯설고 불편한 상태이며 개선되어야 할 환경이다. 그러나 농인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소리 없음 그 자체가 아니다.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바다 속에서 농인들은 청인들과 달리 편안하게 소통하며 유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청인에게 소리 없음은 결핍과 불편을 의미하지만, 농인에게 소리 없음은 청인의 간섭이 없는 한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다. 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소리가 없는, 혹은 소리 경험이 무의미한 삶을 사는 농인들이 결핍과 장애를 가진 존재이지만, 문화적 관점에서는 문화적 특수성일 뿐이다. 그래서 장애 정체성은 소리 없음을 결핍으로 보는 관점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반면, 농정체성은 소리 없음을 결핍이 아닌 존재 양식과 문화로 받아들이게 한다.

2) ‘농’ 경험과 시각문화

농문화는 각자의 ‘농’ 경험을 공유하고 그 경험에 해석과 가치를 입힌 결과물이다. 아래는 ‘농 경험’과 ‘농문화’에 대한 견해이다.

농문화는 ‘농 경험’에서 출발하며, ‘농’으로 존재하는 상태, ‘농 됨’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농 경험’이란 듣지 못해 불편하다는 차원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이 아닌, 소리 없음의 상태로 존재하며, 소리 없이 세상을 사는 경험을 말한다. 소리 없는 세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없는 그 경험과 일상에서 나온 삶에 대한 감흥과 해석, 거기에 뿌리내린 자기 이해가 ‘농 됨’이다. 이 ‘농 됨’은 농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를 형성한다. 그리고 소리의 간섭 없이 경험하고 느끼고 감동한 나의 세계, 나의 이야기, 그것을 표현하고 나누는 표현 행위들이야말로 ‘농문화’에 기반을 가진 예술이다.

더 확장하면, ‘청인의 세상에서 농인으로 사는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이 농문화의 범주 안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퍼포먼스 안에는 청인 세계에 대한 농인의 시선과 유머 또한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오롯이 시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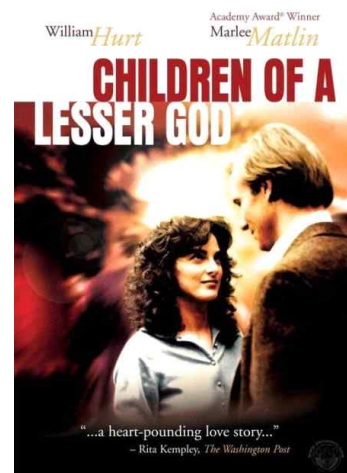
(김유미 2016: 299)

농문화는 소리에 의미를 두지 않는 존재 양식이다. 농인의 문화에서 잔존 청력 등은 중요하지 않다. 농인 공동체 안에서 소리 있음과 없음은 가치와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소리는 진동이기 때문에 농인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농인이 사용하는 것은 청각이 아닌 촉각이다. 땅의 흔들림, 타악기의 거대한 울림 등은 청각의 경험이 아닌 촉각의 경험이며 그 경험이 남기는 심상은 시각언어인 수어를 통해 유려하게 표현되곤 한다. 그러나 청인들의 음성언어나 노래는 청각이라는 한 가지 방식의 정보이다. 그 정보는 시각으로도 촉각으로도 변환되지 않는다. 문자로 변환한다 하여도 내재된 언어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와 감동은 상당 부분 휘발되고 만다. 노래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농경험에서 출발한 농문화는 시각적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농인들의 모든 역사와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며 전승해 왔다. 그리고 수어가 바로 이러한 전승을 가능하게 한 농문화의 정수이다. 수어는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어는 창공에서든 바다에서든 서로를 볼 수 있는 빛만 주어진다면 언제나 이야기를 풀어내고 담아내고 전승할 수 있게 해 준다. 농인의 삶에서 소리 없음은 농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출발점이고 수어는 농인으로 완성되게 하는 도착점이다.

4. 농문화-소리 세계와의 갈등과 수용

농인은 소리 없는 세계에 속하였으나 소리 있는 세계와 소리 없는 세계를 넘나든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인들은 ‘소리 없는 세계’를 불편해하며 그런 삶의 양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농인들은 자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청인과의 관계 속에서, 청인의 세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다.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1989, 미국)은 이러한 모습을 잘 담아냈다. 농 경험을 존재 양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남자 주인공(청인)과 그에게 자신의 존재 양식을 관철하려 했던 여자 주인공(농인)의 갈등과 화해는 바로 농인 세계와 청인 세계, 두 문화권의 갈등과 화해의 은유이다.



〈작은 신의 아이들(Children of a Lesser God)〉 영화 포스터

그러나 영화가 그려낸 두 세계의 존중과 공존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각을 기반으로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청인 세계에서는 자신의 존재 양식을 절대 규범으로 생각한다. 청인들은 사회·문화적 소수자인 농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여전히 인색하다.

청인의 세계는 언제나 청력을 절대 선으로 생각하며 농인들에게 그 길을 따를 것을 강요해 왔다. 구화 교육 100년의 역사는 농문화 억압의 역사이기도 하다. 청력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이러한 구화주의 교육은 농인의 언어인 수어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수많은 농인들이 수어라는 언어를 학습 도구로 가져 보지 못한 채,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미안한 존재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지금 농사회의 중장년층은 이렇게 형성된 청각장애라는 이름에 갇힌 세대이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한국수어를 수어답게 사용하지만 농정체성에 대한 어떤 긍정적 메시지도 받아 본 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 정작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장애 수용과 장애 극복의 과제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인 한국수어로 정보를 전달받고 습득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농교육의 현장에는 한국수어를 구사할 수 없는 청인 교사들이 포진해 있었고, 구화로 전달되는 정보는 수어 화자인 농인들에게 지식이 되어 주지 못했다. 이렇게 농학교를 졸업하고 그들이 들어서야 했던 더 거대한 청인의 세계에서 청인의 문화는 농인을 압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학교라는 농문화 요람에서 형성한 농정체성과 한국수어 능력, 그리고 언제나 거점이 되어 준 농공동체들 덕분에 그들은 청인의 세계에서 농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농인으로 살아남은 이들의 인생이 곧 농문화이며 농역사이다. 농문화는 청인의 세계에 던져진 농인의 생존기이다. 그리고 이 생존기는 비극적이지만 절망적이지 않다. 농인들은 청인의 세계에서 청인과 유연하게 동행할 줄 안다. 동시에 자신의 특질을 유지할 줄 안다. 그 중심에 한국수어가 있다. 한국수어는 농인의 문화적 특질을 이루는 핵심이며 문화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농인의 문화는 결국 소리가 지배하는 세계에 속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도 소리의 세계에서 청인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특질을 지키고자 내린 선택과 그 결과물의 총합이다.

그러한 농인의 문화에는 소리 세계와의 갈등, 상처, 좌절, 치유, 회복, 화해, 자유의 여정 등이 들어 있다. 농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은 청인이 아니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그러나 자신이 사는 세계는 청인의 세계라는 것, 그 세계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 같은 동족이 있으며 미우나 고우나 삶의 거점으로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 등등을 말이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다채로운 내러티브들이 농문화의 원료가 되어 시각적 방식으로 그 문화를 꽃피우고 있다.

5. 농문화와 농인의 문화 향유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앞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아래 표는 문화의 다양한 범주 중,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를 대조한 것으로 두 문화의 실제적 차이를 보여 준다.

[표 3]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의 차이⁴⁾

	농문화	청문화
출발점	- 시각 경험	- 청각 경험
정체성 (자기 이해)	- 세상을 눈으로 사는 사람 - 언어적 소수자	- 비장애인, 정상인 - 잘 듣는 사람
언어	- 한국수어	- 한국어 - 수지한국어
이름	- 얼굴 이름	- 문자 이름
박수	- 반짝이는 박수	- 손뼉 치는 박수
문학	- 수어시 - 농인 유머	- 한국어로 된 시를 수화로 통역한 것 - 국문학
예술	- 수어 연극 (즉석 폰트 등)	수화노래

(김유미 2018: 282-283)

농문화와 농인의 문화 향유는 별개의 것이다. 농인으로서 자신의 문화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고 보전하는 일과 청인의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는 일은 전혀 다른 범주에 있다. 예컨대 농인이 한글로 된 시집을 읽고 감흥을 느끼는 것이 청인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라면, 농인이 수어시 공연을 보고 감동과 희열을 느끼는 행위는 자신의 문화인 농문화를 누리는 것이다.

4) [표 3]은 농인의 입장에서 본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의 차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농인과 농사회는 다층적인 문화 구조의 한 부분에 위치하였기에 다양한 문화와 양식을 경험하고 향유할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소수 문화의 주체인 농인으로서 농문화의 특질을 지키는 일과 별개로, 인간으로서 농인은 모든 문화에 열려 있고 여러 문화를 누리고 소통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문화를 통섭할 수 있다. 다만 청인의 문화를 농인이 잘 다룬다고 하여 그 양식에 ‘농문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농인이 다룰 수 있는 모든 문화를 농문화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농문화는 ‘보는 문화’라는 특질을 내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김병욱 역(2011), 『언어들의 죽음에 맞서라』, 나남. [Claude Hagège(2000), *Halte à la mort des langues*, Odile Jacob.]
- 김유미(2016), 『영혼에 닿은 언어』, 흥성사.
- 김유미(2018), 「농인의 강점과 농문화에 맞는 일상」, 『농인의 생활과 문화』(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유미(2018), 「청인사회와 농인」, 『농인의 생활과 문화』(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박미애 역(2004),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드』, 한길사. [Elias, N. · Scotson, J. L.(1965), *Etablierte und Außenseiter*, Suhrkamp.]
- 박승희 역(2003),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한길사. [Groce, N. E.(1988),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Hereditary Deafness on Martha's Vineyard*, Harvard University Press]
- 유기쁨 역(2018), 『원시문화 1: 신화, 철학, 종교, 언어, 기술, 그리고 관습의 발달에 관한 연구』, 아카넷. [Tylor, E. B.(1871),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Dover Publication.]
- 이와이 · 김만영 · 김상화 편역(2002), 『농문화의 이해』, 농아사회정보원. [요나이야마 · 기무라 · 이찌다 외, 원서 정보 추가]
- 장진석 역(2007), 『미국 농사회의 변천사』 교육과학사. [Van Cleve, J. V. · Crouch, B. A.(1989), *A Place of Their Own: Creating the Deaf Community in America*, Gallaudet University Press.]
- 장진석 역(2012), 『오디즘과 인간으로서의 농인』, 교육과학사. [Nordell, P.(2011), *Deafhood/Audism*, Dövia konsult & tjänster.]
- 장진석 역(2014), 『미국의 농문화』, 교육과학사. [Padden, C. · Humphries, T.(1990),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 Ladd, P.(2003), 『Understanding Deaf Culture: In Search of Deafhood』, Multilingual Matters Ltd.

제4장

농문화의 실재(實在)

김 유 미

1. 들어가며	60
2. 언어와 가치	61
3. 일상과 규범	63
4. 여가와 놀이	65
5. 농인 문학	69
6. 농인 예술	73
참고 문헌	75

제 4 장

농문화의 실재(實在)



요 약

이 장에서는 농문화 안에 내재된 소수자로서의 문화와 시각 중심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는 가장 소중하고 자랑할 만한 유산이다. 농문화는 한국수어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애정을 가진 구성원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수어'가 공기처럼 존재하는 농문화의 영역에 들어오면 '농'은 더 이상 '장애'나 '비정상'의 상태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의 일상은 농공동체의 회합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농공동체 회합 안에 있을 때에 농인들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농문화는 한국수어로 시작해서 한국수어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한국수어가 가득한 시공간을 찾기 위한 선택과 노력일 뿐이다. 이러한 시공간에는 나름의 규범이 작동하기도 한다. 한편 '기나긴 작별 의식' 현상은 소수 언어 집단 어디에나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농문화의 한 부분임이 분명하다.

농인 작가에 의한 혹은 농인의 내러티브를 표현한 문자 문학은 농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은 아니지만 이 역시 농인 문학 범주 안에서 이해된다. 농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은 수어문학이다. 수어를 통해 고도화된 심상을 표현하고 심미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수어문학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수화노래와는 달리 수어문학은 한국수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결코 같이 느끼고 공감할 수 없는 장르이다. 아울러 '농문화로서의 농인 예술'의 전형인 농인 유머, 수어 콩트, 수어 연극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농문화 안에는 시각 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과 소수자의 삶이 낳은 유산이 융합되어 있다. 예컨대 한국수어는 시각 중심의 삶이 낳은 유산이며, 농인들로 하여금 서로 힘써 만나고 수어 대화를 끈질기게 이어가게 하는 언어 갈등은 소수자의 삶

이 낡은 유산이다. 소수자의 삶이 낡은 유산들은 시각 중심의 삶이 낡은 유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나오는 행위나 현상들을 농문화 현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농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부분은 주류 사회 구성원들이 소수 집단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덧씌워 놓은 편견이다.

[표 4] 시각중심의 삶이 낡은 유산과 소수자의 삶이 낡은 유산

농문화		
영역	시각 중심의 삶이 낡은 유산	소수자의 삶이 낡은 유산
가치와 일상	-	농공동체를 중심의 일정 운용
언어와 일상	한국수어	-
	-	언어 갈등과 대화의 향연
	-	기나긴 작별(롱 굿바이 long goodbye)
관습과 일상	얼굴 이름	-
	반짝이는 박수	-
	종교 의식 - 눈을 뜨고 기도, 개인 기도를 먼저	-
문학과 예술	수어문학 수어 연극 수어 콩트	-
환경과 기술	수어 대화를 위한 환경(조건) (공간과 조도照度)	-
	시각·촉각 중심 기술 (스마트 기기, 영상 기기, 진동 타이머, 경광등 초인종)	-

2. 언어와 가치

언어와 가치는 그 문화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마찬가지로 농문화에서 수어가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는 절대적이며, 농문화의 ‘가치’ 기준 또한 한국수어가 존재하기에 형성될 수 있었다. 한국수어는 농문화의 정수(精髓)이며, 농인은 한국수어라는 언어를 가진 존재이기에 장애의 틀을 넘어서서 자신을 이해하고 가치의 기준을

형성할 수 있었다. 농문화 안에서 농인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치- 한국수어에 대한 존중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는 가장 소중하고 자랑할 만한 유산이다. 한국수어는 농인을 ‘농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문화의 젖줄이다. 구화주의와 청능주의의 억압 속에서 한국수어는 많은 훼손을 겪었고 한국수어에 대한 농인들의 자부심도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갈망과 애정을 꺾지는 못했다. 농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한국어에 종속된 수지한국어에 거부감을 갖기 마련이다. 수지한국어는 농인들의 언어가 아니며 그 안에는 한국수어가 주는 감흥과 감동과 내적 교류가 없다. 농문화는 한국수어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애정을 가진 구성원들을 통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2) 가치-농에 대한 자부심

농문화의 영역에 들어오면 ‘농’은 더 이상 ‘장애’나 ‘비정상’의 상태가 아니게 된다. 농문화 안에서 ‘농’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며 ‘한국수어’가 공기처럼 존재한다. 농문화 안에서 하게 되는 이러한 경험은 ‘농’이 절대적 결함이 아님을 증명한다. 농인들은 농문화 안에서 농인으로서의 삶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부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잘못된 존재가 아님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것이 아닐 뿐임을 이해하게 된 농인들은 삶의 가치 기준을 새롭게 형성한다. 농아동은 농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며, 농인인 내가 농인 아이를 낳는 것은 불행의 대물림이 아니라 농문화를 공유하고 전승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를 얻는 것이 된다. 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지만, 한국수어를 습득하는 것은 삶의 기초를 닦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우선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농문화 안에서 농인은 청인과는 다른 가치 기준을 형성하며 그로 인해 청인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일상과 규범

1) 농공동체와 농인의 일상

이 땅의 농인과 청인은 한국 문화 속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경광등 설치와 같은 기술적 양식(技術的 樣式)을 제외한 의식주 문화는 농인에게든 청인에게든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농인은 청인과는 다른 삶의 조건을 갖고 있기에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한국사회 속에서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농인은 청인이 주류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어울려 살아간다. 물리적으로는 청인과 같은 시공간 안에서 한국인으로서는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하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농인에게 청인의 문화는 환경일 뿐 그들의 베이스캠프, 즉 내적 거점이다. 농인의 내적 거점은 농공동체이다. 대부분의 농인은 농공동체를 자기 일상의 내적 거점으로 삼고 커뮤니티의 활동을 중심으로 자신의 일상을 구성한다.

오늘날 농사회 내의 대표적인 공동체는 농아인협회 지회와 종교 단체이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에는 농아인협회 지회 한 곳이 있으며, 그 외에도 농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 단체들이 한 곳 이상 있다. 농아인협회 지회는 평일에, 종교 단체는 주말에 주로 모임을 운영하며 농인이 서로 만날 수 있게 열려 있으므로 이 둘은 대체적으로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편이다.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의 일상은 이러한 농공동체의 모임과 행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농공동체의 연중행사는 농인 개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일정은 농공동체 행사에 참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조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미나와 행사 정보를 공유하면서 각종 온오프라인 활동에 힘닿는 한 참석하려고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회합은 농인으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시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농인들은 기꺼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여 회합 장소에 모여든다.

2) 농공동체의 역할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에게 농공동체는 친교의 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농공동체의 연중행사 대부분은 농인들에게 친교 기회를 제공하며 농인들은 기꺼이 그 행사에 참여한다. 농공동체 행사는 행사에 참여하는 농인들에게 청인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시공간이 된다. 이러한 정보와 도움은 농인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혹은 모임 주체의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는 한다. 농공동체를 통해 농인들은 자신의 언어인 한국수어로 일상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농인의 일상이 청인의 일상과 동떨어져 흘러가지는 않으나 농인의 일상은 청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긴장되고 전투적인 삶일 수밖에 없다. 농인의 일상은 타국에서 오랜 기간 살고 있으나 언어 장벽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외국인의 일상과 비슷하다. 소수자인 농인들의 일상에 늘 깔려 있는 이러한 긴장과 고독은 그들이 농공동체로 되돌아와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해소된다. 물론 농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만남이나 작은 모임들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농공동체에 모임 때 그들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 되며 그렇게 다수의 농인이 모여 수어가 주류언어가 되는 순간에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장애인이 아닌 농인으로, 비주류가 아닌 주류가 되는 그 시공간은 농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힘을 얻게 한다. 그래서 농인은 자기 일상의 중심에 농공동체를 놓고 살아간다.

3) 농사회 규범과 지도자

농사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공적인 규범보다 농사회 내의 규범이 더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지역마다 농인 공동체의 리더(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아도)가 있기 마련이고, 그 리더의 중재로 농인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거나 봉합되기도 한다. 마치 과거 마을의 촌장처럼 비공식적인 지위와 권위를 가진 리더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장년층과 노년층에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수어통역센터의 확대 등으로 농사회 내에 협회 조직이 강화되면서 리더의 자리가 공식적인 지위와 힘을 갖기 시작했으며 리더의 영향력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사회 내 리더십의 역량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농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전문적인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전히 농공동체에는 종교 영역의 리더와 지역의 리더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역할만을 답습하고 안주한다면 이들의 리더십은 도전받을 것이다. 농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여가와 놀이

1) 농인의 여가와 놀이

농인들은 자신의 여가를 농인과 함께, 혹은 농문화 영역 안에서 보내는 경향이 있다. 여가는 여행, 스포츠, 취미 생활, 유흥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농인은 자신의 여가를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농인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한다.



[그림 4] 행사장에 모인 농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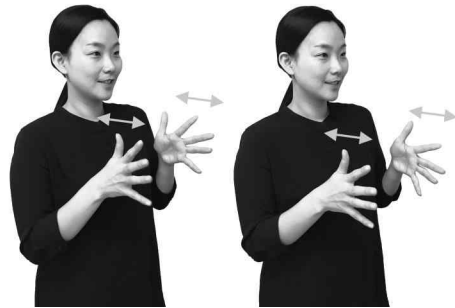
농사회 커뮤니티별 소풍이나 여행은 농인들이 선호하는 행사이다. 당일치기 여행이어도 좋고 1박 이상의 긴 여행이면 더 좋다. ‘보는 사람’인 농인들이 시각적 감흥과 정보가 주어지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과 같은 수어 사용자, 즉 수어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여행을 좋아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농인은 언제나 언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언어적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 동영상 활용 기술 발달로 평상시에도 언어 갈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농인들은 여전히 서로 만나 얼굴을 보며 함께 여가를 즐기고 언어 갈증을 해소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스포츠 활동도 농인들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다. 축구나 야구, 볼링 등은 농사회에서 전국적인 동호회 조직망을 갖춘 스포츠이고 그중에서도 볼링은

농사회에서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 기록 경기인 볼링은 상대적으로 부상의 위험도 적고,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시합 운용에 오락성을 더할 수도 있어서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다. 그리고 시합을 하면서 다른 농인들과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기에 용이하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 외에도 당구나 술런 등 다양한 종목들이 농사회의 관심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다. 농인들의 스포츠 활동은 청인과의 교류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인의 입장에서 스포츠를 통한 농인과의 교류는 수어를 몰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그러나 농인들은 일차적으로 자신과 같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자신의 여가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수어 대화가 있는 스포츠 활동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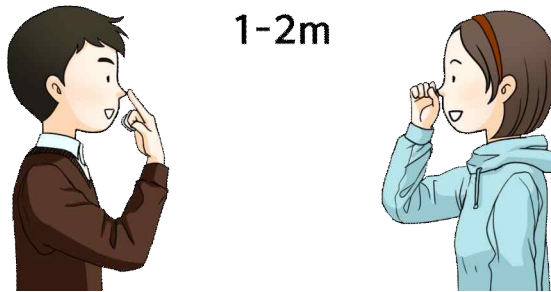
2) 대화의 향연

여행과 스포츠 활동이 아니더라도 농인은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종교 집회 장소, 유흥 장소, 병원, 길거리 등 어디에서든 농인을 만나 수어로 대화를 나눈다. 농인들에게 수어 대화는 여가와 놀이의 시작이자 끝이다. 수어 대화는 농인이 여가를 갖는 이유인 동시에 여가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농인은



여간해서 수어 대화가 불가능한 여가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농인은 최선을 다해서 수어 대화가 가능한 시공간을 찾아 들어간다. 농문화는 시각 중심의 문화인 동시에 언어적 소수자의 문화이다.

농문화는 한국수어로 시작해서 한국수어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한국수어가 가득한 시공간을 찾기 위한 선택과 노력일 뿐이다. 이러한 시공간에는 나름의 규범이 작동하기도 한다. 일종의 대화를 위한 규범이 그것이다. 이 규범들에 대한 실천적 선택들은 화자들의 개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규범들은 모두 그 시공간이 한국수어로 충만하도록 조성하는 것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2m

〈농인의 대화 규범(예시)〉

- 수어 대화를 위해 확보된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수어 대화중인 농인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
- 농인과 대화 도중 청인이 청각 자극에 반응해야 할 경우 상황을 설명한다.

THAT DEAF GUY		
<p>DOs & DON'Ts</p> <p>SUGGESTED BY THAT DEAF GUY</p> <p>WHEN WALKING THROUGH PEOPLE SIGNING...</p>	<p>DO WALK QUICKLY.</p>	<p>BY MATT & KAY DAIGLE</p> <p>DON'T WALK HUNCHED OVER.</p>
<p>수어로 대화중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야 할 때</p>	<p>빠르게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p>	<p>웅크린 채 손을 움직이며 지나가지 마세요.</p>
<p>〈www.thatdeafguy.com〉⁵⁾</p>		

3) 기나긴 작별 의식(롱 굿바이)

5) 〈www.thatdeafguy.com〉에서 인용한 코믹스(comics)는 저자인 Matt Daigle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것임.

농인들은 최선을 다해 대화를 이어간다. 그들의 대화는 끝나지 않고 이어지며, 각자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다 다시 대화를 이어가고는 한다. 이러한 농인들의 문화를 미국에서는 롱 굿바이(Long goodbye)라 부른다. 언어적 소수자인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마음껏 대화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밤늦도록 계속되던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나는 졸린 몸을 비틀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사라져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를 방에 데려다 주길 기다렸다. 그럴 때면 누군가 불을 켜다 켜곤 했는데, “집에 가요. 집에 좀 갑시다.”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마침내 모든 불이 꺼지고 수화를 주고받는 게 불가능해지면 사람들은 불평도 없이 불이 켜진 현관으로 나가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그러다 결국 내몰리듯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에도, 현관 앞이나 계단 중간,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나 아무튼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여전히 아쉬움에 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한참 동안 헤어지지 못하고 서성대는 친구들의 모습을, 밤 깊도록 손으로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선명한 실루엣으로 그려 보곤 했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 내게 기억이라는 것이 존재한 순간부터 기나긴 작별 인사와 소리 없는 청각장애의 세계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처럼 서로 얹혔다.

(강수정 역 2004: 17)

<p>THAT DEAF GUY</p> <p>BY MATT & KAY DAIGLE</p>		
<p>CEPRIC, PLEASE DRY OFF... IT'S TIME TO GO!</p>	<p>BUMMER, YOU HAVE TO LEAVE NOW?</p> <p>NOT REALLY... MY DAD IS SAYING GOOD-BYE TO HIS DEAF FRIEND AND...</p>	<p>A "DEAF GOOD-BYE" TYPICALLY MEANS... I HAVE ANOTHER 45 MINUTES!</p>
<p>세드릭! 시간 다 됐어. 가자.</p>	<p>- 항... 너 지금 가야 돼? - 지금 안 가도 돼! 우리 아빠 친구(농인)하고 작별인사중이잖아.</p>	<p>농인들이 작별인사를 마치려면 보통..., 45분은 더 있어도 돼!</p>
<p>〈www.thatdeafguy.com〉</p>		

‘기나긴 작별 의식’(롱 굿바이)은 농문화의 현상 중 하나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농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언어 갈등에 기인한 이 현상은 소수 언어 집

단 특히 물리적 토대인 영토를 확보하지 못한 소수 언어자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수어 대화를 위해 ‘빛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이어가는 지나긴 작별 현상이 농문화의 한 부분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농인 문학

1) 농인 문학의 정의

농인 문학이란 농인의 내러티브와 문화를 담아낸 문학 양식을 말한다. 사인라이팅(Sign Writing)과 같은 수어 문자가 대중화되지 않은 농문화에서 농인들이 내러티브와 예술혼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학의 도구는 두 가지이다.⁶⁾ 하나는 한글과 같은 문자를 통해 표현하는 것, 다른 하나는 수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전자는 문자 문학이라 하고 후자는 수어문학이라 한다.

2) 문자 문학의 위치

수어문학은 농문화의 일부이다. 이것은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사실로 수어문학은 농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이다.⁷⁾ 한편 농인 작가에 의한 혹은 농인의 내러티브를 표현한 문자 문학은 농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은 아니지만 이 역시 농인 문학 범주 안에서 이해되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농인들이 수어를 통해 대대로 전하는 수어문학과 농인 작가가 구성하는 문자 문학을⁸⁾ 농인 문학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있다(송미연 2017). 글쓰기는 농인들에게도 주요한 문화 도구이며 농인의 이야기가 담긴 이러한 작품들은 농인의 문화를 청인의 세계에 소개하고 농문화 존중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문자 문학은 농문화와 청문화의 경계선에서 두 세계의 이해와 동행을 이끌어 내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6) 사인라이팅은 브라질 등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사인라이팅으로 기록된 도서와 논문이 존재한다.

7) 변강석(2018)은 그의 강에서 수어문학은 농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이며, 문자문학과 수어문자문학은 전형적 원형과 겹쳐져 하나의 범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8) 원문에는 ‘도서 문학’으로 기술되었으나 본서의 기조에 맞게 ‘문자문학’으로 수정하였다.

3) 수어문학

농인 문학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역시 수어문학이다. 다음은 수어문학에 대한 설명이다.

수어문학이란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만들어진 시와 문학을 말한다. 시와 문학이라고 하니 독자들은 문자(한글)로 된 결과물을 떠올릴 수 있겠다. 그러나 시각언어인 수어로 빚어낸 이 장르에 문자나 음성언어는 개입되지 않는다. 수어문학은 농인의 내러티브를 농인의 언어를 통해 여러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 낸 작품이다. 수어문학은 콩트나 모노드라마, 웅변 형태 안에 농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전통 농문화(농인 유머, 언어유희 등), 스토리텔링(자전적), 농사회 연대기, 종교 서사 등을 담아낸다.

(김유미·변강석 2018)

수어문학은 그 내용이나 표현 형식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오롯이 수어와 수어의 특질 속에 표현된다. 이러한 수어문학 중에서도 가장 차원 높은 표현물은 단연 수어시이다. 수어시는 수어문학의 정수이다. 수어시는 농인의 내러티브를 가장 차원 높은 방식으로 표현해 낸다. 문자가 아닌 수어로 이루어지는 수어시는 공연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관객과 수어문학가가 한 시공간에서 함께 이루어 내는 소통과 공감은 수어시에 역동성을 더하게 된다. 수어시는 동영상 기록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오래도록 그 가치가 보전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중 수어시(Sign Language Poetry)는 수어문학 장르 중 가장 아름답고 차원 높은 장르이다. 수어시는 수어 본래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는 동시에 수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표현을 매번 새롭게 창조한다. 그리고 그 작품이 펼쳐지는 순간 함께하고 있을 관객에게 끼칠 영향을 염두에 두며 작품을 다듬어간다. 수어시는 공연을 전제로 한 예술이기도 하다. 시공간을 공유하는 시인과 독자의 즉각적인 공감과 소통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수어문학을 접하는 독자들도 있기 마련이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수어문학의 내용적 핵심은 농인의 내러티브에 있다. 수어문학엔 세상을 귀가 아닌 눈으로 살아가는 농인들의 문화와 세계관,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소리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경험하는 농인들만의 '삶에 대한 감흥과 해석'은 특히 수어시로 녹아들어 경이로움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시의 장르가 다양하듯이 농인들의 수어시도

다양한 갈래를 보여 준다.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 서정시에 해당하는 작품들도 있고 낭만시, 서사시, 저항시라 이름 붙일 만한 작품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을 붙이든 수어시에는 세상을 눈으로 사는 이들만이 발견해 낼 수 있는 시정(詩情)이 있으며 그 시정(詩情)을 극적으로 심상화(心象化)했을 때 농인(관객)들은 그 작품과 하나가 된다.

(김유미 · 변강석 2018)

수어를 통해 고도화된 심상을 표현하고 심미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수어문학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수화노래와는 달리 수어문학은 한국수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결코 같이 느끼고 공감할 수 없는 장르이다. 한국수어와 농문화가 체화된 이들만이 수어시를 함께 즐기고 공유할 수 있다.

한편, 수어시에서 수어의 도상성이 극대화되고는 하는데 이로 인해 수어시를 마임으로 치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어시에서 사용되는 도상성은 일차원적인 마임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문법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어문학의 형식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어 그 자체이다. 수어문학은 수어의 시각적·공간적·운동적 특징을 이용하여 문자를 기반으로 한 문학과는 매우 다른 예술 형식을 만든다. 중요한 것은 수어가 음성언어에 종속된 언어가 아니며 고유의 어휘와 문법을 가진 언어라는 점이다. 그래서 수어 고유의 운율은 음악적 박자에 있지 않다. 수어는 수어만의 호흡이 있으며 그 호흡을 통해 고유의 운율과 심상을 드러낸다.

수어시의 운율은 수지기호(손의 모양과 동작 등)나 비수지기호(몸의 동작 등)를 통해 반복·대조·연쇄·점층·점강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운율은 관객들에게 심미적인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준다. … (중략) … 운율과 심상은 동시적으로 구현되는데, 도상성(iconicity)은 수어시의 심상을 구현하는 강력한 전개 방식이다. 메시지가 담고 있는 사물의 형태나 사건의 순서·거리·양 등을 다층적이고 동시적인 문법 구현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물론 도상성은 마임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어시는 마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복잡한 구조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수어가 도상성뿐만 아니라 자의성을 갖고 있는 언어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수어시는 제스처나 마임이 아니다. 예컨대 장평[張鵬] 씨는 자신의 작품(공연)에서 포도 한 알을 의인화하여, 와인이 되어 가는 지난한 과정과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는 포도 알의 심상을 표상해 내었다. 수어는 마임과는 달리 생물에서 무생물, 과거와 미래 등 그 표상에 한계가 없다.

(김유미 · 변강석 2018)

수어문학이 농문화에서 중요한 이유가 수어문학이 갖는 예술성과 심미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어문학은 농아동들이 한국수어에 쉽게 접근하고 제대로 익힐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수어문학은 수어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

준다. 농아동들이 수어문학을 접할 기회가 있다면 한국수어를 제대로 만나고 습득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4) 농인 유머

데프 조크(Deaf joke), 즉 농인 유머는 농인 문학의 하나로 농인의 파토스(pathos), 즉 일종의 걱정을 유머러스하게 녹여낸 결과물이다. 농인의 문학과 예술에는 농인의 파토스가 녹아 있는 유머들이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농인의 유머는 독립적으로 혹은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여 감동을 더해 준다. 이러한 유머는 당연히 청각적 방식이 아닌 시각적 방식으로 구현되며 청인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농 문화에 대한 자부심 등이 여기에 예리하게 표현된다.

〈농인의 유머 - 20년 만의 재회〉



(농인이) 집에서 쉬고 있는 중에 팩스가 한 장 들어왔다. 팩스를 보던 농인. “아~ 20년 만이네! 정말 오랜만이군! 만나자고?! 어디서? 종로!” 20년 만에 농인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만나고 싶으니 만나자는 연락이 온 것이다.

농인은 12시에 만날 수 있다는 답장을 팩스로 보냈고 이내 그러자는 답장이 돌아왔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 채비를 한 농인은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종로2가에 도착하여 역사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친구를 찾아 서성이던 농인은..., 어릴 적 코흘리개 시절에 봤던 친구를 20년 만에 만나려니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았다. 게다가 다 큰 성인이 된 친구의

얼굴에 어릴 적 얼굴이 남아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어떻게 하지... 얼굴이 생각이 안 나네...’ 거리에는 마치 콩나물시루라도 된 것처럼 인파로 넘쳐나고 있었다. ‘어이고...어쩌지? 저 사람인가? 아니 저 사람인가?? 이거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이고 쟤장!!...’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농인. “웁거니!!” 마침내 좋은 방책을 찾아냈다. 농인은 서둘러 총포사에 가서 소리가 제일 큰 공포탄을 구매했다. 공포탄은 엄청 큰 소리를 낸다. 공포탄을 준비한 농인은 약속 장소에 다시 돌아왔다.

거리는 여전히 인파로 넘실거렸다. 농인은 공포탄을 쏘지 말지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총을 높이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농인에게 쏠렸다. “탕! 탕!!” 총 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일제히 길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런데 저기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서성이는 단 한 사람! “아하~! 내 (농인) 친구 저기 있구나!” 걸어가 친구를 만났다. 친구와의 재회, 성공적^^! (수어 번역: 김유미)

〈강승욱(2002), 「20년 만의 재회」, 수화에피소드(동영상), 농아사회정보원〉

6. 농인 예술

농사회에는 미술, 음악, 무용,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자신의 예술성을 드러내고 활약하는 농인들이 있다. 이들의 활동과 결과물을 농사회의 농인들이 함께 즐기고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농인의 다양한 예술 활동 모두들 ‘농문화’라 말할 수는 없다. ‘농문화로서의 농인 예술’의 전형은 청각적 요소가 필요 없는 수어 콩트⁹⁾, 수어 연극 등이다. 수어 뮤지컬과 같이 농인의 내러티브가 녹아든 장르의 경우도 청인의 문화인 음악이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문화로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인의 예술계 진출이 많아지는 데 반해 농인의 예술 장르인 수어 콩트나 수어 연극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각 지역에서 행해지는 수어 예술제에서도 수어문학이나 수어 콩트, 수어 연극보다는 수화노래가 공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종교 커뮤니티에서도 수화찬양제와 같은 행사들을 주로 개최하다 보니 수어 콩트나 수어 연극은 설 자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일본이나 홍콩 등에서는 농인 연극단이 운영되고 있으며¹⁰⁾, 이들 연극단은 2016년도 ‘한국농아인협회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여 청각적 요소가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공연을 한국 농사회에 보여 주었다. 우리 농사회도 이제는 농인의

9) 수어콩트는 수어문학의 갈래로 이해해되기도 한다.

10) 일본의 ‘D2’, 홍콩의 ‘무연천지극단’이 있다.

예술인 수어 콩트나 수어 연극이 정기적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술과 같은 여러 예술 분야에서 농문화를 주제로 한 창작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강수정 역(2004), 『반짝이는 박수소리』, 지호. [Cohen, L. H.(1994), *Train Go Sorry: Inside a Deaf World*, Houghton Mifflin Company.]
- 강승욱(2002), 「20년 만의 재회」(수화에피소드), 농아사회정보원.
- 김병욱 역(2011), 『언어들의 죽음에 맞서라』, 나남. [Claude Hagège(2000), *Halte à la mort des langues*, Odile Jacob.]
- 김유미(2016), 『영혼에 닿은 언어』, 흥성사.
- 김유미(2018a), 「농인의 강점과 농문화에 맞는 일상」, 『농인의 생활과 문화』(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유미(2018b), 「청인사회와 농인」, 『농인의 생활과 문화』(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유미·변강석(2018), 「농인의 내러티브가 담긴 농문화의 정수(精髓), 수어시」, <비마이너(BeMinor)>, 2018. 8. 30.
- 박미애 역(2004),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 한길사. [Elias, N.Scotson, J. L.(1965), *Etablierte und Außenseiter*, Suhrkamp.]
- 송미연(2017),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한국 농사회의 이해』, 국립국어원.
- 유기쁨 역(2018), 『원시문화. 1 신화, 철학, 종교, 언어, 기술, 그리고 관습의 발달에 관한 연구』, 아카넷. [Tylor, E. B.(1921),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London: John Murray.]
- 이와이·김만영·김상화 편역(2002), 『농문화의 이해』, 농아사회정보원.
- 이종인 역(2010),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Huizinga, J.(1955),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Element in Culture*, Beacon Press.]
- 장진석 역(2007), 『미국 농사회의 변천사』 교육과학사. [Van Cleve, J. V.:Crouch, B. A.(1989), *A Place of Their Own: Creating the Deaf Community in America*, Gallaudet University Press.]
- 장진석 역(2012), 『오디즘과 인간으로서의 농인』, 교육과학사. [Nordell, P.(2011), *Deafhood/Audism*, Dövia konsult & tjänster.]
- 장진석 역(2014), 『미국의 농문화』, 교육과학사. [Padden, C.:Humphries, T.(1990),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제 5 장

농문화와 한국수어

김 유 미

1. 들어가며	79
2. 농문화와 한국수어	80
3. 한국수어 바로 알기	83
4. 한국수어의 주요 특성	89
5. 한국수어 보전의 필요성	93
참고 문헌	98



이 장에서는 농문화의 정수(精髓)인 한국수어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해를 다루고 있다. 농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에 기대 자신들만의 문화와 공동체를 키우고 유지해 왔다. 한국수어가 훼손되고, ‘한국어화(韓國語化)’되고, 심지어 한국어로 교체된다면, 농문화는 자신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정수(精髓)를 잃게 될 것이며 농사회는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한국수어는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시각화한 체계가 아니다.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어휘의 의미 범주와 문법의 구현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다른 언어이다. 수지한국어는 한국어 문법을 따르면서 단어에만 수지기호(손)를 대응한 유사 한국어 체계일 뿐이다. 한국수어 문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국어 문법에 따라 수행되는 수지한국어에 ‘수화’ 혹은 ‘수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한국수어를 억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수어는 일본수어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일제의 침탈이 이루어지던 그 시공간에서 자생어인 조선수어와 유입어인 일본수어가 공통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뿐이다.

분류사, 공간의 활용, 비수지기호 등은 한국수어의 특징적 문법이다. 한국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수어 연구를 통해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 언어이자 소수 언어인 한국수어 보전을 위한 고민과 실천은 한국수어와 함께 하는 이들 모두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 들어가며

공동체의 문화에서 언어는 가장 주요한 유산이자 주제이다. 문화와 언어는 매우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문화의 융성과 언어의 위세(威勢)는 운명을 같이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작용한다. 언어는 문화가 키워낸 유산이다. 동시에 언어는 해당 문화의 증인이며 수호자이다.

문화는 언어를 키우고 언어는 문화를 지탱한다.

한국수어는 한국 농인의 문화가 낳은 산물이다. 한국수어의 흥망성쇠는 곧 농문화의 흥망성쇠를 의미한다. 한국수어라는 동력이 약해지거나 변질된다면 농문화 공동체의 운명 또한 그 궤를 따라 정해진 순서를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농문화와 한국수어

1) 언어를 가진 공동체

장애를 가진 이들은 같은 장애 유형을 가진 이들끼리 모임을 갖고 교류하며, 더 나아가 조직을 구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각각의 장애 유형이 만들어 내는 문화들이 존재한다(자기 이해, 선호하는 물리적 환경, 유머, 규범 등). 장애학에서 장애 이해는 신체 손상이란 개념을 넘어서고 있는데, 장애는 오늘날 일종의 삶의 조건이자 문화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 이외의 장애 영역에 있는 이들은 자신이 속한 장애영역의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처럼 인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의 언어는 비장애인들과 같은 한국어이기 때문이다.

반면, 청각장애 영역에 있는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을 소수 민족처럼 인식한다. 이들의 제1언어는 한국수어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들 농인 대부분이 수어를 부모로부터 습득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들에게 한국수어는 모국어와 같고 한국어는 제2언어나 다름없다. 농인들이 다른 장애 영역에 있는 이들과 그다지 동질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인이 사회에서 여러 활동에 제약을 받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청각장애라는 신체 조건에 있지만, 그들이 사회 활동에서 제약을 겪게 되는 근원적 이유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데에 있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보다 ‘제1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라는 인식으로 해석할 때, 농인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 잘 설명된다. 자신이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청각장애라는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보다 더 의미 있다. 사실 자신이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존재가 된 이유가 청각장애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매순간 떠올릴 이유도 없다. 이들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 취업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유는 청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류 사

회의 언어가 한국수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인들은 다른 장애 영역의 사람들과 한데 묶여 ‘청각장애인’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농인이 한국수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장애 영역의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다른 언어(한국수어)를 가진 공동체(농사회)의 일원인 자신(농인)을 다른 장애 영역의 이들과 한 묶음으로 묶어 버린 이는 농인 자신이 아니라 청인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청인들이 농인들의 자의식을 장애 영역에 고정해 놓고 있는 동안에도 농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에 기대 자신들만의 문화와 공동체를 키우고 유지해 왔다. 그리고 농인 공동체 내에서 살아 움직이는 문화는 수어라는 고유한 언어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 언어를 키워낸 문화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문화의 의미를 고찰하며 문화와 언어, 그리고 기술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다.

요약하자면, 문화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상호 연관된 일련의 복잡한 활동이며, 문화도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그 기원이 깊이 묻힌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연관된 짝으로서의 언어와 기술의 발전은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으며 자연의 비밀을 들출 수 있는 지렛대를 인간에게 부여했다. 그것은 우리가 최고의 의미에서 문화라고 생각하는 창조성의 분출에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최효선 역 2000: 83)

언어는 인간의 본성이며, 불완전하되 가장 심오한 정신 도구이다. 언어는 인간의 외적 활동과 내적 활동을 일련의 규칙하에 정돈한 상징 체계이다. 인간의 외적 활동이란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의 일상과 경험이고, 인간의 내적 활동은 그에 대한 정신 작용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언어를 낳고 언어는 문화를 담아낸다. 이렇게 문화의 산물인 언어는 각각이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의 상징 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문화의 소산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유기체와 같이 인간과 공동체에 작용한다. 문화적 존재인 인간의 경험은 언어를 통해 실체화되고 실체화된 사고와 사상은 그 문화를 지탱하는 자양분이 된다.

3) 문화를 지탱하는 언어

문화에는 유무형의 유산들이 있다. 언어는 무형의 유산이다. 그리고 언어에는 해당 문화의 수많은 서사와 가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언어에 담긴 공동체의 가치들은 언어의 전승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공동체도 유지된다. 언어가 있는 공동체는 물리적 토대(영토, 마을 등)가 훼손되어도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고 전승해 갈 수 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문화의 수호자이다.

문화가 잉태한 최고의 산물인 언어는 자신의 어머니, 즉 근본(根本)인 문화를 수호한다. 그러하기에 언어의 전환, 즉 언어 교체를 겪은 공동체는 자신의 언어에 담긴 문화를 잃게 된다. 언어학자이자 역사가인 앤드류 달비(Andrew Dalby)는 그의 저서 『언어의 종말』에서 ‘언어가 사라지면 그 언어에 내재한 세계관 또한 사라져간다.’라고 말하며, 매리언 미쉰(Marianne Mithun)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였다.

언어가 사라져 갈 때[매리언 미쉰은 계속해 나간다] 문화의 가장 심오한 부분들 역시 사라진다. 경험을 개념화하고 사고를 서로 연결시키며 다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식이 사라져 가는 것이다. 문자 예술 가운데 보다 의식意識적인 장르, 즉 전통 제식, 웅변술, 신화, 전설들 그리고 유머까지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화자들은 보통 자신들이 다른 언어를 말할 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생각조차 다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매리언 미쉰)

(...중략...)

“언어의 소실은 사람들을 그들의 유산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들을 일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의미한다.”

(오영나 역 2008: 450)

이렇게 언어는 문화에서 태어나 문화의 운명을 짊어지고 간다. 한국수어도 역시 농문화에서 태어나 농문화의 운명을 짊어진다. 한국수어의 특질이 농문화의 특질이며 그 특질이 보전되는 한 농사회란 이름의 공동체는 인류의 한 부분으로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수어가 훼손되고, ‘한국어화(韓國語化)’되고, 심지어 한국어로 교체된다면, 농문화는 자신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정수(精髓)를 잃게 될 것이며 농사회는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수어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과제이다.

3. 한국수어 바로 알기

1) 한국수어와 한국어

인류학자인 즈데네크 살즈만(Zdenek Salzman)은 그의 저서 『언어, 문화, 사회』에서 언어, 문화, 민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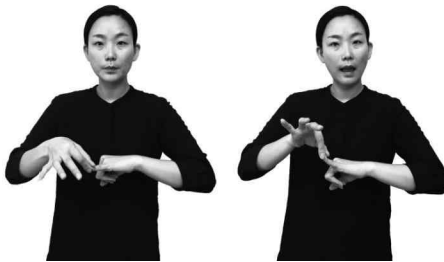

과거에는 언어, 문화, 민족 중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그 하나의 값이 다른 두 개를 함의하는 것처럼 종종 섞여서 취급되었다. 근대 인류학자들은 훗날의 발언이 만들어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류학의 과제이면서 또 그동안의 성과 중 하나는 문화, 민족, 언어가 역사적으로 분리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자체 복잡성에 미루어 볼 때 인간의 문화가 언어의 도움 없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유형의 문화가 언어의 어떤 유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론이 성립된 적이 없다. 사실 매우 유사한 문화적 성향을 공유하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전적으로 관련 없으며 구조적으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지역 사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한다.

(김형중 역 2006: 57)

시각언어인 한국수어와 음성언어인 한국어는 한국문화라는 바탕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양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언어이다. 흔히 한국수어를 한국어 어순에 수어 단어만 대응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국수어는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시각화한 체계가 아니다.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어휘의 의미 범주와 문법의 구현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다른 언어이다.

(1) 어휘-의미 값

한국수어로는 하나의 단위로 처리되는 어휘가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거나 구(句) 이상의 단위로 번역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무수히 많다. 다음은 한국수어 단어에 한국어 의미 값을 대응한 것이다.

한국수어	한국어 의미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를 상대로 거뜰히 이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화롭지 못하다 • (앞선 원인으로 인해) 결과(목표)에 도달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 (지역에 따라) 생강(으로도 통용) • 불구, 장애(병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 없다. • 잘 구비되다 • 임무(목표) 완수 • 온전하다 • 조화롭다 • 완벽하다 • 흠잡을 데 없다

위에 제시된 수어 어휘들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대일로 단순 대응되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수어에는 이렇게 한국어와 일대일도 대응되지 않는 어휘들이 많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그렇다. 그래서 한국어로 된 구(句)가 수어 단어 한 개로 처리되거나 한국어의 단어 하나가 한국수어에서는 구(句)로 처리되는 일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은 두 언어 공동체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어휘에서 잘 나타난다. 모든 언어의 어휘는 그 문화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반영한다(최윤희 2013: 54). 한국어와 한국수어는 세분화된 어휘 범주가 서로 다르다. 흔히 한국수어의 경우 전문 용어 어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청인 사회로부터 받고는 하는데, 이로 인해 한국수어가 한계가 있는 언어로 오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한국수어가 한계를 갖고 있어서 생

기는 게 아니다. 전문 직종에 농인의 참여가 늘어난다면 농사회에서 해당 분야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전문 용어들도 수어 어휘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 한국 농사회에서 개신교 관련 수어 어휘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2) 문법 체계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문법 체계도 다르다. 한국어는 순차성에 기초한 문법 구조를 갖는다. 한국어는 단어를 순차적으로 나열함으로써 의미를 전달한다. 반면 한국수어는 순차성뿐만 아니라 동시성에 기초한 문법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수어는 수지기호와 비수지기호를 공간에다가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펼쳐내는 시각언어이다. 또한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어, 목적어를 표현하고 존대를 구현한다. 다음은 실제 대화 속에서 인지할 수 있는, 두 언어 간의 문법 차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 5]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문법 체계

문법	한국수어	한국어
주어와 서술어 호응 (서술어의 위치)	서술어는 문장 끝에 제시되지 않고, 주어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 제시된다.	서술어는 문장 끝에 제시된다.
주어와 목적어 구현	변형(일치 동사 혹은 굴절), 지시(마커) 등을 통해 주어, 목적어를 특정한다.	조사를 통해 주어, 목적어를 특정한다.
꾸미는 말의 위치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뒤에 온다.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
정보 생략	주어, 목적어, 연결어 등이 생략 없이 공간 활용과 지시 등을 통해 정확히 제시된다.	주어, 목적어, 연결어의 생략이 허용된다.
존대	문법표지(얼굴 표지와 몸 표지)를 통해 존대를 구현한다.	단어와 문법 요소를 통해 존대를 구현한다.
시간정보	수지기호를 통해 시간 정보를 정확히 제시한다.	선어말 어미, 관형형 어미 등을 통해 시제를 드러내며, 시간 정보를 담은 단어의 생략이 허용된다.

2) 한국수어와 수지한국어

앞서 우리는 한국수어와 한국어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한국수어는 어휘와 문법 모두 한국어와는 다른 의미와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구화주의 100년의 역사 속에 한국수어는 한국어의 위세에 눌려 한국어의 잣대로 재단되었으며, 고유 문법 체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한국어 문법의 사용을 강요당해 왔다. 그 결과 한국어 문법에 맞추어진 수어, 즉 한국어 어순에 한국수어의 단어만을 대입한 형태의 수지한국어가 오랫동안 농사회에 만연해 왔다.

수지한국어는 ‘문장식 수화’나 ‘한글식 수화’, ‘한국어 대응 수화’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수어 체계의 일부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수지한국어는 한국어 문법을 따르면서 단어에만 수지기호(손)를 대응한 유사 한국어 체계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수어 문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국어 문법에 따라 수행되는 수지한국어에 ‘수화’ 혹은 ‘수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한국수어를 억압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수지한국어는 한국어 원어민인 청인이나 구화 사용자가 한국수어를 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수지한국어의 사용이 계속되면 여기에 고착되어 한국수어 습득은 불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한국어는 청능주의와 구화주의의 시대 흐름 속에 그 입지를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한국수어의 위협이 되고 있다. 수지한국어와 한국수어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농사회 구성원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한국수어는 향후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수지한국어에 익숙한 화자는 한국수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법 표지(비수지기호, 분류사, 역할 전환, 공간 활용 등)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며, 대부분 감정 표지 이외의 수어 문법을 구사하지 못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음성과 수지기호(손짓)를 동시에 구현하는 방식이 수지한국어이며 이러한 방식은 한국수어가 아니다. 물론 한국수어에서도 일부 단어를 제시할 때 ‘마우딩’이 동반되나, 결코 수어문 전체를 ‘마우딩’하지는 않는다. 음성과 수지기호를 동시에 발화하면, 한국수어 문법 표지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지한국어는 한국어의 문법과 한국수어의 단어를 조합한 것으로 언어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수지한국어는 매우 특별한 통역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나 연설 등을 수지한국어로 구현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수지한국어는 한국어도 한국수어도 아니다. 음성과 수지기호를 동시에 구사하는 수지한국어로는 복잡하고 밀도 높은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단순화된 불완전한 정보만 남을 뿐이다. 정교하고 밀도 높은 정보는 온전히 언어로만 전달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서 연사나 발제자는 한국수어나 한국어(통역이 동반된)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선택이야말로 농인과 농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다. 수지한국어의 사용을 공식석상에서 계속 용인한다면 한국수어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될 것이다. 수지한국어는 언어의 본질이 훼손된 체계이나 한국수어를 언어적으로 파괴하고 잠식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수어와 일본수어

한국수어와 일본수어는 어휘 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재생원에 대한 기록으로 인해 한국수어가 일본수어의 영향을 받아 들여와 만들어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는 일본수어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쿠와바라 에미는 한국수어와 일본수어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재생원맹아부(齎生院盲啞部) 또한 교과 과정에서 수화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간행 자료(시정연보(1915), 시정25년사(1935))에 의거하여 재생원맹아부에서 [일본수화]를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삼는 연구(안병준 1974)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본수화는 언어 체계로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이 일본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 단순한 서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일본수화의 완벽한 도입으로 보는 견해(官本 2000, 岩井 2002)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첫째, 이미 1909년 평양맹아학교를 통해 농교육이 시작되었다는 것, 둘째, 당시 일본 안에서조차도 일본수화가 체계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과 농학교는 물론 농인 언어 공동체의 수화조차도 공통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셋째, 초기 한국수화에서 일본수화의 어휘 형성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김철관(2010)에서는 (한국수화를) 일본수화라고 하는 용어는 가당치 않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수화의 성립은 한국 안에서의 자생적 자질과 유입 수화 자질 등 두 가지 갈래의 홈사인(home sign)을 기층으로 공통화 과정을 거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쿠와바라 에미 2010: 5-6)

쿠와바라 에미는 그의 논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농대학생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담화 장면을 촬영하여 분석하였는데, 수집된 수어 어휘는 일상생활, 학교생활, 가족·인간관계, 연애, 직업, 취미, 교통 관련 용어(단어 사용이 많은 순)였

으며, 한국과 일본 농대학생이 사용한 수어 어휘 424개 중 동형 수어는 20.28%인 86개, 이형 수어는 79.72%인 338개로 나타났다.

한국수어와 일본수어는 같은 동북아시아의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상을 살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어휘들이 다수 존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민족적 불행이었던 일제의 침탈이 이루어지던 그 시공간에서 재생원이라는 근대 공교육의 장이 열렸고 그 안에서 자생어인 조선수어와 유입어인 일본수어가 공통화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뿐이다. 이로 인해 어휘 면에서 유사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약 20% 있는 데다 시각언어인 수어가 갖고 있는 도상성이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일정 정도 활성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언어가 더욱더 유사해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면적 현상만 보고 한국수어가 일본수어를 들여온 것이라고 곡해해서는 안 된다. 시각언어가 가진 통문화성은 다른 수어와 비교할 때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수어와 일본수어에 두 나라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동형 수어가 존재하게 된 것이 사실이나, 일본 농인과 한국 농인 간에 제대로 된, 혹은 심화된 주제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 한국수어와 일본수어 통역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 두 수어는 서로 다른 언어이다.

4) 한국수어와 통번역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달리 문자를 갖고 있지 않다. 수어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농인 공동체들의 고민은 비단 한국에서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에 미국에서는 사인라이팅(수어 문자)이, 유럽에서는 수어 전사 시스템이 고안되었다. 그러나 농인 공동체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수어 문자는 아직 없다. 결국 한국수어는 연구와 통번역 과정에서 언제나 한국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수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차이는 매우 크다.

한국어와 한국수어, 두 언어 간의 통번역은 문자 통역이라고 불리는 속기와는 차원이 다른 능력과 두뇌 활동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속기를 문자 통역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법령 체계는 과장된 면이 있다. 속기는 한국어 음성 정보를 한국어 문자 정보로 단순 교환하는 기술적인 작업이다. 물론 내용에 대한 선이해가 속

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만 한국어 능력과 속기기술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수어-한국어 통번역에 비교될 수 없다.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필기통역은 물론이거니와 동시통역인 음성통역은 두 언어 모두에 유능하고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불가능한 업무이다. 한국어- 한국수어 동시통역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한국수어를 도출하는 것이 많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다.

한국수어에서 한국어, 한국어에서 한국수어로의 번역도 쉽지 않다. 내용의 밀도와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본 번역자라면 두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간극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경험해 봤을 것이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동시통역이 차라리 낫다고 느낄 만큼 끝없는 작업이 번역 작업이다.

우리 주위에서 제대로 된 한국수어-한국어, 한국어-한국수어 통번역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수지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한국어로 도출하기, 한국어를 수지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로 제대로 도출하기 등에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 그리고 배경지식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통번역을 위한 첫걸음은 한국수어와 원어민인 농인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될 것이다.

4. 한국수어의 주요 특성

1) 시각언어로서 한국수어

한국수어는 여느 언어와 같이 의미성(자의성)과 함께 도상성을 갖고 있다. 그중 도상성은 한국수어가 시각언어이고 농문화를 기반으로 발달했음을 여실히 느끼게 해 줄 만큼 한국수어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다. 한국수어에서 도상성은 마음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구현을 통해 다층적인 문법정보와 의미를 구성해 낸다. 한국수어의 이러한 특성은 한국수어가 음성언어와는 다른 방식의 언어임을 증명한다. 시각언어인 한국수어는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 표지와 공간을 통해서 문법과 의미를 완성한다. 다음은 시각언어인 한국수어가 갖는 대표적인 문법 특성이다.

2) 특징적 문법

(1) 분류사

한국수어의 분류사는 사물이나 생명체의 모양과 차원을 표지하기 위해 선택된 수형(손 모양)의 형태와 동작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서술어를 문법적으로 수식하는 데 사용된다.

(변강석 2010: 182-183)

한국수어는 분류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한국어에서는 단어로 처리되는 의미를 한국수어에서는 분류사로 구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처리된 정보를 한국수어에서는 세밀하게 구분하고 여러 개의 분류사를 동시에 사용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예, 신호등, 교통사고와 같은 한국어 단어의 경우 한국수어에서는 보행신호와 운전자 신호, 차종과 진행 방향, 추돌과 충돌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가 제시되도록 표현한다). 그리고 분류사로 구현된 용어나 개념들은 지역별,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대화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인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소나 과일류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 혹은 지역 특성에 따라 분류사가 다르게 구현될 수 있다.

분류사와 도상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분류사는 한국수어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도상성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문법 요소이다. 수 분류사에 한정되다시피 한 한국어와 달리, 한국수어는 그 어떤 소재와 주제든지 분류사로 무궁무진하게 다룰 수 있다. 시각언어인 수어의 도상성은 분류사라는 문법 장치가 만들어 내는 세계이며 화자의 능력에 따라 문학적 완성도와 예술의 경지를 보여 주기도 한다.

(2) 공간 활용

한국수어는 공간을 통해 많은 정보를 동시에 구현하는 언어다. 한국어는 문장 성분을 순차적으로 나열해 의미를 완성하지만, 한국수어는 공간을 활용해 여러 문장 성분을 동시에 구성함으로써 의미를 완성한다. 한국수어에서는 메시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공간을 나누어 점유한다. 그래서 수어 동작의 방향을 바꾸는 굴절을 통해 주어, 목적어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등장인물이라도 공간에 배치하는 과정이 끝나면 목적어(등장인물)에 대한 수지기호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수어를 구사할 수 있다.

한국수어에서 공간은 단순화된 연극 무대처럼 평면적이지 않다. 공간은 분류사와 만나 다양한 장을 구성한다. 우주와 바다, 현미경 안 세계까지 어떤 배경이든 우리 눈앞에 펼쳐낼 수 있으며 그 장에 다양한 장치를 동시에 구현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국수어 화자들은 이러한 공간의 활용이 만들어 내는 메시지 속에서 정보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규모와 역동성까지 주고받게 된다.

(3) 비수지기호

비수지기호는 한국수어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문법 장치이다. 비수지기호의 가장 큰 문법적 역할은 문장의 종류(종결)를 결정하는 데 있다. 한국어는 단어(어미 변화)를 통해 문장의 종류를 정하지만, 한국수어는 비수지기호를 통해 문장의 종류(평서, 명령, 청유, 조건, 의문 등)를 정한다.

(김유미 2016: 191)

비수지기호를 감정 표지로만 알고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로 인해 과장된 얼굴 표정과 몸짓이 습관화되어 어색한 수어를 구사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비수지기호는 부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장치가 된다. 그러나 비수지기호의 역할은 훨씬 광범위하며 수어에서 사용 비중이 크다.

비수지기호로서 얼굴 표지는 주로 문장의 종류(종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단순히 감정을 과장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조건문을 구사할 때 한국수어 화자는 시선 교환, 얼굴 표지(눈과 눈썹, 턱의 움직임)를 동시에 구현하는데 그 순간이 매우 짧아서 수지한국어 화자들은 조건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기가 쉽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수어에서는 몸 표지를 통해 존대법을 구사한다. 몸 표지는 존대를 표현하는 문법 요소일 뿐만 아니라 화자를 전환하는 ‘역할 전환’ 장치이기도 하다. 어깨를 좌우로 살짝 트는 것만으로 화자가 바뀌게 된다. 몸 표지와 얼굴 표지는 그 움직임을 과하게 하지 않고 매우 절제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어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한국수어의 의미를 놓치고 엉뚱하게 오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3) 한국수어 담화의 특징

한국수어 담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최근 한국수어 말뭉치 연구가 진척되면서 한국수어의 담화 특징을 연구할 기반이 갖추어지고 있다. 한국수어 담화를 들여다보면 농문화의 특징이 드러난다. 다음은 농문화에 속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담화의 예이다.

THAT DEAF GUY		
BY MATT & KAY DAIGLE		
<p>DEAF CULTURE 101: DESCRIBING AN ACCIDENT.</p>	<p>HEARING STORY</p> <p>ARE YOU OKAY?</p> <p>YEAH, LAST NIGHT I GOT INTO A FENDER BENDER.</p>	<p>DEAF STORY</p> <p>HEY, YOU OKAY?</p> <p>YEAH, LAST NIGHT, I WAS DRIVING HOME... MAN, WAS IT <i>HOT</i> OUTSIDE, I THINK IT WAS ALMOST 95 DEGREES. ANYWAY, A RED SPORTS CAR IN FRONT OF ME, <i>STOPPED</i> SUDDENLY, BECAUSE OF A DOG. WHEN I SLAMMED ON MY BRAKES THE CAR BEHIND ME, <i>HIT</i> ME. <i>LUCKILY</i>, WE WEREN'T DRIVING FAST AND IT WAS JUST A FENDER BENDER.</p>
<p>농문화 101: 사고가 났을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 괜찮아? - 응, 어젯밤에 접촉 사고가 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괜찮은 거야? - 응. 어젯밤에 말이야.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제 정말 더웠잖아. 35도는 되었지 싶어. 암튼 내 (차)앞에 빨간색 스포츠카가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는 거 있지. 개가 지나가는 바람에 그런 거야.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결국 부딪쳤어. 그래도 다행히 둘 다 빨리 달리지는 않아서 가벼운 접촉 사고로 끝난 거지.
<p><www.thatdeafguy.com></p>		

한국수어 화자 간의 담화를 보면, 특유의 화법이 자주 보인다. 통상적으로 농인 상호 간의 담화나 개인 발표(이야기) 모두에서 이런 경향이 발견된다. 한국수어 화자는 어떤 사건을 서술할 때 자신의 행위나 선택, 혹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가치 판단'이나 '감정 정보'를 문장 종결 과정에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수지기호로도 드러나지만 비수지기호, 특히 얼굴 표지를 통해 매우 짧은 순간 표현된다. 따라서 한국수어 화자(농인)의 수어를 보다 보면, 그날 화자의 몸 상태, 기분, 주변 상황, 그 사건에 대한 화자의 가치 판단과 감흥 등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화법은 농문화의 특징으로 외국 농인들의 담화에도 나타나는데, 농인들

이 시각 중심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건을 음성을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과 시각을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농민들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소설이나 영화처럼 배경과 상황을 우선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배경과 상황 등을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가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러한 담화 특성과 농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발전된 연구와 해석이 한국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한국수어 보전의 필요성

1) 위기 언어인 한국수어

‘언어의 전환’이란 유입된 새로운 언어가 확산되면서 구언어(舊言語)를 대체하여 결국 구언어가 소멸되는 현상을 말한다(오영나 역 2008: 163). 이러한 현상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소수 언어는 언제나 ‘언어의 전환’이란 위협 앞에 서 있기 마련이다. 언어학자이자 역사가인 앤드류 달비(Andrew Dalby)는 그의 저서 『언어의 종말』에서 ‘언어의 전환’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다.

소수의 권리와 소수 문화,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언어의 보존에 적극적이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적시에 적소에서, 사라져 가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 언어를 말하도록 가르치기까지 한다. 반면 소수 언어의 화자들은 국가어로 언어를 바꾸기를 열망하며, 자기 아이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언어학자들은 이 문제의 양면을 잘 살필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오영나 역 2008: 498)

한국수어도 예외는 아니다. 구화주의 교육 100년의 역사는 한국어 중심의 언어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농사회 깊숙이 파고들었다. 농자녀를 키우는 청인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농인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가 한국어를 잘하여 주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인공와우 수술을 시키고 통합 교육을 하는 학교로 아이를 보낸다. 자신이 겪는 언어 장벽과 그로 인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서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언어인 한국수어보다 한국어를 가치 우위에 두게 되는 것이다. 에드워드 홀의 깊은 통찰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문화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훨씬 많으며, 더구나 묘한 것은 그 문화에 속한 사

람들이 감춰진 바를 가장 모른다는 점이다.

(최효선 역 2000: 53)

한국수어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과 한국어를 습득하여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는 농인들에게 한 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수어는 구조적으로 억압되고 있다. 한국어는 위기 언어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수어는 위기 언어이다. 우리가 한국수어에 접근할 때,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적 지위만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수어는 사용 인구가 아주 적은 언어다. 설상가상, 수지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한국수어를 풍부하게 구사하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농문화의 요람이었던 농학교에 입학하는 농아동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 입학하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학생들의 수어 사용 경험, 즉 수어를 통한 언어 경험도 과거에 비해 빈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농사회의 유입 인구 감소 현상과 언어 경험 약화 현상은 농사회의 ‘언어의 전환’ 현상을 부채질한다. 언어의 전환은 결국 언어 소멸의 다른 말이다. 위기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다.

2) 소수 언어인 한국수어

지구를 지배하는 소통 체계는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한다. 음성언어는 광범위한 문화 영토를 갖고 있으며 음성언어의 세계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풍부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음성언어 중 소수 언어의 소멸은 음성언어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다. 거대한 생태계의 극히 적은 일부분의 소멸도 인류 전체의 손실이기에 이것은 위기가 될 수 있으며 안타까움의 대상이 된다.

한편 시각언어의 세계는 어떠한가. 언어가 있는 모든 곳, 농인이 있는 그 어느 곳이나 시각언어인 수어가 존재하지만 음성언어와 달리 사용 인구가 극히 적다. 시각언어인 수어의 문화 영토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시각언어인 수어가 음성언어의 위세에 밀려 변형되고 그 특질을 잃어 간다면 그 끝에는 수어의 소멸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한 공동체의 수어가 소멸된다면 시각언어 세계에선 매우 큰 영토를 잃는 것이 된다. 시각언어의 문화 영토가 그만큼 작기 때문이다.

소수 언어이면서 시각언어인 한국수어가 한국어의 간섭과 영향 아래 언어의 특질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각언어라는 작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국수어의 특질을 잃은 채 무미건조한 손짓만 남는다면 그 언어의 생명은 끝난 것이며, 그 문화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인간이 있는 한 소통은 계속 되겠지만 언어는 교체될 수 있다. 하나의 언어가 약해질 때 크레올(créole)이나 피진(pidgin) 같은 수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엔 위세가 있는 언어로 교체된다. 한국수어 원어민이 줄어들고 한국어의 간섭이 계속된다면 한국수어는 수지한국어로 대체될 것이며, 한국어로 대체된 그 시공간에서 농인의 문화도 쇠락할 것이다. 그리고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이 아닌 수지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인만이 남게 될 것이다.

3) 한국수어 보전을 위한 실천

여느 소수 언어들처럼 한국수어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사회의 구성원들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기회 삼아, 위기 언어인 한국수어의 내용과 특질을 보존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알고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아래는 한국수어 보전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들이다.

- 한국어 간섭이 배제된 방식으로 한국수어를 수집한다.
- 언어학적 전문성을 갖춘 농인 수어 연구자들을 육성한다.
- 한국수어의 고유 특질을 연구하여 규칙을 정리한다.
- 한국수어와 수지한국어의 차이를 연구하여 제시한다.
- 수지한국어는 한국수어가 아니며 보존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 농사회에서 한국수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

언어학자인 토르 안손(Tore Janson)은 소수 언어의 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의에 따르면 소수 언어란 화자의 수가 아주 적은 언어이고, 소수 언어의 화자들은 대체로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미비하다. 이런 이유로 소수 언어의 위기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진행된다. 언어학자들과 여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다가 정작 사태가 더 이상 견잡을 수 없게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다.

(김형엽 역 2015: 310-311)

지금 한국 농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언어 충성도’이다. 어느 소수 언어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농사회도 국가어인 한국어 습득과 자신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맞바꿔 가고 있다. 그 증거가 바로 수지한국어 사용자의 증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사회의 지도자들이 공식석상에서 수지한국어로 연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며, 암담한 것은 이런 수지한국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수지한국어로 밀도가 낮고 부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청인’은 농인과 수어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수어통역을 세워 밀도 높은 정보를 전하는 청인’은 농인과 수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금의 풍토는 결국 한국수어를 약화하고 수지한국어를 강화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4) 한국수어 보전의 의의

언어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 소멸 위기에 있는 언어를 문자와 영상 등으로 재빠르게 기록해 그저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을 언어의 보전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언어가 박제되어 박물관에 들어가는 순간 슬픈 주검과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한 애도만이 남을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농사회가 원하는 한국수어의 보전은 농문화 특질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수어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위기 언어인 한국수어는 한국어보다 백배의 노력을 들여 그 특질을 연구하고 유지하고 전승하여야 할 대상이다. 한국수어를 한국어의 시각적 대체품으로 생각하는 한 한국수어에 미래는 없다. 또한 농정체성과 장애 정체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어 원어민인 농인의 존재 자체를 불행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수어는 보전되어야 할 대상으로, 농인은 소멸되어야 할 대상으로 분리하는 이율배반에 빠지게 된다.

언어·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을 볼 때, 농인이 가진 청각장애나 농인의 언어는 그저 농인의 존재 양식일 뿐이며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농인은 문화적 존재이며,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농인의 문화유산

이다. 그러므로 한국수어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이해하고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수어가 수어 고유의 특질을 유지한 채 세대를 거듭하며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나 자신이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소수 언어와 인연을 맺고 그 언어와 함께하는 이들의 숙제이자 의무일 것이다.



- 곽병휴 역(2016), 『언어 상대성 원리는 있는가?: 사피어-워프 가설 연구』, 아카넷.
[Gipper, H.(1984), *Gibt Es Ein Sprachliches Relativitätsprinzip? Untersuchungen Zur Sapir-Whorf-Hypothese*, Frankfurt am Main, Germany.]
- 김기혁·호정은 역(2012),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 글항아리. [Evans, N.(2010), *Dying Words: Endangered Languages and What They Have to Tell Us*, Wiley-Blackwell.]
- 김병욱 역(2011), 『언어들의 죽음에 맞서라』, 나남. [Claude Hagège(2000), *Halte à la mort des langues*, Odile Jacob.]
- 김유미(2016), 『영혼에 닿은 언어』, 흥성사.
- 김유미(2018a), 「농인의 강점과 농문화에 맞는 일상」, 『농인의 생활과 문화』(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유미(2018b), 「청인사회와 농인」, 『농인의 생활과 문화』(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형중 역(2006), 『언어, 문화, 사회』, 온누리. [Salzmann, Z.(2004),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Westview Press.]
- 김형엽 역(2015), 『언어의 역사』, 한울. [Janson, T.(2012), *The History of Languages: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변강석(2010), 『한국수어와 친구 되기』, 한국농아인협회.
- 박미애 역(2004),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 한길사. [Elias, N.Scotson, J. L.(1965), *Etablierte und Außenseiter*, Suhrkamp.]
- 오영나 역(2008), 『언어의 종말』, 작가정신. [Dalby, A.(2002), *Language in Danger*, Columbia University Press.]
- 이와아·김만영·김상화 편역(2002), 『농문화의 이해』, 농아사회정보원.
- 장진석 역(2007), 『미국 농사회의 변천사』 교육과학사. [Van Cleve, J. V.Crouch, B. A.(1989), *A Place of Their Own: Creating the Deaf Community in America*, Gallaudet University Press.]
- 장진석 역(2012), 『오디즘과 인간으로서의 농인』, 교육과학사. [Nordell, P.(2011), *Deafhood/Audism*, Dövlana konsult & tjänster.]
- 장진석 역(2014), 『미국의 농문화』, 교육과학사. [Padden, C.Humphries, T.(1990),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 최윤희(2013),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최효선 역(2000), 『침묵의 언어』, 한길사. [Hall, E. H.(1968), *The Silent Language*, Fawcett.]

쿠와바라 에미(2010), 「한·일 농 대학생의 사용 수화어휘 비교」,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 6 장

농교육과 수어로 배울 권리

각 정 란

1. 들어가며	102
2. 농사회와 농학교 교육	103
3. 농사회와 통합교육	110
4.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	113
5. 맺으며	119
참고 문헌	122

제 6 장

농교육과 수어로 배울 권리



요 약

이 장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라는 관점에서 농교육과 농사회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농교육의 중요한 장인 농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농학교 교육이 농인의 수어 습득과 농문화 전승 그리고 농인의 낮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수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절에서는 농인의 제1언어인 한국수어로 배우고, 제2언어로서 한국어 읽기·쓰기를 배우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주요 개념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농인은 음성언어와 다른 수어라는 독립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문화를 형성해 왔다. 농인은 일방적으로 주류 사회의 언어만을 습득할 것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의 농교육이 농아동을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게 하여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농교육은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사회 통합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농교육이 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교육은 농인의 수어 습득뿐만 아니라 농사회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장에서는 농교육이 농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라는 관점에서 농교육의 중요한 장인 농학교 교육과 통합교육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농사회와 농학교 교육에서는 농학교

교육이 농인의 수어 습득과 농문화 전승 그리고 농인의 낮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농아동의 통합교육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농아동의 수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 알아본다. 제3절에서는 농인의 제1언어인 한국수어로 배우고, 제2언어로서 한국어 읽기·쓰기를 배우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주요 개념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농사회와 농학교 교육

1) 농학교와 농문화 전승

(1) 수어 습득의 장

농인의 약 90%는 청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인 부모 대부분은 수어나 농인을 접한 경험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청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농아동들은 가정 내에서 수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 반면 농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약 10%의 농아동들은 청인 아동이 청인 부모와 일상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정 내에서 수어를 습득한다.

시각언어인 수어는 음성언어와 달리 또래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 언어의 습득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森 2005: 159). 동료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수어 습득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공간 중 하나가 바로 농학교이다.¹¹⁾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농아동들은 전국 각지의 각 가정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농아동들은 농학교에 모이게 되고, 농아동들은 농학교를 통해 비로소 다른 농아동을 만나게 된다. 농학교에 모인 농아동들은 농인 가정에서 태어나 이미 수어를 사용하고 있는 농아동을 비롯한 여러 또래 농아동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가운데 수어를 습득한다. 그리고 농아동들은 다른 농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농인 사이에서 통용되는 가치관, 규범, 생활 양식 즉 문화를 익힌다. 이처럼 농학교

11) 농학교 외에도 농아인협회와 같이 농인이 모이는 공간은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배우며 농문화를 익히는 곳이다.

는 농인의 수어 습득과 문화 습득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윤배반적이게도 농학교의 공식적인 교수·학습 언어는 수어가 아니다. 그 이유는 농학교가 청각장애아동이 겪는 음성언어 습득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읽기·쓰기의 곤란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농학교는 수어라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인 농학교에서는 입술 모양을 읽고 무슨 말을 하는지 유추하는 말 읽기와 보청기를 비롯한 청각기기를 통해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청각장애아동이 음성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 왔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농아동을 대상으로 음성언어습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농학교에서는 주로 음성언어와 수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인의 수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독립된 언어이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학교에서 음성언어와 수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한국어로 말을 하면서 수어 단어를 한국어 어순에 따라 나열하는 ‘수지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농학교에서 농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반면, 수업 시간 등의 공식적인 활동에서는 음성언어와 수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지한국어’가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농학교는 농아동이 수어를 습득하는 곳이지만, 농학교가 목표로 하는 언어는 음성언어이며, 수어는 음성언어를 습득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농아동은 농학교에서 언어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음성언어와 수어의 관계와 이들 간의 위계 관계를 학습하게 된다. 이것은 농사회 구성원으로서 한국어와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태도와 농사회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와 의사소통 수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저 어떤 농인은 자신의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보다 자신의 구화 능력을 부끄러워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수어보다 ‘수지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한국수어와 한국어에 대한 농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농인이 농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형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농사회 구성원 중에는 구화만을 고집하는 교육을 받다가 뒤늦게 수어를 배웠지만 한국어와 한국수어 모두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

다. 또 농학교를 다닌 적 없이 청인 속에서 고립된 채 생활해 온 사람 중에는 흡사인과 같은 형태의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2) 농학교의 기숙사

농학교 기숙사라고 하면 장애인 시설과 연결되어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이 가족의 곁을 떠나 살아야 하는 고립된 공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른다. 대부분의 청인 가족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음성언어로 대화를 나눈다. 이 때문에 농아동은 가정 내에서 오고 가는 대화에 끼지 못한 채 외톨이로 지내기도 한다. 반면 농학교 기숙사에서는 수어로 마음 편히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농문화 운동을 이끌어 온 기무라 하루미(木村晴実)는 「농의 민족지」라는 글에서 농학교 기숙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어떤 농인은 어린 자신을 기숙사에 두고 가는 게 참을 수 없었는지 울면서 돌아가는 부모를 옆에 두고 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선배들이 재미있어서 조금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처음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의 일을 이야기한다. 집으로 돌아가도 같이 놀 친구가 없는 많은 농인에게 기숙사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인 것이다.

또 기숙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이 다른 농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생활의 장이며, 초등학교인 아동에게 고등학교 형, 누나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木村 2000: 203)

이처럼 농학교 기숙사는 수어로 마음 편히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점에서 농아동에게 ‘제2의 가정’과 같은 곳이다. 농학교 기숙사가 농인에게 갖는 의미는 단지 수어로 마음 편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칠관과 윤병천은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해 “가정보다도 더 가정과 같은 곳으로서 학교(농학교)는 이야기를 통해 문화의 싹을 틔우게 된다. 여기서 이야기는 농인들을 묶어줄 뿐만 아니라 농인이 되어 가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칠관·윤병천 2014: 82-83). 또 미국의 캐럴 패든(Carol Padden)과 톰 험프리스(Tom Humphries)는 그들의 저서에서 미국의 농문화를 소개하면서 농학교 기숙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들 농학교에서 대부분의 농아동들은 농인—농가족 출신의 아이들과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농 성인들—에 둘러싸여 몇 년을 보낸다. 많은 학교에서 자기 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농학교를 졸업한 몇 명의 농인을 고용하고 있다. 농아동들에게 기숙사 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기숙사 그 자체이다. 그들은 기숙사에서 교실의 구조화된 통제로부터 벗어나 농인의 사회생활로 들어가게 된다. 기숙사의 비공식적인 환경 가운데 아동들은 수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배운다. 이와 같이 학교는 농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의 핵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전 세대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森森 역 2016: 22-23)

농인들은 농학교 기숙사에서 농인끼리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 강한 연대감과 결속력을 형성한다. 나아가 농인끼리 모여 함께 생활하면서 농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생활양식을 습득하게 된다. 우리가 ‘농문화’라고 부르는, 농인의 자긍심과 정체성, 가치관, 생활양식 등을 습득하게 된다. 농학교 기숙사는 청인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더욱 확장시킨다. 이 때문에 농인의 사회통합 등을 위해서는 수어가 아니라 구화를 습득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농교육 전문가들은 농학교 기숙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보청기 개발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은 농학교의 기숙사는 농인을 집단화하여 농인끼리 결혼하는 것을 장려하는 곳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박승희 역 2003: 120).

[농교육 칼럼 1]

◎ 농교육의 수화구화 논쟁 ◎

18세기 유럽에서 근대 농교육이 시작된 이래 농교육에서는 농아동을 수화로 가르칠 것인가, 구화로 가르칠 것인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프랑스의 레페는 농인이 사용하고 있는 수어에 주목하여 수어를 교육 도구로 적극 활용하여 농아동의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독일의 하이니케는 ‘수화법’을 지팡이에 비유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지팡이 자체도 하나의 장애가 된다고 수화법을 반박하면서 “음성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화법을 강조하였다(김병하 2002: 46). 한편, 1880년 이탈리아 밀라노 세계 농교육자 대회에서는 농아동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수화법보다 구화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라노 대회에서 채택된 구화법은 보청기 개발 등에 힘입어 농교육의 주류가 되었다.

한국의 근대 농교육은 식민지 강점기의 제생원 맹아부에서 시작되었다.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일본수어가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한국수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복 이후 처

음에는 수어를 통한 농교육이 실시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 보청기가 보급되면서 청각을 활용하는 구화주의 교육이 농교육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8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토털커뮤니케이션이 소개되었다. 토털커뮤니케이션은 구화 일변도 농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농아동 한 사람의 언어적 요구에 맞춰 구화, 수어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토털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어가 농교육에 다시 도입되었지만, 토털커뮤니케이션은 종래의 청각을 활용하는 구화법에 수화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미국,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90년대부터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로 교육을 하며, 제2언어로 읽기-쓰기를 배우는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중언어-이중문화 교육이 한국에도 소개되었지만, 실질적인 농교육의 변화를 가져 오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 농교육은 인공와우 수술의 보급, 보청기 성능 향상 등의 영향으로 청각을 활용하는 구화주의 교육과 한국어에 기반하여 말과 수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토털커뮤니케이션이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에서도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즉 근대 농교육이 시작된 이래 제기된 수화나 구화냐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 농교육의 언어지도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김병하(2002: 53-56)를 참조할 것

2) 농학교 교육과 낮은 학업 성취

농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농교육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 이 용어는 농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농인의 학력 수준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Johnson et al 1989). 아래에서는 농학교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온 구화교육과 농아동의 낮은 학업 성취 수준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무라 하루미(木村晴美)는 농교육학자 가나자와 다카유키(金澤貴之)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농학교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산수에 대해서는 앞서 구구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분수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분수의 개념이 아무리 해도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 $1/2 + 1/3$ 계산을 할 때는 선생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분모와 분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학생들은 도대체 뭐가 분모고 뭐가 분자인지 모르죠. 또 우리 농인의 감각으로는 엄마와 아이라면 위에 있는 것이 엄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아래에 있고 분자가 위로 가기 때문에 이미 막혀 버리죠. 선생님은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같은 상태였어요. 분수 더하기 시간에는

먼저 통분을 합니다만, 왜 통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벌써 그 이야기는 한 것인지 모르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분수 개념 그 자체, 왜 분수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열심히 가르쳐 주는 선생님은 케이크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 것을 사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케이크 전체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 네 쪽 중에 하나라면 4분의 1이라고 그림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만, 그래도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또 분수는 백분율에도 적용되지요. 그래도 그것도 우리들은 잘 몰랐어요. 산수는 앞의 것이 축적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앞의 것을 알고 다음 것을 알게 되는 축적이 필요한데, 구구단도 모르는 아동은 백분율도 모르고, 분수도 모릅니다. 어떤 선생님이든지 열심히 쓰거나 이야기 하면서 설명해 주어도 우리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木村 2001: 300-301)

위에 다소 긴 글을 인용한 것은 이 글이 “농인을 위한 청인에 의한 농교육”(金澤 2001)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농학교 교육에서는 시각적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교사들이 말을 하면서 수어를 함께 사용한다. 이런 수업 방식은 구화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농아동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농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구화와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 교사는 농인의 입장에서 수업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농학교 교사 대부분은 청인이며, 수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제한적이다. 농학교 교사 대부분이 청인인 것은 농인의 사회 통합에 수어보다는 음성언어가 더 낫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능주의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작동하는 농학교에 설령 농인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인 교사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クァク 2017: 143-144).

농인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언어는 시각언어인 수어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의 농교육은 간과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농인이 짊어져 왔다. 농인은 학교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면서 열등감을 안고 살게 되기도 하였다. 낮은 학업 성취는 농인의 고등 교육 기회를 제한하였으며, 직업 선택의 폭도 좁혔다. 그 결과 농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농교육 칼럼 2]¹²⁾

◎ 제21회 농교육 국제회의 밴쿠버 성명 ◎
새로운 시대: 농인의 참가와 협동

농교육국제회의(ICED)실행위원회 및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농사회는 공동으로 아래 내용을 기본 방침으로 표명한다.

기본 방침의 표명

세계적으로 많은 농시민은 '농'이라는 것을 장애의 한 유형으로 취급하는 일반인의 이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관'은 농인을 비롯하여 '다른 존재'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을 배제하고 경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는 보다 넓은 사회를 향한 농인 시민의 참여가 방해받거나, 배제되고 있다. 많은 농인이 의사결정, 고용기회, 질 높은 교육에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농시민은 다양성과 창조성을 수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농시민은 교육, 경제활동, 정치, 예술, 문학 분야에서 자국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농인이 모든 사회에 꼭 필요한 언어적·문화적 소수파로서 인지되는 것은 농인에게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농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인지하여 사회에 참여할 것을 촉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880년 밀라노 농교육국제회의(ICED) 회의의 결의

1880년 밀라노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농교육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당시 참가자는 전 세계의 농교육과 농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를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다음 사항이 결정되었다.

- 세계의 농교육 프로그램에서 수어 사용이 배제되었다.
- 세계 농시민의 생활에 불이익을 가져 왔다.
- 세계 많은 지역과 국가에서 교육 대책과 입안 과정에 농시민이 배제되었다.
- 취업 훈련, 재교육 등 경력 개발 분야에서 정부의 입안, 정책 결정, 재정적인 원조에 농 시민이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 농시민이 다양한 경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막아, 많은 농인이 자신의 꿈을 좇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들은

- 농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에 수어의 사용을 금지한 1880년 밀라노 회의의 결의를 모두 철회한다.
- 밀라노 회의가 미친 유해한 모든 영향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세계 모든 국가가 역사를 기억하고 모든 언어와 모든 의사소통 형식을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미래에 대한 협정〉

우리들은 여기서 선언하고 서명합니다.

- 유엔(UN)의 제 원칙에 기반하여 특히 교육은 언어와 학문적, 실용적, 사회적 지식의 획득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기한, 유엔(UN)의 '장애인권 리조약'의 원칙을 비준하고, 그것을 따를 것을 세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세계농연맹은 2007년 제15회 마드리드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특히, 다언어적·다문화적 교육에 평등하며 적절한 참여 촉진을 지지하는 결의를 인정하도록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국가가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언어에 자국 농시민의 수어를 추가하고, 다수파인 청인의 언어와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농유아, 농아동, 농청년을 둔 부모들이 농문화나 수어를 이해하는 데 농시민이 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아동 중심 접근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가족 중심 접근법으로 농인 및 청인 가족을 지원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모든 유아가 지역 및 전국의 농인 조직, 농학교와 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농시민이 자기 자신들의 인권에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 모든 농시민이 자랑스러운, 자신에 찬,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Vancouver 2010, "A New Era: Deaf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https://www.kestner.de/n/verschiedenes/presse/2010/ICED-StatementofPrinciple.pdf>)

3. 농사회와 통합교육

1) 인공와우 수술의 확대와 통합교육

최근 농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 12) 2010년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21회 농교육국제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Education of the Deaf)에서 농교육에서 수어 사용 금지를 결의한 1880년 밀라노 회의를 철회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칼럼은 당시의 성명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것이다.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된 청각장애학생은 2007년 53.4%(2,864명 중 1,530명)에서 2017년 75%(3,358명 중 2,519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학교(청각장애학교) 수는 2007년 17개교에서 2017년 14개교로 3개교가 줄었다(교육부 2017).

[표 6] 청각장애 특수교육 기관 배치 현황(2017)

단위: 학생 수

	농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통합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청각장애학생수	819	691	1,828	20	3,358

교육부(2017: 3)

한편으로 농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공와우 수술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의료보험(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2017년에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5세 미만에 한해 양쪽 귀 모두를 시술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2018년 11월부터는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기존의 2세 이상 70dB, 2세 미만은 90dB이었던 것이 1세 이상 70dB(1세 이상)로 완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농아동을 둔 청인 부모 대부분은 수어와 농사회를 접한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인공와우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청인 부모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부모들이 인공와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수어와 농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듣지 못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수화언어보다는 음성언어가 더 낫다’는 가치관(クァク 2017)은 한국 사회에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통용되고 있다. 반면, 농학교는 농인이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수어 및 농문화의 전승과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2) 통합교육과 수어를 배울 권리

1994년 스페인 살라망카에서 개최된 세계 교육자 대회에서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육의 개혁을 통한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살라망카 선언은 세계 각국에서 통합교육을 장애인교육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살라망카 선언은 통합교육이라는 원칙 아래 학교가 모든 아동의 개별적인 요구를 지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인의 경우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수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농인이 수어로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UNESCO 1994). 또한 2006년 유엔(UN) 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권리조약’에서도 모든 수준의 통합적인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를 다음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였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점자, 대체 문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을 촉진할 것
- (나) 수화 학습 및 청각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제24조 교육)

위의 교육의 장에서 개개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사용 언어를 존중하고 정체성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장애인권리조약’의 기본 원칙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수업내용이나 발표 내용, 토론을 알아듣지 못하는 등 학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에서도 고립되어 있으며, 자신이 다른 또래와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 등 여러 곤란을 겪고 있다.¹³⁾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통합교육 환경 내에서 수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Co-enrollment 프로그램’이다. Co-enrollment는 한국에

13) 정혜원 기자의 ‘통합교육 내 방치된 청각장애 학생들’ 참조(2017년 12월 6일자, 디지털 함께걸음 홈페이지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04>)

“동반입학”(최상배·이한나 2015) 또는 “더불어 학급”(박경란 2016)으로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다. 미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Co-enrollment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에게 수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각장애학생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학급 내에서 수어교육을 실시하여 청인 아동에게도 수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Co-enrollment 프로그램은 통합교육 환경 내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Co-enrollment 프로그램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을 위해 단순히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한 학급에 청각장애아동을 여러 명 배치하여 청각장애아동이 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각장애아동과 청인 아동 모두에게 수어 학습 기회를 보장하여 수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鳥越 2016: 85).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라고 하면 음성언어를 더 잘 듣도록 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기 쉽다. 이제 농교육에서 통합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할 수 없다.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 확대는 농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이 수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농사회의 유지와 전승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청각장애아동과 청인 아동 모두에게 수어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농인의 수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합교육을 받은 청각장애아동이 향후 농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

수화언어법의 제정과 함께 한국에서도 농인의 언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하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이란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로 교육하며, 제2언어로 음성언어의 읽기·쓰기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역사에 대해 개괄하고, 스웨덴과 일본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사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한 개괄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다언어주의와 농문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정립되었다. 근대 학교교육에서 소수 언어의 존재는 무시되거나 경시되어 왔다. 사회 통합이라는 목적 아래 외국어 교육을 제외하고는 주류 언어 중심에 의한 단일 언어 교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소수 언어는 주류 언어로 동화될 것을 강요받아 왔다. 일방적인 동화주의는 주류 언어 사용자와 소수 언어 사용자 간의 분열을 야기하고, 소수 언어 사용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아베 2003: 45).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북유럽, 미국, 캐나다 등 다언어사회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언어 사용을 용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농교육에서 단일언어주의는 다수파의 언어인 구화를 강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음성언어 습득을 저해하는 방해물이며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1960년대 미국의 언어학자 윌리엄 스토키(William Stokoe)는 수어가 음성언어와 다른 별개의 독립된 언어라는 것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주장하는 문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농인들은 자신들이 수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이며, 지금까지의 농교육은 자신들의 언어인 수어와 자신들의 문화인 농문화를 억압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토털커뮤니케이션의 수어와 구화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음성언어 문법에 따라 수어 단어를 나열하는 형태의 ‘방법론적 수어’(Manually Coded English)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농인들은 토털커뮤니케이션의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미국수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방법론적 수어’가 농교육에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인의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Lane 1992). 이와 같은 농사회의 비판에 힘입어 미국의 약 20%의 농학교가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草薙·齋藤 2010: 213). 한편, 스웨덴에서는 1981년 스웨덴 국회에서 스웨덴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래, 국가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스웨덴 수어와 스웨덴어의 읽기·쓰기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鳥越·クリスターソン 2003, 鳥越 2009).

2)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기본 원리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몰입교육(immersion education) 방식의 이중언어 교육에 기반하고 있다. 몰입교육 방식의 이중언어 교육은 소수 언어가 소멸되지 않도록 학교교육에서 소수 언어를 사용하면서 주류 사회의 언어를 배우는 교육이나, 이민자 자녀가 자신의 모어를 잃지 않으면서 주류 사회의 언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육 등에서도 널리 실시되고 있다. 몰입교육 방식의 이중언어 교육은 1970년대 캐나다에서 영어계 아동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중언어 교육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짐 커민스(Jim Cummins)는 학교에서 영어를 모어로 하는 아동에게 제2언어인 프랑스어로 배우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영어의 읽기·쓰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의존 이론을 정립하였다. 상호의존 이론은 서로 다른 언어라고 하더라도 두 언어 기저에 인지적인 공통 부분이 있으며, 한 언어의 습득은 또 다른 언어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박정은 외 역 2012: 35-37).

서로 다른 음성언어 간에 적용되는 상호의존 이론은 시각언어인 수어 사용 능력과 주류 언어의 읽기·쓰기 능력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언어 농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언어로서 수어를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농아동은 듣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며, 이들 아동들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서 농인의 제1언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농아동이 수어를 제1언어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농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어로 교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서 수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생활언어), 수어로 추론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능력(학습언어)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제1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그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류 언어의 읽기·쓰기를 제2언어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농교육이 청인의 언어인 음성언어를 통한 단일언어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달리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농아동이 농인의 언어를 기반으로 청인의 언어(읽기·쓰기)까지 두 언어를 모두 습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クァク 2017).

3)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사례

(1) 스웨덴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

1981년 스웨덴 국회는 스웨덴수어가 독자적인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스웨덴 국회는 농교육에 관해 농인이 농사회와 주류 사회 양쪽 모두에서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중언어 사용자가 되어야 하며, 농인에게 이중언어란 시각언어인 수어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웨덴어라는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기반하여 1983년부터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시작하였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먼저 제1언어로서 스웨덴수어를 습득하게 하고, 제2언어로 스웨덴어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 학교 기초과정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농아동을 위한 독자적인 교과를 4개 신설하였다. 농아동을 위한 스웨덴어, 스웨덴수어, 농아동을 위한 영어, 리듬·연극이다. 리듬·연극은 일반교육의 음악에 해당하는 교육이다.

교사들의 수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 수어를 활용한 교재의 개발, 농인 교사 양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부모에게도 수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웨덴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면서 그 틀을 만들어 왔으며, 현재도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청인 학생의 합격률이 90%에 달하는 데 비해,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받은 농아동의 합격률은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농아동이 늘어나면서, 음성언어와 방법론적인 수화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鳥越 2009).

(2) 일본의 메이세이학원

일본의 메이세이학원은 일본에 있는 약 80여개의 농학교 중 유일하게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메이세이학원은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 학교이다. 이 학교는 농문화 운동을 전개한 농인과 청인, 그 영향을 받은 부모에 의해 설립되었다. 메이세이학원은 1999년 대안학교인 다츠노코학원에서 출발하였

으며, 2007년 학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일본수어를 제1언어로 하며, 일본어의 읽기·쓰기를 제2언어로 하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과정이 있다. 모든 교과는 일본수어로 진행된다. 교사 중 절반 정도가 농인이며, 학교장 역시 농인이다. 메이세이학원은 다츠노코 시절을 거치면서 수어로 가르칠 수 있는 농인 교사와 청인 교사를 양성해 왔다.

메이세이학원은 ‘국어’ 대신 ‘수어’와 ‘일본어’라는 교과를 두고 있다. ‘수어’ 교과는 일반 학교의 ‘국어’ 교과에 해당된다. ‘일본어’ 교과는 농아동에게 제2언어로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과이다. 일본어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제2언어로 일본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수법에 기반하여 일본어를 가르친다. 이 외에도 다문화 사회와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과’라는 독자적인 교과를 신설하고 있다.



〈메이세이학원의 이중언어교육〉¹⁴⁾

일본은 1994년부터 인공와우에 대한 의료 보험을 적용해 왔지만,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아동의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인공와우

14) 메이세이학원(明晴学園) 홈페이지(<http://info.meiseigakuen.info/school/elementary/>)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일부이다(2018년 기준).

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농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사회 내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아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메이세이학원은 일본수화와 농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해 가기 위해 현재도 고군분투 중이다(齊藤 2016 ; クァク, 2017).

◎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일명, '소보사')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안학교이다. 2017년 3월 대안학교로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교 이전에는 농인을 위한 공부방의 형태로 대안적 교육을 실천해 왔다. 소보사에서는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며, 농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보사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다. 소보사는 한국수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하여 상시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에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김혜선, 「교육의 길을 묻다/대안학교 탐방 ③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서울신문〉, 2017. 5. 15.

5. 맺으며

지금까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라는 관점에서 농학교 교육, 통합교육 그리고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농교육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농인의 수어 습득과 농문화 전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학교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농아동은 듣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농학교는 농아동의 수어 습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농아동은 농학교에서 농가족 출신의 농아동을 비롯한 다른 농아동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수어를 습득한다. 특히, 농학교 기숙사는 청인 교사나 부모의 간섭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곳이라는 점에서 농문화 습득의 중요한 장이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으로 농학교는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부정해 온 곳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농학교에서는 청각장애로 인한 음성언어 습득의 곤란과 이에 따른 읽기·쓰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화교육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보청기, 인공와우, 입술읽기 등을 활용하는 구화교육은 청각장애아동이 수용하기 어려운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 형태를 고수하여 청각장애아동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부정하는 교육 환경은 농아동에게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낮은 학업 성취는 농아동의 진학, 직업 선택 그리고 농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농학교 교육의 개혁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실태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수어에 접근할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7년 교육부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현재 청각장애학생 중 약75%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의료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청각장애아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와우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점차 완화되고 있다. 또한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이념은 청각장애아동의 통합교육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의 통합교육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살라망카 선언과 ‘장애인권리조약’에서도 농아동에게 수화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통합교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 중 상당수가 학습·교우 관계 문제, 정체성의 혼란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미국, 노르웨이,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이 통합교육 환경 내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같은 학급 내에 여러 명의 청각장애아동을 배치하거나 청각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청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수어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라고 하면 음성언어를 더 잘 듣도록 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기 쉽다. 청각장애아동과 청인 아동 모두에게 수어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면 청각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농인의 이해의 폭을 확장하여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교육을 받은 청각장애아동이 향후 농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제3절에서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의 배경과 기본 원리 그리고 스웨덴과 일본의 교육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농인의 제1언어인 수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하여, 음성언어의 읽기·쓰기를 제2언어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인하고자 하는 다언어주의와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주장해 온 농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아 정립되었다.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농아동이 수어를 배울 수 있는 수어 환경을 농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1981년에

스웨덴수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래 국가의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스웨덴수어와 스웨덴어(읽기·쓰기)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해 왔다. 한편, 일본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은 1990년대 일본에서 전개된 농문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 일본에 있는 약 80여 개의 농학교 중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는 농학교는 메이세이학원이 유일하다. 스웨덴과 일본의 메이세이학원 모두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정립하기 위해 수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양성,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 세계적으로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공와우 수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사회는 구성원의 재생산과 수어 유지와 전승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스웨덴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과 일본의 메이세이학원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도 고군분투 중이다.

농인은 음성언어와 다른 수어라는 독립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농문화를 형성해 왔다. 농인은 일방적으로 주류 사회의 언어만을 습득할 것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의 농교육이 농아동을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게 하여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농교육은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면서 사회 통합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통계』, 교육부.
- 김병하(2002),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개정판)』,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칠관·윤병천(2014), 『농문화입문』, 정림사.
- 박경란(2016), 「일본 청각장애 통합교육 실천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7(2),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59-81.
- 박승희 역(2003),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한길사. [Groce, N. E.(1988),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Hereditary Deafness on Martha's Vineyard*, Harvard University Press.]
- 박정은 외 역(2012), 『이중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캐나다 미국 일본의 연구와 실천』, 한글파크. [中島和子 編著(2010), 『マルチリンガル教育への招待』, ひつじ書房.]
- 보건복지부(2017), 「인공와우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 9. 16.
- 보건복지부(2018),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8. 13.
- 아베 야스시(2003), 「농인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배·이한나(2015), 「미국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과 시사점」,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6권1호, 1-18,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 金澤貴之(2001), 「聾教育のパラダイム転換」, 金澤貴之 編, 『聾教育の脱構築』, 明石書店, 11-41.
- 木村晴実(2000), 「ろうの民族誌」, 現代思想編集部編, 『ろう文化』, 東京: 青土社, 200-211.
- 木村晴実(2001), 「ろう学校のリアリティ」, 金澤貴之 編, 『聾教育の脱構築』, 明石書店, 279-320.
- 草薙進郎·齋藤友介(2010), 『アメリカ聴覚障害教育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動向』, 東京: 福村出版株式会社.
- 斉藤道雄(2016), 『手話を生きる——少数言語が多数派日本語と出会うところで』, みすず書房.
- クァク・ジョンナン(2017), 『日本手話とろう教育——日本語能力主義をこえて』, 東京: 生活書院.
- 森 壮也(2005), 「日本手話-日本手話話者」, 真田信治·庄司博史編, 『事典 日本の多言語社会』, 岩波書店, 158-161.
- 森 壮也·森 亜美(2016), 『「ろう文化」案内(新版)』, 東京: 明石書店. [Padden, C.·Humphries, T.(1990),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 鳥越隆士·グニラ·クリスターソン(2003), 『バイリンガルろう教育の実践——スウェーデンからの報告』, 全日本ろうあ連盟.

- 鳥越隆士(2009), 「スウェーデンにおけるバイリンガル教育の展開と変成: ろう学校、難聴学校の教師へのインタビューから」, 『兵庫教育大学研究紀要』, 35, 47-57.
- 鳥越隆士(2016), 「手話の活用とインクルーシブ教育の共存をめざして」, 『手話・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 3, 68-110.
- Johnson, R. E.・Liddell, S. K.・Erting, C. J.(1989), *Unlocking the Curriculum: Principles for Achieving Access in Deaf Education*, Gallaudet University.
- Lane, H. L.(1992), *The Mask of Benevolence: Disabling the Deaf Community*, New York: Knopf.
- UNESCO(1994), The Salamanca statement and framework for action on special needs education. World Conference on Special Needs Education: Access and Equality, New York: UNESCO.

제 7 장

농인의 사회 참여

송 미 연

1. 들어가며	127
2. 농인의 사회 참여	129
참고 문헌	151



요 약

민주 시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도 함께 지며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경험치가 다르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 개인이 균등한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 자기 결정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 생애를 통해 환경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시기별 상황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 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으로서 ‘농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의 집단(미시 체계) 내에서 이중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자(중간 체계)로서, 개인의 일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외부 집단(외적 체계)이나 제도, 법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시스템(거시 체계) 등 사회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가정, 교육 기관, 직장(노동 현장), 사회, 그리고 제도, 윤리 등과 같은 거시 체계에서 농인이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은 어떠하며, 그 속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해 나왔는지, 그리고 향후 변화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들어가며

사회 참여란 내가 속한 지역 사회 내에서 한 시민으로 존재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Mank·Buckley 1989, 신은경·곽지영 2008, 신주화 외 2009). 한 사회의 구성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사회

의 모든 장면에서 영향력을 균등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살려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즉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동등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란 정치학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나 유권자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경제학에서는 경제 활동으로 혜택을 얻는 것에, 행정학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에, 사회 심리학에서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중점을 둔다 (Chell 1985). 이처럼 학문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시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책임도 함께 지며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 참여 활동은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을 알림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회 환경에 따른 제약이나 사회적인 차별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인은 자의(自意), 타의(他意)로 사회 참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왔다. 사회 참여를 막는 장벽은 장애인 개인의 삶과 건강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장애인들이 여러 상황에서 열등감을 겪게 하였다. 이는 자아 존중감의 부족이나 낮은 자아상 형성으로 이어져 심리·사회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왔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장애를 외형상의 ‘불능’으로만 인식하며 신체적 장애를 가진 개인의 특수한 문제로 받아들이던 시절에는 더욱 심각했다. 그러나 최근 장애를 한 사람이 가진 특수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다름이 아닌 차이’라는 인식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또한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자신의 인권 측면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표 7] 언어·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

구분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정보통신	지역사회생활
	보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로부터	또래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소득	동료관계	승진		
청각장애	19.7	29.7	24.8	20.6	16.6	14.2	41.4	8.3	18.1	34.0	21.3	27.3	12.8	8.4	10.3
언어장애	34.9	58.1	25.5	42.2	-	19.3	61.1	38.8	18.3	55.0	42.2	30.4	14.2	3.9	7.6

(김성희 외 2018)

따라서 청인 주류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농인이 우리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 의사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직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지, 농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농인의 사회 참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농인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나 관행이 얼마나 수정되었는지, 정책이나 방침 등의 결정 과정에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대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지, 가정 등에서의 활동에 자기 결정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지, 사회에 필요한 국제적 협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농인의 사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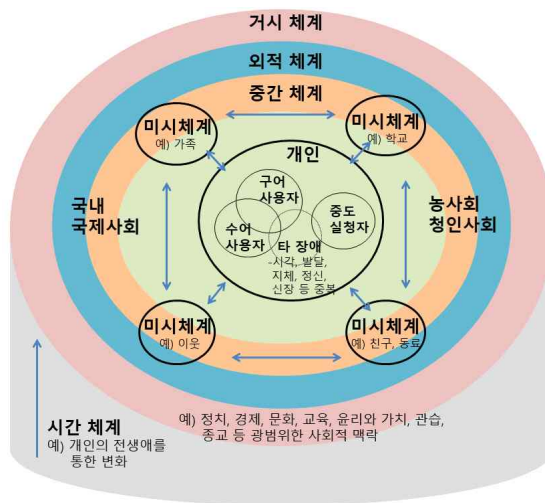
1) 농인 관점의 생태 체계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경험치가 다르며, 그렇게 다르게 자라온 사람들이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따라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전 생애를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시기별 상황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의 발달 과정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 혹은 개인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 브론펜브레너(U. Bronfenbrenner)의 생태 체계 이론에 근거하면 개인으로서 ‘농인’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체계, 중간 체계 및 거시 체계와 같은 사회의 다양한 맥락들 속에서 다양한 상호 작용을 하며 적응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개인으로서 ‘농인’은 단순

히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농인이 태어나 한 인간으로 세상과 상호 작용할 때 그들의 청력 정도, 실청 시기,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주위의 언어 환경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취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인이라기보다 ‘청각장애인’이라는 더 크고 포괄적인 범주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어 사용자인 ‘농인’으로서의 삶을 수용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그림 5]는 한 개인인 ‘농인’이 환경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여기서 개인은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농인’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포괄



[그림 5] 농인 관점에서의 생태 체계도

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농인’으로서의 삶을 수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내부적으로 각기 다른 언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개인으로서 농인은 가족, 동료, 학교, 이웃 등과 같이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다양한 ‘미시 체계’와 상호 작용하게 된다. 또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미시 체계가 상호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관계망인 ‘중간 체계’ 속에 존재하기

도 한다. 농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인이 구화로만 소통하기를 원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는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중간 체계로서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 소속된 직장에서 청인 동료들과 한정된 의사소통만 하던 농인 회사원이 재직 중인 회사 내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직장 내 청인 동료 간 의사소통이 자유롭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속하지 않은 외적 체계를 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농인 부부의 청인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미시 체계와 자녀의 학교, 자녀의 친구라는 외적 체계 사이에 농인 중간 체계로 인식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농사회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개인이 있는가 하면 훈련 기관이나 방송사에 수어통역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제야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거시 체계는 우리와 아주 긴밀한 관계인 듯하다가도 공기처럼 그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흘러버리게 되는 제도나 정치, 경제, 교육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개인으로서 농인의 전 생애를 걸쳐 서로 연결되고 연속성 있는 시간 속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농인은 적응하거나 부적응하는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농인 관점의 생태 체계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성장하는 개인과 변화하는 사회의 여러 체계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에 사회가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나 욕구와 사회 체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농인의 사회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이를 바탕으로 농인의 사회 참여에 제약이 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농인의 사회 참여’라는 광범위한 영역을 농인이라는 한 개인이 가정, 학교, 회사 등의 각 미시 체계 내에 또는 미시 체계들 사이에, 그리고 외적 체계와 거시 체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가정에서의 농인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로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공간으로 양육자의 모부성권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기결정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 중 농인 구성원의 존재는 가족 간의 상호 작용, 가족 자원, 부모, 농아동이나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를 위한 지원 등 가족생활에 관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시스템에 관한 모든 구성 요소를 다루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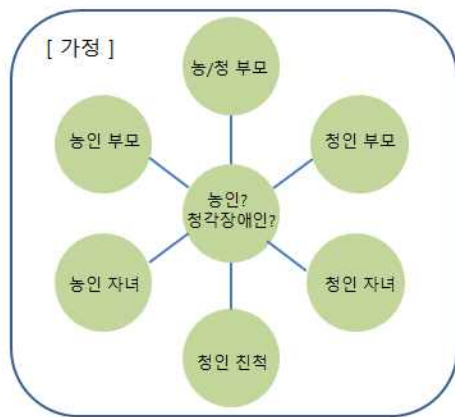


〈영화 「반짝이는 박수소리」의 한 장면〉
청인 자녀가 바라본 농인 부모의 이야기, 코다의 삶

일반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면 양육자와 자녀 간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공간, 즉 양육 환경을 떠올린다. 가정 내에서 양육자와 자녀는 서로 눈 맞춤 등의 비언어적 행위로도 상호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언어적 행위로 상호 작용하게 된다. 언어 행위는 언어 발달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언어 발달은 언어

적, 인지적, 사회적인 상호 작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자녀가 언어 습득을 시작하게 되는 양육 초기 단계에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 제대로 상호 작용하는 것은 이후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hearing children of deaf parents)로 구성된 가정 또는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deaf children of hearing parents)로 구성된 가정이라면 의사소통 양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육자와 자녀 간의 상호 작용에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박병은 2001, 박정란 2000, 서평열 1991, 이미혜 2004, 지재운 2012). 일반적으로 책 읽어 주기, 아이와 대화하기 등 자녀와 교감할 수 있는 정서적 돌봄이나 또래 아이 부모



[그림 6] 가정에서의 농인

들은 농인 가정의 구성 요건이나 ‘농’에 대한 정체성과 ‘수어’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중심으로 가정 체계를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의사소통 수단이 달라 상호 작용이 제한적이지만 가족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끈끈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강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농인 부모가 자녀(Children Of Deaf Adults, CODA)를 양육할 때 외부의 양육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 청인 부모 환경에서 자란 농인이 자녀를 훈육하는 데 필요한 요령을 습득하기가 어렵고 특히 자녀의 청인 교사, 또래 친구 등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농부모와 청인 자녀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을 때 농부모는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가 부족하다고 느껴 염려하게 되고 청인 자녀 역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MBC 다크프라임 나의 모국어, 수어」의 한 장면〉
농인과 청인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의 언어로
선택한 수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박병은 2001). 그러나 청인 자녀가 성장할 때 양육자의 농여부가 가족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Rienzi, B. M. 1990)에서 청인 부모와 농인 부모 두 유형의 가정은 많은 부분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어떤 가정이 더 유의한가를 가리는 연구는 아니었지만 양

육자가 농인 부모인 가정에서 오히려 청인 자녀의 생각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어 가족 적응력 및 응집력 평가 척도에서 농인 부모가 있는 가정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청인 주류 사회에서 가족 중 농인 구성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권위 구조를 유연하게 하여 건강한 가족 기능 수행을 위한 특별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인간의 출생과 함께 첫 상호 작용을 시작하는 가정이 양육자의 양육 태도와 사회적 지지로 자녀의 행동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인을 구성원으로 맞이하는 가정에서는 청력 손실을 병리적 관점인 ‘손상’으로 먼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농인 부모나 농인 자녀가 하나의 개인으로서 사회 참여 과정에서 자기 의사 결정 및 자기 요구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회 체계의 미비로 인해 농인 가정에 강요되어 온 여러 열악한 환경들은 안타깝게도 합리적인 의견 제시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 농인 가정의 운택한 삶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청인 부모의 90% 이상은 자녀가 농인으로 판정된 초기 진단에 당혹을 금치 못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게 된다. 자녀가 농인이기에 필요로 하는 특별한 요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부모가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부모로서 스트레스를 겪는다. 농인 가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대처 방안은 결국 자녀가 이중언어 이중문화 중심의 농인의 삶을 살게 할 것인지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통해 청각-구화 중심의 삶을 살게 할 것인지 중에 하나

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농
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가정에서는
부모도 농인 자녀도 양육 방식에 대
한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
서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 자신이 농인이라는 사실
을 깨닫게 되는 시점에 심한 스트레
스를 받기도 한다. 초기 진단의 충격
에 대처하는 것 외에도 청인 부모에
게는 농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복잡



〈「MBC 다큐프라임 나의 모국어, 수어」의 한 장면〉
농인 자녀를 둔 청인 부모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보조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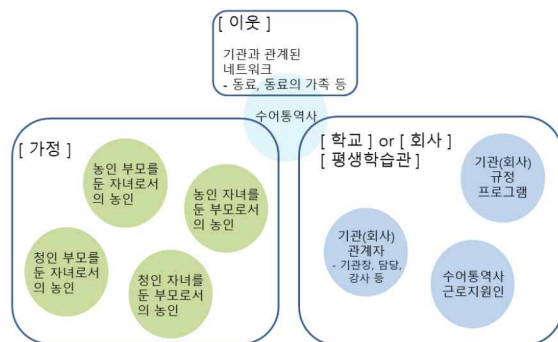
한 지식을 이해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부모는 소리 증폭 장치, 수어, 교육 방
법, 학교 배치 및 법적 문제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녀의 미래
를 위해 적절한 결정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Meadow 1980).

최근 들어 의료 보험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실시해 온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언어 습득기 이전의 유소아에게 시술하는 경
우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인공와우 수술 비용 외에 수술 후 치러야
하는 청능 훈련 및 언어 치료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수술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농인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언어에 대한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갖
기 어렵다. 부모의 고충만큼 농인 자녀가 성장해서 겪어야 할 고충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모-자녀 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살면서 소리 변별이나 소리 인식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
은 사회적 제도의 문제이거나 수어를 여전히 하나의 언어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일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함께 농인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농인 가정에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개인은 모두 다르다. 농인과 청인 부부, 농인 부
부, 청인 부부, 그들에게 속한 조부모와 자녀의 농 여부, 농인 형제자매 혹은
농인과 청인 형제자매 등등 농인 가정도 각기 모두 다르다. 이들을 위한 단일
해법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농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 농인 커뮤
니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농문화 관점에서 자녀 양육의

방식을 연구한 너자리언-수자(Najarian-Souza 2010)의 연구에서는 농인 자녀들에게 평생교육의 기술 및 자기 옹호 방식을 가르치고, 청인 자녀에게는 농인 가정 자녀 캠프에 보내 유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농사회와 청인 사회 모두를 경험하고 적응하도록 교육하였다. 또 농인 부부가 자녀 양육 시기 동안 자녀들의 방과 후 활동과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인은 양육자로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낙인을 방지하는 활동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자신이 선택한 양육 방식이나 개인의 기질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농사회의 일부로서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양육자 본인이 살아온 배경이 어떠한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해외에는 농인 가정을 위한 전문 기관이 만들어져 농 성인이 농인 가족 내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자라온 경험, 교육 및 직업 선택, 직장 및 일상생활의 경험, 특별한 재능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조 장치를 소개하면서 농인 가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적극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특히 농사회를 모르고 지내 왔던 청인 부모에게 자녀가 농인이라는 사실을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 자녀를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영국에서도 농인 가정이 농인 클럽이나 지역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농인 사회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시 체계에 해당하는 한 개인이 또 다른 체계인 가정 영역에서 겪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문제이다. 농인이 가정에서 겪게 되는 양육, 재정 등의 어려움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 영역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문제에 대한 정



[그림 7] 중간 체계를 경험하는 농인 가족 구성원

보와 적절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또한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노출을 꺼려하는 농인이 수어통역사를 동행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부재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농인 가정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

한 전문적이고 균형 있는 상담 지원을 하는 농인 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농인 가족을 위하여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영유아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인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부모, 자녀, 형제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생활 속의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요구들을 파악하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지라도, 농인 스스로, 혹은 농인 가정에서 가정 체계가 굳건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 기관에서의 농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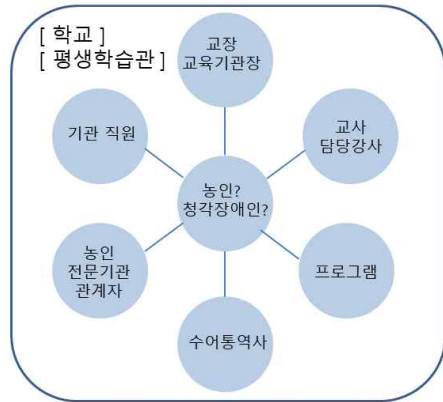
전 생애에 걸쳐 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삶의 질은 교육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학령기 학교 교육 위주의 교육 체제만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따라 적절하게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 교육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 국민의 평생 학습 실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15년 인천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에서는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를 슬로건으로 교육받을 권리, 형평성, 포용, 양질의 교육, 평생 학습 등의 5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하고 관련 내용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제연합(UN)에서도 교육 부문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를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학습 기회의 증진’이라고 밝힌 만큼 오늘날 교육의 의미와 실천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농인의 교육 또한 농인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이며 농인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강창욱 2017). 그런 의미에서 농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양과 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미 6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최근 농학생들은 통합 교육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합 교육의 형태는 농인과 청인 학생 간에 아무런 차이 없이 정규 학급의 교사에 의해 지도하는 완전 통합 형태와 일부 활동이나 일정한 시간만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활동은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통합 형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학생 대부분은 완전 통합 환경에 놓여 있다. 완전 통합 환경에서 학습하는 농학생들은 그들의 장애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기초하여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Friend·Bursuk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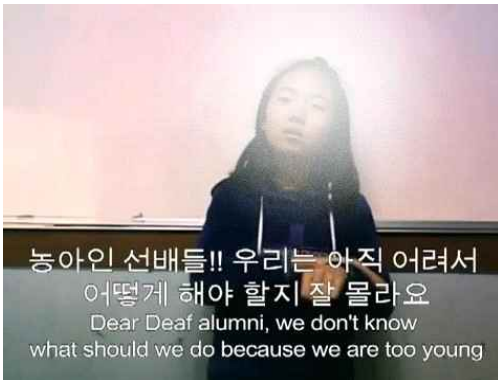
단순히 농인과 청인을 한 장소에서 교육하는 공간적 통합보다는 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 교사의 태도는 교육 환경의 질을 좌우한다. 농학생들의 통합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농학생들의 학습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그 수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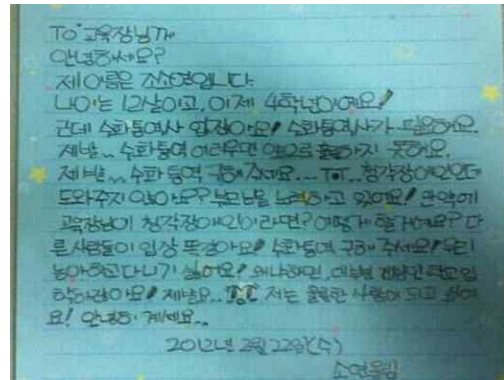
[그림 8] 교육기관에서의 농인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다.

파악하여야 한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있는 교실에서 수업 내용을 수어통역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지, 소통 수단이 서로 다른 농학생과 청인 교사가 청인 학생과 청인 교사가 서로 교류하는 것만큼 교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래 사진은 수년 전 사례로 농학생이 농인 당사자로서 통합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농인의 교육 현실, 특히 농인의 학습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농사회의 선배들이 영향력을 발휘해 줄



〈농아인 선배들께_소연이의 영상 편지〉
(<https://www.youtube.com/watch?v=-KJIH-NwCM8>)



〈수화통역사를 구하지 못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된 소연이가 교육감에게 쓴 편지〉
(에이블뉴스 2012. 3. 8.)

한편 농학교에서 수업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수업에서도 수업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그 상황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유은정과 서중현(2014)은 농학교 교사들이 주로 종합적 의사소통법(Total Communication:

TC)으로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어과 수업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학생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로 미루어 농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학생의 장애 특성 및 언어적 특성에 알맞은 교수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종합적 의사소통법(TC)이 처음 도입 되었을 때에는 이 방식이 농학생에게 맞추어진 의사소통 양식으로 여겨졌으나 농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철학적 접근의 하나일 뿐 실상 농인이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 교사는 수지(手指) 한국어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교사의 수지한국어를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며 학생의 수어를 교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사 스스로도 농학생이 학교 수업 내용을 40~50% 정도 수준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최성철 1998).

정규 교육과정의 농교육은 그동안 ‘구화주의냐, 수화주의냐’라는 의사소통 양식 선택의 문제로 1880년 제1회 밀라노 세계농교육자 대회 이후 100년이 훨씬 넘는 오늘날까지도 대립되어 왔다. 1970년대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로 특수교육 역사가 50여 년 이어져 왔으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농학교의 교사와 학생 간 기본적인 의사소통 문제가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서울시 동작구 특수교육 지원센터나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처럼 지역별 청각장애 지원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두고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터를 통해 청각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외에 농학생에게 수어나 문자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지원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위 소연이의 사례에서처럼 학령기의 농학생 당사자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센터의 지원은 소극적인 수준일 것이라는 유추만 가능하다. 오히려 대학생이 되면 매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공식적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 도우미 지원 사업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각 대학별로 장애학생 지원센터나 장애학생지원 담당자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이 10여 년째 실시되고 있지만 농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농인에 대한 지원이 ‘들리지 않음’을 ‘장애’나 ‘불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각으로 인한 사회적 장벽

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학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 성인기의 농인 교육은 더욱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농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두와 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교육 기회가 ‘듣지 못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는 이데올로기로 인해(곽정란 2017) 농인을 하염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청인이 아니라서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자주적이고 독립적 존재로서 농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강창욱 2017) 등 현재 도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농인 당사자와 농사



[그림 9] 교육 관련 법의 기본 체제

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평생교육이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이라는 광의적 의미와 다소 상반되게 우리 법 체제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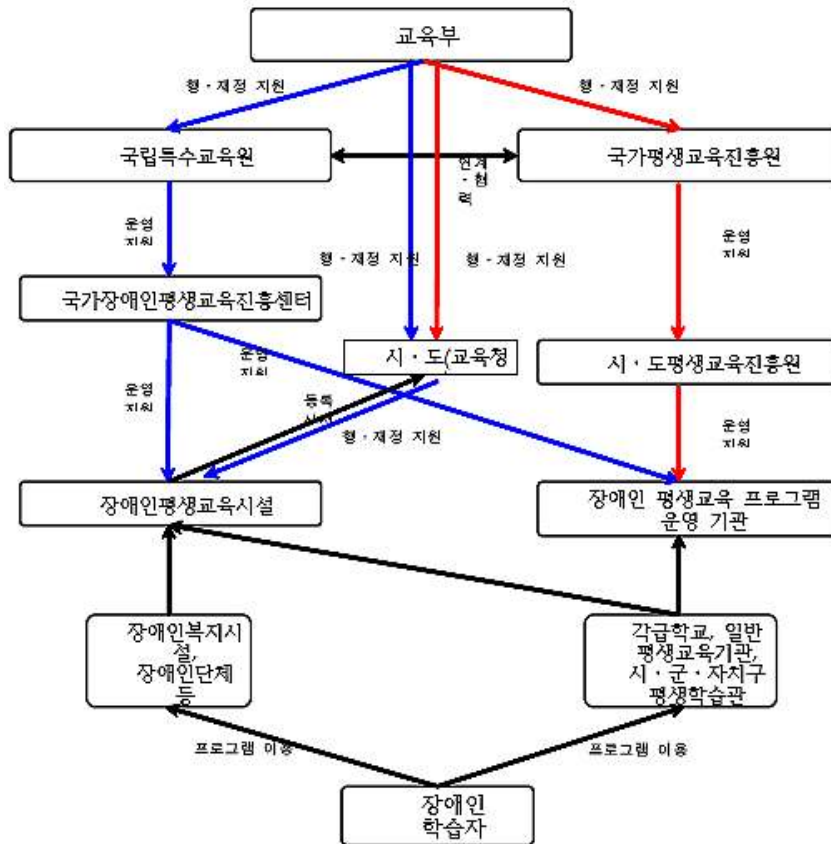
을 마친 이후 계속교육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라 장애인의 계속 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으로 그 내용을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평생교육법」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2018년 5월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부 직속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문을 열어 성인기 농인의 교육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러 장애인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체육·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98.5% 이상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17)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홍보와 프로그램의 내실 강화 및 교육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농인 대상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에 참여해 본 경험이 0.2~0.6%에 머물고 있어 평생교육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성인기 농인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농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농아인복지관, 한국농아인협회의 각 지역 지회들을 비롯한 농인 교육기관이 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농인 교육기관이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다른 체계인 평생교육시설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 협의회에 농인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2016년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 전문가가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소수 문화집단으로서 농인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하여 농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을 가능하게 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강창욱 2017).

그동안 농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인 대상 전문 복지관이나 농아인협회 그리고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전부였다. 성인기 취업 이후 직업 능력 개발 및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인에게는 성인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사이버로 운영되는 교육 기관이 증가하면서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농인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교육 내용과 수업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내용 전달이 불명확하며 점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실제 강창욱·노은진(2011)이 수행한 농인의 평생교육 실태 조사에서 농인의 평생교육 선호도가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욕구를 보여 주었다. 농인들이 이처럼 높은 선호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평생교육을 받은 횟수는 1회에 머무는 등 참여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실태조사(교육부 2014)에서도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지적장애 45.8%, 지체장애 20.5%, 뇌병변장애 8.6%, 시각장애 3.7%, 청각장애 3.3%로 농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김기룡·이경준 2016)

[그림 10]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최근에는 평생교육이 기초 문해나 교양 교육을 넘어서 직장 또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의 습득은 물론 직장 내 재교육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농인에게도 평생교육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신혜정·최은수(2018)은 농인이 평생학습을 청인과 농인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통합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자 성인기 이후의 자기 성찰 및 이중 문화 정체성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장애인의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연구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개소한 만큼 성인기에 주어지는 교육적 혜택의 기회가 전무하다시피 한 농인에게도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농인 역시 농인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는 제도가 잘 안착될 때까지 국가의 공공 평생교육 서비

스 프로그램으로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강창욱 2017).

농인의 사회 참여 활동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농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민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농인이 농사회 내에서만뿐만 아니라 청인 사회에 한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발전, 즉 농사회와 청인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위이다. 또한 청인 사회 내에서 농인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의 체계로서 교육기관에서부터 올바른 철학적 접근을 한다면 다른 체계에서도 연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직장(노동현장)에서의 농인

직업은 수입을 얻어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실현과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직업은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수단이자 자아실현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변용찬 외 2007)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다. 국제연합(UN)장애인권리협약의 선포로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농인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에서 농인이 거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고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농인이 직업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실천적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김성희 외 2018)

[그림 11] 장애 인구 대비 취업자비율의 연도별 추이

1,710천원으로 2014년 당시 1,525원에 비해 12.1% 증가하였다. 전국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8.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취업 장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15세 이상 인구 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 61.3%)이다. 2017년도 장애인 실업률은 5.1%로 2011년도 장애인 실업률 6.2%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국 실업률 3.8%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애인의 임금 수준은 전체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4%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

청각장애인은 [표 8],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용 근로자보다는 임시 근로자이거나 일용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농인이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언어·청각장애인 직종 분포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기·기계 조 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청각 장애	3.1	2.3	6.1	11.1	5.1	22.7	4.1	7.9	37.6
언어 장애	0.0	9.1	0.0	0.0	8.5	5.9	16.6	10.3	49.6

(김성희 외 2018)

[표 9] 언어·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1 (노점제외)	자영자2 (노점)	무급가족종사자
청각 장애	18.7	25.6	18.1	0.9	32.3	0.8	3.6
언어 장애	28.4	10.1	27.8	0.0	25.1	6.4	2.2

(김성희 외 2018)

최근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동 시장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높은 교육 수준과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농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실업 상태에 빠지거나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농인은 이동 등 신체 활동이 자유롭고 가시적으로 장애 정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없기에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취업이 용이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오수경 2018). 그러나 실제 취업자 비율은 15세 이상 청각장애 인구 대비 32.9%로(김성희 외 2018) 전체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취업자 비율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실제로 취업 환경에 편입될 때 의사소통의 제한이 상

대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농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적 환경에서도 열세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에서도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미 취업을 한 청각장애인의 근속 연수는 1년 미만이 30.9%, 3~4년이 9.9%, 4~5년이 15.8%, 5~6년이 9.2%으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창엽 외 2004).

이러한 문제의 저변에는 의사소통 문제로 겪어야 하는 농인 당사자의 내면적 갈등이 존재한다. 즉 농인은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 활동에서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이정랑·최인덕 2016), 이러한 차별 경험은 청각장애인의 자아 존중감과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준상·박애선 2017). 수년 동안 이러한 상황을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생애를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자신이 처한 가정 환경과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령기에 선행 학습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인기에 성공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표 10] 언어·청각장애인의 취업 경로

(단위: %)

구분	공공 직업 알선기관 등록	민간 직업 알선기관 등록	취직시험 응시	신문/잡지 등 통해 오 프라인 용모	인터넷(온라 인) 통한 구 직등록/용모	학교 학원추천	사업제 문의, 방문	부모, 친구, 친지 소개	취업박람회 참가	자영업 준비
청각 장애	13.7	6.7	0.0	11.9	18.9	-	6.7	42.1	-	0.0
언어 장애	0.0	0.0	0.0	0.0	0.0	-	0.0	100.0	-	0.0

(김성희 외 2018)

그러나 [표 10]의 취업 경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농인은 구직단계에서부터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많은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공공 기관을 통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농인은 부모나 친지,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직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농인 17명의 제보에 따라 한 장애인단체가 확인한 결과, 공단 본사와 전국 18개 지사에 수어통역사가 상시로 배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8개 지사에서는 오로지 필담을 통해서, 10개 지사는 한시적인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일주일에 1~2일 수어를 할 수 있는 자원 활동가가 고용공단을 방문하여 수어통역을 지원하거나 수어통역센터나 장애인단체의 통역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을 이용한 구직 상담 과정에서 농인은 통역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 등은 2016년 4월에 농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비마이너, 2016. 4. 27.).

이처럼 농인들은 소통의 문제로 고용 현장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농인은 음성-구화 체계가 아니라 시각-신체 채널을 중심으로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농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청인들이 농인의 농문화를 그저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는 한 상호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농인들은 직장 부적응과 높은 이직률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이다. 앞서 가정과 학교에서 농인들이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농인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 체제에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적성과 지능이 정상적인 분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농인은 청인보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Punch·Hyde·Power 2007). 농인에게 만성 실직과 불완전한 고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호건 등(Hogan et al. 2009)은 호주의 20세 이상 농인 중 실직자가 45%라고 밝혔다. 그의 연구에서 농인들은 우울증, 외로움, 소진, 무기력, 불안, 사회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국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는 농인의 교육적, 사회적 및 고용 기대를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Hawthorne·Hogan 2002, Steinberg et al. 1999). 이처럼 사회 참여가 저조한 농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과도 관련된다(Hawthorne·Hogan 2002, Hogan et al. 2001).

정부는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 잘 수용되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5월 29일부터 실시된 사업주 대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 시행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다. 개인적 특성 관점에서 농인 노동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달라지므로 고용주들은 이를 토대로 고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환경 요인에 따라 구직자의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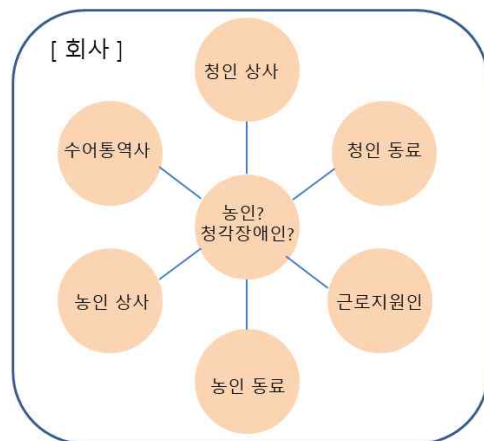
용 여부가 결정된다.

농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인적 자본 이론, 통계적 차별 이론, 직무 경쟁 이론, 수요 독점 이론 등 경제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인적 자본 이론은 인간이 지닌 생산성의 차이로 노동 조건에서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는 노동자 개인이 지닌 인적 자본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농인은 청인에 비해 인적

자본양이 적으므로 생산성이 낮고 저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농인 개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인적 자본양을 늘려 가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이 크고 또 교육과 훈련 대신 취업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해야 하므로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 자체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이론에서는 농인에 대한 안정적인 의사소통 지원 체제가 불안정하여 노동시장 구조상 교육과 훈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인의 소통 한계를 농인 개인의 의사소통의 불리(handicapped)로 인식할 수 있다.

통계적 차별 이론은 개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차별 개념으로 일반화하여 체계화한 이론이다.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불완전한 정보가 농인을 낮은 지위로 내몰게 되는 차별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 개인의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흔히 고용주들은 농인이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상호 작용이 제한되고 작업 지시가 어려우며 잦은 이직을 경험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로 인해 대체 비용이나 훈련 비용이 많이 드는 직무에는 농인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농인의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머물게 되는 현상도 이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농인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높은 이직율의 궁극적인 이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인적 자본 이론과 통계적 차별 이론은 농인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



[그림 12] 직장(노동현장)에서의 농인

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 반면에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나 환경이 농인의 경제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는 이론이 직무 경쟁 이론과 수요 독점 이론이다. 직무 경쟁 이론은 근로자들이 취업 기회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며, 그때 경영자 입장에서서는 훈련 비용이 적게 드는 근로자를 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이 사회적, 제도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농인은 신체적 활동이 자유로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농인을 선호하는 사업주도 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농인과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수어 사용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질 때도 있다. 또 구화 사용자는 말을 하므로 청각 인식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수어 사용자보다 수어와 구화를 동시 구사하는 농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17년 5월 29일부터 신설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제도에 의해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향후 이 제도를 통해 농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요 독점 이론은 노동 수요자 즉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단 하나뿐이어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수요 독점자인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고용량과 임금을 결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다수 농인이 단순노무직에 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인들은 원하는 지역에서 근로하기 보다는 농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로 근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이동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고용량이 수요 독점력을 가진 기업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한된 업체의 농인 고용에 의지하기보다는 농인의 직무 영역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 및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농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농인은 특별히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 농인 당사자에게 장기근속을 위해 인내하면서 필담 등과 같은 불편한 소통 방식을 참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노동 현장 내의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즉 농인은 ‘소통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다.’거나 ‘나만 참으면 된다.’ 또는 ‘농인 차별이 심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등과 같이 소통 문제를 장애로 보고 참아내

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근로지원인 제도 등의 여러 제도 안에서 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농인이 직종과 임금의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업 재활 서비스와 수어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심진예·전혜연 2003, 이상욱·송미연 2002). 그럼에도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혹은 농인 공동체의 힘을 빌려 꾸준히 제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앞서 살펴본 가정, 교육 현장에서의 농인의 실상을 고려해 볼 때, 농인을 위한 교육적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늘날 농인들도 고등 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순 직종 위주의 산학 연계, 학생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 교육, 교사의 수어 능력과 열의의 부족, 낮은 수준의 학습 내용과 국어 교육의 어려움, 진로 지도의 부재, 수어가 가능한 전문가의 지도 부족 등 우리 사회가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5) 사회에서의 농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농인은 가정, 교육 현장, 노동 현장 외에도 병원, 사법 기관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청인 주류 사회의 여러 미시 체계들과 교류한다. 의료 기관, 사법 기관 등 다양한 미시 체계 속에서 농인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체계 내에서 농인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들려오는 많은 원성들 속에서 ‘농인인 나 자신이 경험한 것이 바로 증거’라고 말하기만 하는 대신 농인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10여 년 간의 법 시행 촉구를 통해 농인 당사자의 인권 의식이 높아졌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도 농인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농인이 사회 체계 내에서 당당한 시민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알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을 교육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도 여러 영역에서 청인 주류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농인들이 있다. 그들처럼 농인 스스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농인은 ‘수어’라는 공통된 언어와 문화적인 농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 집단이면서 가치와 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거대한 청인 주류 사회의 미시 체계이면서 수어를 사용하는 그들만의 언어, 정치 리더십, 신념 체계, 예술, 그들만의 스포츠 행사, 교육 환경 및 지리적 공동체를 보유한 농사회의 미시 체계로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농사회 내에서 이루어진 영향력 있는 다양한 활동이 청인 주류 사회로 표출될 수 있어야 하겠다.

새리슨(Sarason 1974)은 보다 큰 집합체의 일부라는 소속감과 같은 감정을 개인이 공동체에서 느끼게 되는 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공동체에는 개인이 소속된 집합체 내에 지지적 관계의 네트워크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진재문 외 2017).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통합될 때,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이 증진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다(Sarason 1974). 이를 고려하면 특정한 공동체의 성원들이 서로를 심리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느낄수록 개인이 공동체에서 배척되거나 차별받게 될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6) 거시 체계와 농인

우리나라에서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교육, 복지, 직업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장애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한국수화언어법」까지 제정되었는데 누군가가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결과일 것이다.

농인의 시청권을 외면해 온 방송사에서도 1999년에 문화방송(MBC)에서 처음으로 자막방송을 송출하면서 변화가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도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농인이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

여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최근 몇 년간 ‘행복팀’이라는 범죄 조직 문제(농아자 투자 사기 사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농인 스스로가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울인 노력들을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을 만큼 농인 당사자들의 시민으로서 의식 있는 행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형법」 제11조 ‘농아자감정’ 조항의 존치, 개정 또는 삭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거시 체계는 개인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기도 하고, 개인의 삶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농인의 사회 참여와 참여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거시 체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나 개인의 삶과는 무관하더라도 농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인 주류의 사회와 농사회에서 각각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갈홍식(2016), 「장애인 노동 책임지는 고용공단, 청각장애인 구직 상담도 못 하나?」, <비마이너(BeMinor)>, 2016. 4. 27.
- 강창욱(2017), 「청각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제주도농아인복지관 세미나 자료집』, 제주도농아인복지관.
- 곽중철 역(2009), 『의료통역 입문: 문화간 의사소통 어떻게 하나?』,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Angelelli, C. V.(2004), *Medical Interpreting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권순우(2002), 「청각장애학생의 수화습득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김기룡 · 이경준(2016),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장애인평생교육 · 복지연구』 3(1), 1-30.
- 김민경(2004), 「부모-아동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 이연희 · 오욱찬 외(2018),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김은영(2009), 「청각장애 모와 건청자녀(Coda)의 상호작용에 대한 벽화 중심 모자미술치료 사례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 정은주(2012), 「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비교를 통한 가족지원전략」, 『유아특수교육』 12(1), 165-190.
- 김태연(2011),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가정 건청 아동의 의사소통단절 및 발화수정전략 특성」,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문화방송(2018), 「나의 모국어, 수어」, <MBC 다큐프라임>, 2018. 5. 31.
- 박병은(2001), 「학령전 건청자녀를 둔 청각장애부모의 양육 욕구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박선화(2007), 「동화를 사용한 총체적 언어접근이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능력과 이야기 구조화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박정란(2000), 「청각장애인 부모와 자녀양육부담에 관한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 변용찬 · 김성희 · 윤상용 외(2007),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 지표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평열(1991), 「청각장애부모를 둔 국민학생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소민지(2012), 「매일 전쟁을 치르는 농학생들. 학습권 보장 못 받아 항상 ‘어떻게’를 고민해야」, <에이블뉴스>, 2012. 3. 3.

- 소장섭(2008),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되나」, <에이블뉴스>, 2008. 7. 22.
- 신은경 · 광지영(2008), 「지체장애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보장연구』 24(1), 259-281.
- 신주화 · 김성훈 · 김병우(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과정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과학연구』 25(3), 155-185.
- 심진예 · 광정란 · 남용련 · 조임영(2017),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및 현황 비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심진예 · 남용현 · 강필수(2005),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심진예 · 신인철(2017),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사업 평가: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과 고용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오혜정 · 황도순(2008), 「청각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위한 부모지원 가정 중재 프로그램의 내용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8(1), 1-21.
- 유은정 · 서중현(2014), 「교사의 의사소통 방법과 교수방법에 따른 청각장애학생의 개선방안」, 『특수아동교육』 16(2), 127-148.
- 이미선(2015), 「청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7(3), 125-150.
- 이미혜(2015), 「농아인 자녀 둔 부모님, 수화 할 줄 아시나요?」, <에이블뉴스>, 2015. 9. 11.
- 이미혜(2004), 「농아인 가족의 의사소통과 자녀 역할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석사학위 논문.
- 이상옥 · 송미연(2002), 「수화통역 서비스가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2(2), 213-242.
- 이은주(2011), 「청각장애부모 가정 건청자녀의 심성동사 발달 및 의미 구조화: 수화사용부 모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정랑 · 최인덕(2016),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충 남지역 고용가능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2, 87-114.
- 이준상 · 박애선(2017), 「취업한 청각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21(1), 97-119.
- 이혜숙 · 이미혜(2005), 「농아인가족의 의사소통 특성과 자녀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3(1), 57-78.
- 장유리 · 서홍란(2015),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부모의 건청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9, 197-218.
- 정은숙(2016),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영향 요인」,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정혜란(2017), 「드러나지 않아 더 소외되는 청각장애인 참정권」, <함께걸음>, 2017. 6. 12.
- 지재운(2012), 「모-자녀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을 청각장애 모와 건청자녀에게 적용한

- 사례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진재문 · 김수영 · 문경주(2017),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135-166.
- 최성철(1998), 「청각장애 학교 학생의 의사소통 양식 분석」,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한국농아방송(2016), 「수화통역사 상시 미배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농아방송〉, 2016. 5. 4.
- Angelelli, C. V.(2010). A Glimpse into the Socialization of Bilingual Youngsters as Interpreters: The Case of Latino Bilinguals Brokering Communication for their Families and Immediate Communities, *MonTI* 2, 81-96.
- Calderon, R. · Greenberg, M. T.(1999), Stress and Coping in Hearing Mothers of Children With Hearing Loss: Factors Affecting Mother and Child Adjustment,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4(1), 7-18.
- Chell, E.(1985), The Entrepreneurial Personality: A Few Ghosts Laid To Rest?,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3), 43-54.
- Clark, M.(1989), *Language through living for hearing-impaired childre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Friend, M. P. · Bursuk, W. D.(1996). *Includ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 practical guide for classroom teachers*, Boston: Allyn and Bacon.
- Havighurst, R. J.(1953),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Oxford, England: Longmans, Green.
- Hawthorne, G. · Hogan, A.(2002), Measuring disability-specific patient benefit in cochlear implant programs: Developing a short form of the Glasgow Health Status Inventory, the hearing participation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ology* 41(8), 535-544.
- Hogan, A. · Hawthorne, G. · Kethel, L. · Giles, E. · White, K. · Stewart, M. et al.(2001), Health-related quality-of-life outcomes from adult cochlear implantation: A cross-sectional study, *Cochlear Implants International* 2(1), 115-128.
- Hogan, A. · O'Loughlin, K. · Davis, A. · Kendig, H.(2009), Hearing loss and paid employment: Australian population survey fin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ology* 48(3), 117-122.
- Jacobs, P. G. · Brown, P. M. · Paatsch, L. E.(2012), Social and Professional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who are Deaf: Utilizing the Psychosocial Potential Maximization Framework, *The Volta Review* 112(1), 37-62.

- Mank, D. M. · Buckley, J.(1989), Strategies for integrated employment, Kiernan, W. E. · Schlock, R. L.(Eds), *Economics, industry, and disability: A look ahead*, Brooks Publishing, Baltimore.
- Meadow, K. P.(1980), *Deafness and Child Develop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ajarian-Souza, C.(2010), Deaf Mothers: Communication, Activism, and the Family,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0(3).(<http://dsq-sds.org/article/view/1279>)
- Punch, R. · Hyde, M. B. · Power, D. J.(2007), Career and workplace experiences of Australian university graduates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2(4), 504-517.
(<https://doi.org/10.1093/deafed/enm011>)
- Punch, R. · Hyde, M.(2005),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career-making of hard-of-hearing adolescents in regular classes, *Deafness and Education International* 7(3), 122-138.
- Rienzi, B. M.(1990), Influence and adaptability in families with deaf parents and hearing children,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35(5), 402-408.
- Sarason, S. B.(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Jossey-Bass.
- Sonn, C. C. · Bishop, B. J. · Drew, N. M.(1999), Sense of community: issues and considerations from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Community Work & Family* 2(2), 205-218.
- Steinberg, A. G. · Sullivan, V. J. · Montoya, L. A.(1999),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in the work place for deaf individuals during the transition year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30(1), 22-30.
- Stinson, M. S. · Antia, S. D.(1999), Considerations in educating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in inclusive setting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4(3), 164-175.

제 8 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와 농사회 관련 법률

송 미 연

1.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	158
2. 농사회 관련 법률과 제도	165
참고 문헌	172



요 약

농인은 청인과는 다른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면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수어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 농인의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수어통역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참여를 시작하면서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유형과 수어통역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비스 품질 향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또한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과 제도 중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농인의 삶과 관련된 것에 대해 살펴본다.

1.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

1) 농인과 수어통역

수어통역은 청각 정보 중심의 음성언어와 시각 정보 중심의 수어라는 서로 차원이 다른 두 언어의 전달 과정을 의미하며(오수경·송미연 2017), 사고와 의미를 전환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언어 행위로서 수어통역은 문화를 전환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강창욱 2000).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 체계 안에서 농인과 청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수어통역사가 쌍방에 의사를 전달해 주는 일을 수어통역 서비스라고 한다.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수어통역 서비스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요구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수어통역’은 가족, 농학교 교사, 종교 단체의 성직자 또는 친구나 수어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이 주로 하다 보니 수어통역 지원을 하는 그들을 통역사라기보다는 중개자, 도우미 또는 상담사 등의 개념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다가 1999년에서야 비로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수어통역 서비스는 수어 사용자 간의 사적인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생활 전반에서 요구된다. 수어 미사용자와의 대화, 긴급 구호 요청, 관공서나 기업 민원 등과 같은 ‘일상생활 통역’, 쇼핑, 예약, 구직 활동 등을 위한 ‘전화 통역’, 병원 내 진료 절차를 설명하고 진료 내용을 전달하는 ‘의료 통역’, 예배,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의식, 종교 기관에서의 설교와 상담 등에 필요한 ‘종교 통역’, 매체 관련 ‘방송 통역’, 취업알선 과정 및 고용현장에서의 ‘직업 통역’, 정규교육과정 재학 및 청인 자녀의 상담, 평생교육 및 취미 강좌 수강을 위한 ‘교육 통역’, 경찰서나 법원 등에서 피의자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할 때 필요한 ‘법률 통역’, 다수를 위한 문화공연 행사 등을 위한 통역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농인에게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 통역이 필요하다(McDonald · Slow 1981, Rudser · Strong 1986).

이처럼 농인과 청인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의사소통의 간격을 메우는 데 수어통역사의 통번역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 상황은 두 당사자 외에도 두 언어를 중개하는 수어통역사로 구성되어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그러한 통역 현장에서는 두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 외에 ‘언어 중개’에 대한 만족, 불만족 경험도 함께하게 된다. 특히 그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면 농인과 청인 간의 의사소통에 혼란과 좌절감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그래서 농인의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수어통역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

2) 수어통역 서비스 추진 배경과 현황

수어통역 서비스는 1999년에 전국의 수어통역센터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대면 방식의 무상 통역 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통신중계센터 방식을 통해 제공하게 된 비대면 방식의 통역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통신중계센터 방식의 수어통

역 서비스로는 107손말이음센터, 경기도의사소통 원격지원센터 외에 110콜센터,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 보건복지부의 129 콜센터 등의 화상서비스가 있다.

먼저 공식적인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기관인 수어통역센터의 발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1995년에 「삶의 질 세계화」라고 선언한 것을 계기로 1998년부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김성희 외 2010). 그러던 중 국무총리 주재 국민복지위원회 회의(1995)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농인 관련 사업으로는 「수어통역사 제도의 신설」이 결정되어 추진되었다(한국농아인협회 2016). 지난 1997년에 제1회 수어통역사자격시험이 치러졌으며 1998년에는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16개 시·도협회에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되었다. 1998년부터 추진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및 평등 보장이란 목표 아래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2항에 근거한 ‘장애인 복지 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1999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한국수어 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단체가 출범하면서 2015년에는 17개 시·도에 195개소로 늘어났다(한국농아인협회 2016). 수어통역센터 운영체제는 실제 운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지원으로 나뉜다.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가 배출 및 자격관리를 위한 보수교육과 같은 제반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시·도협회에서 운영하는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와 시·군·구의 ‘수어통역센터’는 실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수어통역센터는 1개소당 센터장 1인과 한 명의 청각장애인통역사를 포함한 수어통역사 총 4~5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농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를 시작하면서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수어통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수어통역 서비스는 긴급한 통역이나 일상생활 통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2004년 4월 통신 중계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2005년 11월 국내 최초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107손말이음센터를 시범운영하였다. 이것은 문자나 수어(영상) 메시지를 중계사가 음성(전화)으로 상대

방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인 통신 중계 서비스(Telecommunication



〈수어 방송 장면〉
(KBS 뉴스, 2017. 5. 18.)

Relay Service: TRS) 방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비대면 방식의 수어통역 서비스이다. 107손말이음센터는 2010년부터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확대 운영되었고, 2011년 12월 스마트폰용 무료 앱 통신 중계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서 서비스가 더욱 향

상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경기도농아인협회가 경기도청의 지원을 받아 2007년 4월부터 경기도 지역 농인을 대상으로 경기도농아인협회 산하 의사소통 원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통신중계매체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영상 및 문자 중계, 이동전화 문자 중계, 영상전화기 중계, 팩스 중계 등이 있다.

정부기관의 110콜센터는 농인이 전국 공공기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 14일부터 농인에게 제공된 전국 공공행정기관 화상수어통역 서비스이다. 110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원상담, 사회복지, 보육비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 상담, 주민세, 수도요금 등 세금 공공요금 관련 상담,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피해 등 생계 침해 신고 상담 등 모든 행정민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107손말이음센터 누리집〉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를 통해 수어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수어통역사들이 이를 보고 민원 내용을 관공서 직원에게 전달해 관공서 직원의 답변을 다시 수어로 알려 주는 서비스로 농인 상담을 전담하는 수어 채팅 상담 그룹이 있으며, 웹캠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07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에서도 2008년부터 농인 수어(화상) 및 채팅(웹)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29보건복지부 콜센터는 농인을 위해 2008년 9월부터 영상전화를 이용한 수어 상담을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농인의 취업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어통역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근로지원인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 제도에 의해 농인은 수어통역사나 수어가 가능한 통역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학 내 장애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통역 서비스, 소수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통역 서비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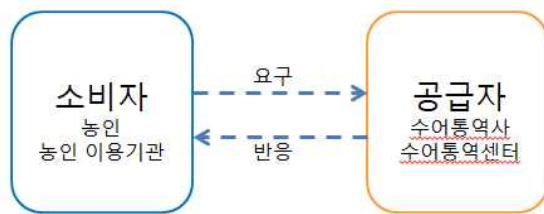
3) 수어통역 서비스의 소비자와 공급자

최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공급 특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박수지 외 2014).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계기로 경상북도에서는 모든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실시를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나(김성훈 외 2016),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인 농인과 수어통역사의 생각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어통역 서비스 전반에 대한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수어통역 서비스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견과 태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 및 개선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책을 도입한 보건복지부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보고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연구(김성희 외 2012)에서도 의사소통 접근성과 관련한 농인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농인 대 수어통역사의 비율이라는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만으로 공급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제시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농인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수어통역 서비스의 수요·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 및 서비스 실태와 발전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소비자인 농인은 통역사의 능력에 따라 세상이



[그림 13] 수어통역 서비스의 소비자와 공급자

바뀌는 신비한 경험으로 수어통역 서비스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또한 농인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세상과 연결하는 연결 고리라고 설명하며 농인이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매개 등으로 인식하면서(박정란 2010)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에 수어통역사가 상주하여 통역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오수경 · 송미연 2017). 수어통역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대면 방식의 통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 있는 통역 서비스의 제공과 그리고 수어통역 서비스의 확대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개인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났다(오수경 · 송미연 2017).

한편 공급자인 수어통역사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람도 느끼지만 농문화와 청인 문화 사이의 문화적 간극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안영희 · 한영우 2015). 특히 수어통역사는 통역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수준에서 갈등을 느낀다.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수어통역사와 농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농인은 현재 받고 있는 수어통역 수준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수어통역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식하면서(김연신 2013)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어통역사의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신뢰, 수어통역 서비스의 이용 방식 및 전달 방법,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등 수어통역 서비스 전반에 관해 농인과 수어통역사의 인식은 수어통역 서비스 지지, 불신, 만족, 개선 추구의 유형으로 나뉜다(오수경 · 송미연 2018). 수어통역 서비스 지지 유형의 특징은 수어통역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나 현재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운영되는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인 농인 중 다수는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회원 단체의 성격을 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시도지회의 부설로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사무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라도 비회원들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거나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그에

반해 수어통역사는 수어통역센터가 농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체계에 대한 수어통역사와 농인 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어통역 서비스 불신 유형의 특징은 수어통역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신으로 자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장에서 늘 회자되고 있는 수어통역사의 자질 문제는 당연히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진다(유지영 2002). 수어통역사 스스로도 통역 역량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통역 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통역사로서의 정체성까지도 위협받게 된다(Sandra Hale 2005). 또한 최근 농 기반 시각장애인이라는 농맹 중복장애인의 요구도 늘어나는 만큼 그들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방안도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불신 및 개선 추구 유형에서는 농인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어통역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행 수어통역 서비스로는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 지역 학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인식이었다. 교육기관에서 강의자와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교육을 위한 통역 의뢰에 지불하게 되는 통역비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농인의 교육 참여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농인이 공적 전달 체계인 수어통역센터로 교육 통역 서비스를 요구하나 부족한 인력 등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사례를 통해 20년간 운영되어 온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어통역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 옹호 측면에서 품질 향상과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물론 다방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수어통역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만족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4) 수어통역 서비스의 향후 과제

농인에게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넘어 농인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인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겪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 참여의 당연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농인에게 안정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는 농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지원 수단이 될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수어통역 서비스는 통역 영역의 다양화,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무상 서비스, 정보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통역 유형 확대 등 외형적으로는 농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다소 해결한 것으로 보이나, 농인들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어통역 서비스는 수어 사용자인 농인과 수어를 모르는 청인 두 이해 당사자, 그리고 두 언어를 중개하는 수어통역사까지 포함된 상황 속에서 역동적인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통역 현장에서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 외에 ‘언어 중개’에 대한 만족이나 갈등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어통역 서비스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견과 태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인의 욕구가 반영된 개별화된 통역 및 이를 위한 농인과 수어통역사 간의 사전 협의, 수어통역사의 통역 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질 좋은 교육과 슈퍼비전(감독) 방식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 질 좋은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인 수어통역사의 최소한의 일 가치 보호 및 수어통역사의 권리 존중 인식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경기도농아인협회(2010)의 조사에 따르면 통신 중계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83.35%로 높은 편이나 사용하는 인원은 1,200여 명으로 경기도 내 등록 농인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준우·남기현 2014). 통신 중계 서비스가 즉시 성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전화 등 매체를 통한 통화에 국한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농사회 관련 법률과 제도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

준이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이러한 것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다. 법이 없다면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가지기 위해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막아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 수어의 언어권 관련 법률과 제도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었다.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 대신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수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정보 이용, 학습 등에 제약이 따른다. 그 결과 교육, 취업 등 각 분야의 사회 활동 영역에서도 소외 현상을 경험해야 했다. 이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농인은 자신의 언어권 신장을 통해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수어통역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제도

수어통역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방송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제22조(정보에의 접근)와 제23조(편의시설)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관련 접근에 관련된 내용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였고, 1999년에 수어통역센터를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추가 신설하면서 한국농아인협회의 전국 16개 시도에 3명의 수어통역사를 배치·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공식적인 수어통역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농인은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수어통역센터로 의뢰하면 무상으로 통역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용과 교육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자 등 보조인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11조와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수어통역과 통신 중계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직접적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은 아니다. 농인이 수어통역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며 그 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고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및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2011.12.26.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53호, 2019. 1. 30.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3호)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장애인방송의 의무편성이 시작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 목표치를 폐쇄자막방송 100%, 수어통역방송 5%로 제시하였다. 수어통역방송보다 자막방송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수어방송의 정의〉

한국수어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사가 의미가 통하는 몸짓, 표정,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의 음성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송 접근 서비스임.

〈한국수어방송 제작 준수 사항〉

- 한국수어방송 통역사의 자격
 - 국가 공인 한국수어통역 자격을 보유하고, 한국수어통역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모국어 능력 수준의 한국수어를 사용할 역량을 갖춘 자
- 언어
 -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춘 한국수어통역사가 구사하는 한국수어의 사용을 기본으로 정함.
- 수어의 정확성 및 일치성
 - 방송의 음성 및 음향 정보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않아야 하며, 위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권장함.
 - 한국수어통역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함.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2018),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3년 일부개정 때부터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에 수어 제공 조항을 명시했으나 강제성이 없어서 농인이 쉽게 수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2012년 5월에 편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개정되면서 다소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취학 지도,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역별 청각장애 지원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두고 청각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년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제공 및 학습력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장이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대학이 자체 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도우미 지원 사업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전문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보고서·시험대필 등) 및 이동·생활지원 등
-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 수어통역 및 속기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와 제20조(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2호, 2018. 12. 31. 일부 개정, 2019. 1. 1. 시행) 등에 따라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 40시간(일 최대 8시간) 범위에서 근로를 지원해 주는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1년간 지원(연장 가능)받을 수 있다. 농인(법령상 청각·언어 장애인)은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어통역 지원,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지원인은 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 또는 수어통역사 자격증은 없지만 수어통역이 가능한 인력으로 지원되고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해 이전에 신청한 후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일상생활 관련 법률과 제도

장애인 관련 지원법은 장애인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두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26일 폐지된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여 신설된 법으로써 2008년 5월 26일 시행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게는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 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은 2014년 5월 20일에 제정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지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이용자의 권익 보호,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및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 복지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2011년 8월 4일에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권(利用券)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 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현금 카드 형태로 지급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농사회에서도 다문화가정이 확대되고 있다.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이 다르며, 그에 따라 취업 여부도 결정된다. 국민 배우자(F-13, F-21)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 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이 허용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와 전화(국번없이 1345)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들과 취업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 보는 것이다. 결혼 이민자가 일자리 알선을 받고자 할 때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일자리 알선기관을 방문하면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 취득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global.seoul.go.kr)에서 주한 외국인을 위한 박람회 및 취업 지원, 채용 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참고 문헌

- 곽정란(2017), 「장애학과 농인」, 『한국 농사회의 이해』, 국립국어원.
- 권중훈(2015), 「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 수화통역센터 직격탄」, <에이블뉴스>, 2015. 9. 24.
- 김성훈 외(2016), 『수화통역센터 및 관련사업 평가지표 개발연구』, 경북행복재단.
- 김성희 외(2010),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외(2012),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경(2010), 「수화통역사의 농문화 인식이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김연신 · 이준우(2013), 「수화통역의 영역과 수화통역사의 역할 수준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7(1), 107-136.
- 김유나(2013), 「돌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일가치감 및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 123-148.
- 박수지 외(2013), 『장애인서비스의 품질과 공급특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정란(2010), 「농인의 수화사용경험과 수화통역 서비스이용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내러티브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93-122.
- 보건복지부(2013),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 안영희 · 한정우(2015), 「수화통역사의 직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수화통역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2), 63-104.
- 오수경 · 송미연(2017), 「수화언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주관적 인식 유형」, 『재활복지』 21(4), 1-31.
- 오수경 · 송미연(2018), 「한국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농인과 수어통역사 간의 인식 유형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9(4), 1-31.
- 유지영(2002), 「수어통역 서비스 이용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윤병천(2016), 「한 · 중 · 일 수화통역사 양성교육과정 비교」, 『2016년 한국외대 통번역 연구소-국방어학원 합동 학술대회 자료집』, 85-90.
- 이대섭 외(2017), 『2017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하종아(2002), 「한국수화통역사의 활동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한국농아인협회(2016), 『한국농아인협회 70년사』, 한국농아인협회.
- 황주희 · 김지혜 · 이선화(2013),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 의무제공 현황 및 활성화방안 모색-사법, 의료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0, 60-87.
- Hale, S. B.(2005), The interpreter's identity crisis, *IATIS Yearbook*, 14-29.
- Leigh, I. W. · Andrews, J. F. · Harris, R. L.(2016), *Deaf culture: exploring deaf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Plural Publishing.
- McDonald, I. M. · Solow, R. M.(1981), Wage Bargaining and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71(5), 896-908.
- Oliver, M.(2004), The social model in action: If I had a hammer, Barnes, C. · Mercer, G.(Eds.), *Implementing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Theory and research*, University of Leeds: The Disability Press, 18-31.
- Strong, M. · Rudser, S. F.(1986),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Sign Language Studies* 53, Gallaudet University Press, 299-314.
- The Government of Finland(2016),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Questionnaire on the Provision of Suppor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of Finland.
- <https://www.nad.org>(National Association of Deaf 누리집)
- <https://www.rid.org>(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누리집)

제9장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법

각 정 란

1. 들어가며	177
2. 언어권의 개념	178
3. 농인의 언어권과 언어 정책	183
4. 농인의 언어권과 한국수화언어법	193
5. 언어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수화언어법의 의의와 과제	202
참고 문헌	206
부록 : 한국수화언어법	208



요 약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의 법률 중 유일하게 언어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은 그동안 경시되어 온 농인의 수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농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농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수화언어법」이 한국수어교원의 양성과 한국수어 능력 검정과 같은 한국수어의 보급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이 장은 언어권의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언어권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기본적 인권과 언어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 언어권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그리고 언어권의 배경이 된 다언어주의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절에서는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수화언어 정책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3절에서는 농인의 언어권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4절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언어권의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언어권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와 수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언어권의 관점에서 볼 때 농인의 언어권에 대한 문제는 농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를 중심으로 언어적 동질성을 강조해 온 한국 사회의 문제이다. 앞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와 수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그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016년 2월 한국 농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한국수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농인은 한국어가 아닌 수화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학교 교육, 경제 활동, 사법 기관과 병원을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의 이용, 미디어 이용 등에서 수많은 불편과 차별을 겪어 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제1조 목적에서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의 법률 중 유일하게 언어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은 그동안 경시되어 온 농인의 수어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농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농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수화언어법」이 한국수어교원의 양성과 한국수어 능력 검정과 같은 한국수어의 보급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농인의 언어권과 「한국수화언어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언어권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기본적인 인권과 언어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 언어권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그리고 언어권의 배경이 된 다언어주의에 대해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라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수화언어 정책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제3절에서는 농인의 언어권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끝으로 제4절에서는 언어권의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언어권의 개념

1) 기본적 인권과 언어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여섯 개의 시선』이라는 영화에 포함되어 있는 박찬욱 감독의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라는 단편 영화는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 찬드라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네팔에서 온 찬드라는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이주노동자이다. 어느 날 찬드라는 공장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 버리게 되고 그 길로 경찰에 인계된다. 그녀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경찰관은 그녀를 정신장애인으로 오해해 정신병원에 보내 버린다. 찬드라는 강제 수용된 정신병원에서 자신은 네팔 사람이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6년 넘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스리랑카인과 네팔인을 만나게 되면서 겨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믿기 어려운 실화는 경찰서, 병원과 같은 공공 기관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일어난 극단적인 인권 침해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사고를 체계화하는 수단이라고도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언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의 사례처럼 생존 자체를 위협받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언어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민족 내지는 집단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말’에 ‘우리 겨레의 얼’이 담겨 있다는 말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집단의 정체성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민족 간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언어권이란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언어를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인식한다(臼井·木村 1999: 8). 언어가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포함되게 된 시초는 1948년 유엔 제5차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臼井·木村 1999: 8). 이 선언에서는 인종이나 성별, 피부색, 정치적 신념 등에 따른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언어에 의한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위의 ‘언어에 의한 차별’이란 개념은 「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차별어’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에 의한 차별’이란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모어(제1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 야기되는 차별과 불평등을 가리켜 ‘언어 차별’이라고 한다(Tove, S. K. 1988: 13).

위에서 소개한 네팔에서 온 한 이주 노동자의 사례는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또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불러 온 언어 차별의 극단적 사례이다. 물론 이러한 가치관은 영어와 같이 힘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찬드라가 겪어야만 했던 인권 침해는 그녀가 단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소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언어권이란 누구나가 자신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권의 대상이 되는 언어는 어디까지나 그 사회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해 온 소수 언어이며, 언어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즉, 언어적 소수자이다(かどや 2012, 木村 2011, クァク 2017).

2) 언어권의 대상과 내용

언어권이 대상으로 하는 소수 언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1) 전통적(지역적) 소수 언어 사용자, (2) 자발적·비자발적 이유로 다른 사회에서 살게 된 이민자, (3) 수화언어 사용자이다(庄司 2005: 11).

(1)의 경우 그 지역에 이전부터 살아 온 선주민이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 온 소수 언어 사용자를 들 수 있다.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소수 민족이나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2)의 예로는 국제 취업과 국제 결혼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이주, 민족 전쟁이나 정치적인 탄압 등으로 인해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난민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 등에 따라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 등이 그 대상이 된다. (3)의 수화언어 사용자는 각 국가와 지역에서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을 말한다. 농인의 수화언어는 청각장애인이 음성언어 대신에 사용하는 의사소통 보조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교육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 수화언어학의 태동과 함께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언어학,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수화언어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농인의 언어권에 대해서는 제2절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 정책에

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언어권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언어권의 내용은 언어적 소수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언어권의 주체,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할 권리이며, 둘째는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할 권리이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소수 언어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자신들의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할 권리를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일본 사회에서 태어난 재일조선인은 세대를 거치면서 일본어를 제1언어로 습득하게 되지만, 재일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조선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는 언어권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언어를 사용하고 학습할 권리를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다른 나라 출신의 아동이나 이주민이 고립되지 않게 주류 사회의 언어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된다(木村 2011: 13).

한편, 일본의 사회언어학자 쇼지 히로시(庄司 2005: 12)는 언어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사적인 영역에서 소수 언어를 사용할 권리
- 둘째, 사법을 포함한 공공영역에서 소수 언어를 사용할 권리
- 셋째, 공공 미디어의 소수 언어 사용
- 넷째, 소수 언어로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 다섯째, 다수파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할 권리

위에 제시된 권리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할 권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며, 다섯째 권리는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할 권리’와 동일하다. 쇼지 히로시는 위의 다섯 가지 언어권 중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그 사회의 상황과 소수 언어 사용자가 놓인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하였다. 공용어나 국가어와 같은 다수파가 사용하는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사회라면 소수 언어 사용자에게 다수파 언어를 학습할 권리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庄司 2005: 12). 예를 들어, 한국은 국가어인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단일 언어 정책을 펼쳐 온 대표적인 나라이다. 한국 사회에

서 오랫동안 살아 온 화교를 대상으로 한 언어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화교학교의 경우 학교를 졸업해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라며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¹⁵⁾.

외국인 이주민 등 국경을 넘는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위의 다섯 가지 언어권의 내용 중 사법 기관과 같은 일부 공공 영역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언어 정책의 대부분은 한국어 교육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하수·조태린(2008)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교 교육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모어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언어권과 다언어주의 그리고 다언어 정책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권은 주류 언어와 소수 언어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과 차별을 하나의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언어의 공존을 인정하는 다언어주의로 귀결된다. 다언어주의란, “사회에서 다언어 상황을 용인하는 이념” 내지는 “다언어 상황을 장려하고, 나아가 다양한 언어의 평등한 사용과 지지를 위해 법과 정책을 통해 보장하려는 이념”을 말한다(庄司 2013: 20). 이와 같은 다언어주의를 공식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언어 시책을 다언어 정책이라고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단일 언어 정책을 고수해 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조태린(2014)에서 지적한 것처럼, 언어 정책의 역사는 근대 국민 국가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민 국가들은 언어를 국가주의와 국민이데올로기를 고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 왔다. 학교 교육을 통해 단일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이나, 언어의 균질성을 강조하는 표기법의 정비와 표준어 정책은 언어가 국민 통합이라는

15) 김기중(2006), 「인권위, 국내 화교학교 학력 인정 교육부에 권고」, 〈CNB뉴스〉, 2006. 9. 13.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9259>) 참조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조태린 2014: 396-400). 그러나 다양한 언어 접촉이 일상화되고 있는 다변화 시대에 언어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종래의 단일 언어 정책은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한국에서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소수 언어의 사용을 용인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언어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재한외국인 처우 개선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울러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정책의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 재외 동포 및 장기 외국 체류 귀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적 차별을 받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과 조선족을 다문화 언어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강현석 외 2013: 80-90). 그러나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 제기된 다문화 사회나 다언어 정책과 관련한 논의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제외되어 왔다. 현재 한국수어는 점자와 함께 특수언어로 분류되어 특수언어 정책의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황용주 2017). 그뿐만 아니라, 소수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에 관심을 가져 온 사회언어학의 논의에서도 수어는 제대로 언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일례로, 한국사회언어학회가 2012년에 발간한 『사회언어학사전』에서 수어는 단독으로 언급되지 못한 채 「비언어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부 기술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3. 농인의 언어권과 언어 정책

아래에서는 언어적 소수자로서 농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수화 언어 정책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인과 언어권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다른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지닌 시각언어이다. 한국 사회에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농인은 수어에 기반한 고유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한국어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

는 한국 사회에서 농민의 언어와 문화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주변화되어 왔다.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민’이라는 말은 단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수이며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을 가리키는 수적인 개념만은 아니다.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민’이란 주류 언어인 한국어와의 관계에서 한국수어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민이 주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래에서는 농민의 언어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평가 절하 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한국어와의 관계 속에서 수어로 배울 권리, 수어를 사용할 권리가 어떻게 주변화되어 왔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수어는 “조사가 없다.”라거나 “문법이 덜 발달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수어로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추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등 언어로서 수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수어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학술 언어로서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생산해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농교육 전문가들이다.

농교육자, 특히 구화주의자들은 “수어를 먼저 배우면 한국어 습득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농학교에서 수어 사용을 금지해 왔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언어학자 이연숙이 지적한 것처럼 과학적인 검증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류 사회의 언어에 동화하는 것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해 온 종래의 언어관과 무관하지 않다(이 2006: 15). 소수 언어보다는 사회적으로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근대적이며, 소수 언어 사용자에게도 유리하다는 인식 아래 수많은 소수 언어는 학교교육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언어인 한국수어는 농민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농민의 사회통합을 막는 ‘문제의 언어’로 취급당했다.

현재 대부분의 농학교에서는 한국어에 기반하여 한국어 어순과 문법에 따라 수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지한국어’가 사용되고 있다. ‘수지한국어’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농학교에서 수어의 사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수어 사용에 반대해 온 구화주의자의 주장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수지한국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농학교에서 수어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수지한국어’는 농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수

어와 같은 언어가 아니다. 농학교에서 ‘수지한국어’가 보편화됨에 따라 농아동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수어보다는 한국어 문법에 맞춘 ‘수지한국어’가 더 올바른 수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다른 문법 체계를 지녔기 때문에 더 열등한 언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국어 문법에 따라 수어 단어를 나열하는 ‘수지한국어’는 농아동의 읽기·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 아래 현재도 농학교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수지한국어’의 도입으로 농인의 수어는 한국어를 보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곽정란 2017: 86). 물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한국어 읽기·쓰기 능력은 교과 교육, 진학, 취업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언어권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농교육 상황을 본다면, 농인이 자신의 언어로 배울 권리가 경시되어 온 반면, 주류 사회 언어의 학습이 일방적으로 강조된 측면이 있다(クァク 2017).

나아가,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한국에서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도화된 것은 1997년 제1회 수어통역사 자격인정 시험이 실시되면서부터이다. 다시 말해 그 이전에는 병원, 경찰서, 법정 재판 등에서도 자원봉사 차원으로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정도였다. 현재 각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와 자격을 갖춘 프리랜서 통역사, 107손말이음센터 등을 중심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 영역에 국한하여 수어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농인의 수어를 사용할 권리가 가장 침해당하고 있는 곳은 공공미디어 부문이다.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일부 뉴스 방송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 주요 지상파 방송국에서는 수어통역 대신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와 관련해 정희원(201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문화 시설 등에 수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면 열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농인들은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할 뿐 글을 읽을 수 있으니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수어의 어휘와 문법 체계가 한국어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수어 단어로 바꿔 놓기만 하면 수어 문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여서 농인들에게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어 사용자에게 영어나 중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어적 소수자인 농민 대부분은 그 능력에 차이는 있지만 수어와 한국어(읽기·쓰기) 둘 다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사용자이다. 청인은 한국어만 사용해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언어적 소수자인 농민은 자신의 제1언어인 수어만 사용해서 살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농민은 한글의 영향권 아래 생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농민에게 한글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 영어나 중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회원(2017)이 지적한 것과 같이 농민에게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언어는 한국수어이며, 한글 자막은 어디까지나 제2언어이다. 즉 농민이 한글을 학습하는 것은 청인이 한글을 학습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문자를 습득하지 못했거나 제한적인 한글 구사 능력을 가진 농민이 있다. 즉, ‘한글 자막이 있는데 굳이 수어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인의 관점이다.

2) 농민의 언어권과 언어 정책

최근 일본의 전일본농아연맹은 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해 유럽 각국 등에 대한 현지 조사에 기초하여 『수화언어법·법제조사연구 보고서 2016-2017』을 발간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보고서에 실린 유럽의 농민의 언어권 보장과 관련한 언어 정책의 동향을 중심으로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배경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역어 및 소수 언어에 대한 언어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유럽 의회는 1981년 ‘지역 언어 문화의 공동체 현장 및 민족적 소수파의 권리 현장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1992년에는 유럽 평의회 주도로 ‘지역 언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현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수 언어의 정의에 수화언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럽 각국의 언어 정책에서 농민의 언어적 권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수화언어가 지역어 및 소수언어와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은 2001년 유럽 의회가 채택한 ‘소수

민족의 권리'에서부터이다. 2003년 유럽의회는 '가맹국의 수화언어 보호'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 권고에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는 “지역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현장의 비영토 언어에 수화언어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권고는 아직까지 실제로 이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유럽 의회에서 수화언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988년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에 대한 유럽 의회 결의'이다. 실질적으로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8년 유럽 의회는 '수화언어에 대한 결의'를 다시 발표하였다. 이 두 결의는 유럽에서 수화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2009년 유럽 의회 최초의 농인 의원인 아담 코사(Adam KOSA) 의원과 농인유럽연합(EUD: European Union of the Deaf)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기관 내 수화언어 및 점자 사용 촉진에 대한 '유럽 장애 전략 2010-2020'이 발표되었다. 이를 계기로 수화언어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0년에는 농인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농인 당사자의 활동에 힘입어 '브뤼셀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EU와 가맹국에게 각국의 수화언어를 인정하고, 수화언어 사용자의 수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수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농인 당사자 단체에 의해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11년 유럽 의회에서 아담 코사 의원의 제안으로 채택된 '장애인의 통합과 이동 및 유럽 장애 전략 2010-2020'(Own initiative Report)에서 브뤼셀 선언에 따른 수화언어의 공적 인정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一般社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2018: 30-33).

(2) 유럽 각국의 수화언어 정책 상황

① 헌법에서 수화언어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

- 핀란드(1995년, 개인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권리 제17절)
- 오스트리아(2005년, 언어에 관하여 제8조)
- 헝가리(2011년, 언어에 관하여 H조)
- 포르투갈(1997년, 교육에 관하여 제74조)

② 일반 언어법에서 수화언어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

- 라트비아(1999년, 공용어법)

- 에스토니아(2007년, 언어법)
- 스웨덴(2009년, 언어법)

③ 수화언어법으로 인정

- 슬로바키아(1995년, 농인의 수화언어에 관한 법률)
- 슬로베니아(2002년, 슬로베니아 수화언어의 사용에 관한 법률)
- 벨기에 왈롱 지역(2003년, 수화언어의 인정에 관한 법률)
-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2006년, 플레미시 수화언어의 인정에 관한 법률)
- 키프로스(2006년, 키프로스 수화언어의 인정에 관한 법률)
- 카탈루냐 자치주(2010년, 카탈루냐 수화언어에 관한 법률)
- 핀란드(2015년, 수화언어법)

④ 그 외 의사소통 수단을 포함한 수화언어에 관한 법률

- 체코공화국(2008년, 농인과 맹농인의 의사소통 시스템에 관한 384/2008년법)
- 스페인(2007년, 27/2007 법률)
- 폴란드(2011년, 수화언어 및 그 외의 의사소통수단에 관한 법률)

⑤ 국가언어위원회의 권한에 기초한 법률 등

- 덴마크(2014년 국가언어위원회의 권한에 따른 법에서 공용어로서 수화언어 인정)
- 리투아니아(1991년, 장애인 사회적 통합법)
- 독일(2002년, 장애인평등법)
- 그리스(2002년, 교육법)
- 프랑스(2005년, 교육법)

(一般社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2018: 37-38)

(3) 구체적인 수화언어법 사례

아래에서 헝가리 수화언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헝가리에서는 2009년 ‘헝가리 수화언어 및 헝가리 수화언어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요 법 조항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헝가리 수화언어의 언어적 지위의 인정, 농인 및 맹농인의 헝가리 수화언어의 사용 및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의 사용 보장, 정부 부담으로 수화언어통역 서비스의 이용 보장(제1조)
- ② 법률의 목적(용어의 정의)(제2조)
- ③ 헝가리 수화언어를 독립된 자연언어로 인정, 헝가리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수화를 사용, 발전, 보존할 권리 보장(제3조)
- ④ 정부의 수화언어 통역 서비스 제공(제4조)
- ⑤ 농인 및 맹농인의 수화언어 등의 학습·사용 기회 보장(제11조)
- ⑥ 수화언어 또는 이중언어로 농아동 교육(제12조·제13조)
- ⑦ 보호자에게 이중언어 교육 및 청각구화법에 관한 정보 제공(제14조)
- ⑧ 수화언어 통역의 제공으로 공공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제15조)
- ⑨ 농인 헝가리 국회의원 및 유럽 의회 의원의 수화언어 통역을 받을 권리(제19조·제20조)
- ⑩ 형사소송 절차에서 수화언어 통역사의 제공(제24조~제26조)
- ⑪ 공공 서비스 및 국영 텔레비전 방송의 헝가리어 자막 또는 수화언어 통역 제공(제30조)

(一般社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2018: 55)

이어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위의 각 조항에 대한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위의 주요 내용의 시행일은 다음 3단계로 구분된다.

- ① 2010년 7월부터
 - 농인 및 맹농인의 수화언어 등의 학습·사용 기회의 보장(제11조)
 - 농인 헝가리 국회의원 및 유럽 의회 의원의 수화언어 통역을 받을 권리(제19조·제20조)
 - 형사소송 절차에서 수화언어 통역사의 제공(제24조~제26조)
 - 공공서비스 및 국영 텔레비전 방송의 헝가리어 자막 및 수화언어 통역의 제공(제30조)
- ② 2011년 1월 1일부터
 - 헝가리 수화언어의 언어적 지위의 인정, 농인 및 맹농인에 의한 헝가리 수화

언어의 사용 및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의 사용 보장, 정부 부담에 의한 수화언어 통역 서비스의 이용 보장(제1조)

- 헝가리 수화언어를 독립된 자연 언어로 인정, 헝가리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수화를 사용, 발전, 보존할 권리 보장(제3조)
- 정부의 수화언어 통역 서비스 제공(제4조)
- 수화언어 통역의 제공으로 공공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제15조)

③ 2017년 7월부터

- 수화언어 또는 이중언어로 농아동 교육(제12조 · 제13조)
- 보호자에게 이중언어 교육 및 청각구화법에 관한 정보 제공(제14조)

(一般社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2018: 56-57)

3) 농인의 언어권과 ‘장애인권리조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 조약이다.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한국은 2008년 12월 12일 정부협약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하였으며, 이듬해인 2009년 1월 10일부터 정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¹⁶⁾ 2018년 8월 현재 ‘장애인권리조약’에 서명한 국가 및 지역은 160개이며, 비준국 · 지역 수는 177개이다. ‘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자 동시에 언어적 소수자인 농인의 언어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¹⁷⁾

‘장애인권리조약’은 한국뿐 아니라, 각국의 수화언어법 제정을 촉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수어 관련 정책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에서는 한국수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

16)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202&PAGE=2&topTitle= (2018. 11. 17. 열람)

17) 농인이 청각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언어적 소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곽정란(2017)을 참조할 것.

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권리조약’에서는 언어에 수어를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조약’ 제2조에서는 언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수화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언어를 포함한다.¹⁸⁾(“Language” includes spoken and signed languages and other forms of non spoken languages.)

언어, 문자, 점자, 촉각을 활용한 의사소통, 확대 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등 다양한 ‘의사소통’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수화언어법 제정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권리조약’은 여러 조항에서 장애인의 언어 및 의사소통에 관한 권리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조약’의 수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9조 접근성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¹⁹⁾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생략)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다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생략)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4조 교육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18) 한국의 ‘장애인권리조약’에서는 “signed languages”를 ‘기호화된 언어’로 번역하였으나 ‘수화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 괄호에 ‘수화언어’를 명시하였다.

19)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과 함께 법률에 등장하는 ‘수화’는 ‘수어’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수화’는 그대로 임.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위의 조항은 농인의 수어를 사용할 권리와 관련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9조 접근성의 보장은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수어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이다. 제21조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수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는 교육 분야의 합리적인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에 대한 규정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점자, 확대문자, 읽기 쉬운 글뿐만 아니라,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과 수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30조 문화생활 영역 등에서 수어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음은 교육과 관련한 조항이다.

제24조 교육

(생략)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생략)

나. 수화 학습 및 청각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습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생략)

‘나’목의 “청각장애인 집단”은 농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문에서는 “deaf community”로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조약’에서는 농인이 완전하고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인에게 수어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농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

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 통합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3호 ‘다’목에서는 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인이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4호에서는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도록 규정하여 농인이 수어를 습득하고, 수어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4. 농인의 언어권과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은 언어적 소수자로서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인 당사자 조직인 한국농아인협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어는 언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어를 언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수어는 언어다”라는 슬로건은 제2절의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학적 연명이 아니라, 수어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겪어야 했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의 등장 이후, 한국농아인협회는 2005년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내세워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한국농아인협회 2016: 76-81).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의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011년 결성) 등은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수화언어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김철환 2016).²⁰⁾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4장 20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1] 「한국수화언어법」의 전체 개요

장 구성	조항	주요 내용
------	----	-------

20) 지금까지 한국의 언어 정책 대부분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수화언어법」은 민간단체와 당사자의 요구가 언어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 구성	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제2조(기본이념)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인정
	제3조(정의)	‘한국수어’,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농문화’, ‘농정체성’, ‘수어통역’,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교육·보급,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수어에 관해서는 「한국수화언어법」을 따르도록 함.
제2장 기본계획 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제8조(보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제9조(실태조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제3장 한국수어 의 발전 및 보급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문화체육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문화체육부장관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신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해야 함.

장 구성	조항	주요 내용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문화체육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
	제16조(수어통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함.
	제17조(한국수어의 날)	한국수어의 날 지정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보칙	제19조(협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법령 제·개정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대통령령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관련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

1) 목적과 기본이념

제 1 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한국어와는 다른 독립된 언어 체계를 가진 언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수어에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농인의 언어권과 삶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제2조에서 한국수화언어는 “한국수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에서 “수화”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한국수어”로 “수화통역사”는 “한국수어 통역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수화’라고 할 것인지, ‘수어’라고 할 것인지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수화’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익숙한 명칭이다. 농인이 수어로 “수화”라는 단어를 말할 때 거기에는 이미 언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화언어”를 줄여 “한국수어”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은 ‘한국수화가 한국어를 손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종래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것은 위의 2장 1)에서 논의한 것처럼 그만큼 수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를 수어로 표기하면, {한국}이라는 수어 단어에, {수화}라는 수어 단어 그리고 {말}이라는 수어 단어를 조합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농인이 실제 {한국}+{수화}+{말}이라는 세 개의 수어 단어를 조합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수화}라는 수어 단어 하나만을 사용하더라도 그 안에는 수어가 한국어와 다른 독립된 언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수어’라는 명칭은 종래의 ‘수화’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 용어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제2조에서는 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농인의 언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국수어와 ‘한국수어에 기반한 농문화’의 계승과 발전, 수어를 사용할 권리, 수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농인의 공용어로서 수어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치, 법률, 행정과 관련한 공적인 업무에서 수어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²¹⁾ 그러나 ‘농인의 공용어’라는 의미는 다르게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운영(2017)에서는 한국수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모든 국민이 아니라 ‘농인’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수 공용어

21) 한국사회언어학회의 『사회언어학 사전』에 따르면 공용어(official language)란 “정치, 법률, 행정과 관련한 업무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공용어 지위를 특정 언어에 부여하는 것으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법적으로 보장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사회언어학회 2016: 26). 한국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제2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일례로 “캐나다에서 영어와 프랑스어가 모두 공용어이기 때문에 공문서나 도로 표지판 등이 의무적으로 2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한국수어는 ‘농인’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이운영 2017: 37). 한국수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아닌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생략)...

제3조(정의)에서는 “한국수어”,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농문화”, “농정체성”, “수어통역”, “공공기관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는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구별되는 독립된 언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제정 과정에서 이 주장은 반영되지 못했다.²²⁾ 수어통역 현장이나, 농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에 기반하여 수어 단어를 나열하거나, 한국어와 수어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수지한국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에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다른 언어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농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제4조(한국수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조약’)이 농인의 언어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2) 「수화언어기본법,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나?」(〈비마이너〉 2013. 10. 2.) 기사 참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5935&thread=04r01>)

2)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 6 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에서는 한국수어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²³⁾ 그동안은 농아인협회나, 농교육 전문가, 장애인복지 전문가가 주로 한국수어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해 왔다. 대학 수준에서 전문적인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 관련 연구를 시작한 것도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기본 계획은 수어의 사회적 지위와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어의 지위와 관련한 계획, 수어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를 통한 수어 자체의 체계와 형태에 관한 내용, 수어의 보급과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한 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⁴⁾

제 7 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생략)...

23) 법 제7조에서는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을 강제하고 있다.

24) 법 제6조 제2항 제10호의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은 '남북한 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법 제7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도 기본 계획에 따른 수어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강제 조항이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운영 2017: 39).

3) 한국수어의 교육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언어를 습득하고, 자신의 언어로 배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소수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법 제11조, 제12조는 한국수어의 교육, 농인 등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그 책임 주체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언어적 소수자로서 농인이 자신들의 언어를 습득하고, 자신들의 언어인 한국수어로 배울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1조 제2항에서 농아동의 수어 습득을 위해 조기에 한국수어 습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보호자의 선택과도 연결되므로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법 제12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고도 난청으로 진단받은 청각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1조, 제12조의 조항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제11조의 제3항과 제4항은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농인의 제1언어인 한국수어를 교수·학습언어로 사용하여, 한국어의 읽기·쓰기를 제2언어로 하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어 연구와 같은 수어의 체계와 형태를 정비하는 일과 함께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선 농학교의 수어 사용 환경을 정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원 양성과정에서는 유·초·중등 교육과정별로 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수어구사 능력을 기르기 위한 장애영역별 교원 양성과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재의 교원 양성과정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이운영 2017: 45-46).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을 제1목표로 해 온 현재의 농교육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농학교 교사 대부분은 청인이며, 청인 교사의 수어 능력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 농인의 제1언어인 한국수어로 가르치는 이중언어·이중문화 농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인 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법 제11조와 제12조는 농인의 언어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수어를 습득하고, 수어로 배울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수어의 전승과 유지, 농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책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4조는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2016년 8월 2일 제정, 같은 해 8월 4일 시행) 제4조에서는 한국수어교육원의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시행령 제5조(한국수어교육원의 자격 심사 등),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제7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15조는 수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한국수어 능력 검정에 대한 것으로 시행령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수어의 보급을 통해 한국수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가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수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 역시 농인의 언어권 보장에 중요하다. 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은 궁극적으로 농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수어 교육은 농아인협회와 산하 지부의 수화통역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해 왔다. 원성옥(2017: 57)은 수어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특히 “수어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이 부재”한 가운데 “한국어와 일대일로 대응한 단어 나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종래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제도의 실시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²⁵⁾

25) 수어 교육 및 보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주도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5) 수어통역

-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법 제16조는 농인의 수어를 사용할 권리에 관한 조문으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공공 행사 참여, 사법·행정 기관 등의 이용, 공공시설 이용, 공영 방송, 직업 활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수어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어통역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것으로 하였다.

수어통역과 관련한 조항은 농인의 수어를 사용할 권리와 직결된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는 언어권의 핵심이다. 수화언어법의 제정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농인이 많으며, 제정 사실을 안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수화언어법 제정이 수화언어법의 목적과는 달리 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겨울 평창에서 치러진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서도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지상파 방송 3사 역시 중계방송 과정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국회인권위원회에 이 건이 진정되기도 하였다.²⁶⁾ 즉 「한국수화언어법」이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농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농인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수어통역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5. 언어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수화언어법」의 의의와 과제

26) 「‘평창올림픽 개회식 현장에도 수화통역 없었다’ 청각장애인들, 인권위에 진정」(〈비마이너〉 2018. 2. 19.) 기사 참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900&thread=04r03>)

이상에서 언어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농인의 언어권과 언어 정책 그리고 「한국수화언어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언어권의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제 결론을 대신하여, 언어권의 관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의의는 무엇보다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제3절 1)에서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농인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자신의 언어로 배울 권리,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에 대한 평가 절하는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농인은 일방적으로 한국어로 동화될 것을 강요당해 왔다. 또한 농인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수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와우 수술은 수어 사용 인구의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현재 농사회는 수어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어를 전승하고 유지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은 농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시행 3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만,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권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와 수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와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16조(수어통역)의 조항이 이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법의 내용은 “하여야 한다.”로 기술되어 강제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은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에 대한 연구, 한국수어교원의 양성, 한국수어 능력의 검정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한국수어의 언어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수어의 문법과 어휘를 정비하고, 수어 사전을 정비하는 등의 수어의 체계와 형태에 관한 언어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수어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수어 홍보와 보급 등의 언어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수화언어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언어권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여야 한다. 인공 와우 수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인 가족을 지원하고 청각장애 발생 초기에 농아동이 한국수어를 습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시도는 찾기 어렵다. 또한 수어로 배울 수 없는 농교육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제16조(수어통역)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인의 수어통역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는 것과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을 농사회의 문제로 국한하여 축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과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은 단일 민족, 단일 언어 사회라는 주장이 하나의 신화처럼 통념화되어 있다. 학교교육에서는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교육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만 교육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은 농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사회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한국수어의 존재와 가치는 경시되고 일방적으로 한국어로 동화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조금만 시야를 확대해 보면, 한국 사회에는 농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한국어로 동화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 여성, 난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바로 그들이다. 즉 농인의 언어권 보장에 대한 논의는 단지 농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농인의 언어권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언어적 동질성을 강조해 온 종래의 단일언어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장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농인의 언어권 또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의 수어로 배울 권리와 수어를 사용할 권

리를 보장하고,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그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현석 외(2013), 『문화 소통 활성화를 위한 언어 정책 연구』, 국립국어원.
- 강혜민(2013), 「수화언어기본법,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나?」, <비마이너>, 2013. 10. 2.
- 곽정란(2017), 「농인 교사가 있는 농학교를 위하여」, 한국장애학회 편저, 『장애이슈, 장애학으로 읽기』, 리드릭, 84-88.
- 김철환(2016), 「한국수화언어법의 발의안과 제정안 비교분석」, 『대구재활연구』 39, 109-136.
- 김하수·조태린(2008),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16권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79-104.
- 원성옥(2017), 「우리나라 수어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새국어생활』 27권2호, 국립국어원, 49-66.
- 이운영(2017),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의 의의와 실제」, 『새국어생활』 27권2호, 국립국어원, 33-48.
- 정희원(2016), 「대한민국 수화언어 정책의 현황과 전망」, 『수화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국립국어원, 141-152.
- 조태린(2014), 「언어 정책 및 계획」, 강현석 외, 『사회언어학: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글로벌콘텐츠, 389-426.
- 한국농아인협회(2016), 『한국농아인협회 70년사』,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사회언어학회(2012),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 황용주(2017), 「특수언어 정책의 현황과 의의」 『새국어생활』 27권2호, 국립국어원, 9-32.
- 이·콘스크(2006), 「手話言語と言語政策」, 全国ろう児をもつ親の会編, 『ろう教育が変わる! —日弁連「意見書」とバイリンガルろう教育への提言』, 東京: 明石書店, 9-39.
- 一般社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2018), 『手話言語法・法制調査研究報告書 2016—2017』, 一般社団法人全日本ろうあ連盟.
- 白井裕之・木村護郎(1999), 「はじめに」, 言語権研究会編, 『ことばへの権利』, 東京: 三元社, 7-19.
- かどや・ひでのり(2012), 「言語圏から計画言語へ」, ましこ・ひでのり編著, 『ことば／権力／差別(新装版)—言語圏からみた情報弱者の解放』, 東京: 107-130.
- 木村護郎クリストフ(2011), 「『共生』への視点としての言語権——多言語的公共圏に向けて」, 植田晃次・山下仁編著, 『「共生」の内実——批判的社会言語学からの問いかけ』, 東京:

三元社, 11-27.

クァク・ジョンナン(2017), 『日本手話とろう教育——日本語能力主義をこえて』, 東京: 生活書院.

庄司博史(2005), 「言語権」, 真田信治・庄司博史編, 『事典・日本の多言語社会』, 東京: 岩波書店, 10-12.

庄司博史(2013), 「多言語社会のとらえかた——いくつかの視点」, 多言語化現象研究 編, 『多言語社会日本——その現状と課題』, 東京: 三元社, 11-28.

Tove, S. K.(1988), Multilingualism and the education of minority children,

Tove, S. K.・Cummins, J.(eds.), *Minority education: from shame to struggl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9-44.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8호, 2016. 2. 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②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이하 “모든 생활영역”이라 한다)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④ 농인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6 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 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인들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전문용어를 한국수어로 표준화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연구소·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① 국가는 한국수어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누구나 한국수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수어의 날)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3978호, 2016. 2. 3.>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8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전단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나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제11조제1항제6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며, 제14조제1항제4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⑨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수화”를 각각 “한국수어”로 한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화”, “수화통역” 또는 “수화통역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수어”, “한국수어통역” 또는 “한국수어 통역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제 1 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 심사를 통과할 것
2. 한국수어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라.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한 후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대학 및 그 부설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3. 한국수어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 5 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교육

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 등)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모든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 9 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0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이하 “한국수어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 가. 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농인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부설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강의실, 사무실 및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전년도
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한국수어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
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
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
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이해

2. 한국수어의 표현

3.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한국
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것

3.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
험의 출제, 시행, 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문 기관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것

3.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
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부 칙 <제27427호, 2016. 8. 2.>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8호 중 “수화방송”을 “한국수어방송”으로 한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자막, 수화통역”을 “자막,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화영상”을 각각 “한국수어 영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호가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다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통역센터”로 한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4호, 2016. 8. 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명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 증명서
 - 나.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 다.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및 영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수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수어와 한국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수요목(敎授要目)(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 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 과정의 소개
2. 교과목 개요
3. 교수요목

부 칙 〈제264호, 2016. 8. 2.〉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장

청능주의의 이해

변 강 석

1. 청능주의의 정의	225
2. 청능주의의 종류	226
3. 그림으로 본 청능주의	229
4. 청능주의의 실제	231
5. 농인과 청능주의	233
6. 청능주의에 대응한 사례	235
7. 청능주의에 대응하는 방안	238
참고 문헌	240



청능주의(오디즘)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의 한 형태로, ‘소리’에서 자유로운 농인에 대한 소리로 부터의 억압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청능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며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가해지는 농인에 대한 억압의 형태와 종류를 살펴보았다. 청능주의는 단순한 형이상학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농인의 현재 삶에 매우 뿌리 깊게 작동되고 있으며, 농인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청능주의가 사회 안에 실재하는 형태에 대해 여러 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청능주의의 억압에 대한 국내외적 농인의 대응 사례를 통해 청능주의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청능주의의 정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력의 우월성’을 믿는 것과 연관된다. 청인이 우월하다고 믿고 농인에게 청인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오디즘(Audism)’이라 한다. ‘오디즘’은 특정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우월하다는 관점으로 농인에게 청인처럼 듣고 말하게 하려는 태도이다. ‘오디즘’은 소리를 듣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그 외의 것을 억압하는 행위로, 한국어로는 ‘청능주의’라 할 수 있다. ‘오디즘’이라는 어휘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농인학자 톰 험프리스(Tom Humphries)이다. 그는 인종 차별주의와 여성주의(페미니즘) 등의 억압과 차별 개념으로부터, ‘자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수어를 자기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에게 가해지는 음성적(Oralism)이며 청력적(Audism)인 억압에 관한 용어를 생성할 필요를 느꼈

다. 그러한 과정에서 1975년 처음으로 오디즘(Audism) 즉 청능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오디즘(Audism, 이하 ‘청능주의’라 함)을 따르는 사람들은 청인의 언어인 구화(oral speech) 능력을 기준으로 농인의 지능과 성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농인의 행복이 청인의 문화적·언어적 유창함을 얻는 것에 달려 있다는 가정하에 농인에게 구화를 강요하기도 하는데, 이는 농인이 다른 농인의 억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청능주의는 농인에게 청인과 동일한 표준, 행동, 그리고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Bauman 2004). 이렇듯 소리에 의존하여 청능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청능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청인뿐만 아니라 농인도 청능주의자가 될 수 있다. 험프리스가 말한 바와 같이, 청능주의는 ‘못 듣는’ 농인보다 ‘들을 수 있는’ 청인이 우월하다고 믿는 신념과 행동을 의미한다.

2. 청능주의의 종류

에커트와 롤리(Eckert · Rowley 2013)는 청능주의를 몇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중에서 개인적 청능주의와 제도적 청능주의 그리고 이념적 청능주의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청능주의(Individual Audism)

개인적 청능주의는 바우먼(Bauman 2004)이 험프리스(Humphries 1977)를 참고하여 ‘개인적 인종 차별주의와 거의 유사’한 것이라며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수어통역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간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도출되는 수어통역에만 집중해 온 탓에 ‘통역사가 통역어로서 한국어 음성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청인 수어통역사들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농인에게 본인의 부족한 ‘통역어로서 한국어 음성언어 구사’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치밀하고 은밀하게, ‘통역 실력’(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

는 실력)이 부족함을 숨기고 수어에만 집중하여 자신의 통역이 뛰어난 것처럼 당당하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농인에게 통역사 본인이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혀 전문가답지 않은 핑곗거리를 찾아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리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발생하는 오류를 마치 농인 개인 능력의 한계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을 개인적 태도에 의한 청능주의라고 하겠다.

2) 제도적 청능주의(Institutional Audism)

레인(Lane 1992)은 웰먼(Wellman 1978)의 제도적 인종 차별주의 개념을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제도적 청능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혔다. 레인(Lane 1992)은 특히 교육 기관(농학교 등)과 의료 산업(발음 교육이나 인공 와우를 무조건 권장하는 이비인후과)에서 발생하는 억압의 구조적 형태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청능주의는 농인 사회의 구조를 조정하고 지배하며 농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각학적 방식이다.

수어를 사용하면 음성언어를 습득할 수 없으므로 농교육에서 수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수 세기 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수어를 억압하고 구화만을 교육 방법으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해 왔다. 교육 상황에서 교육자들이 수어를 못해 교육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즉 교육자들의 수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문제인 양 접근한 것인데 이를 제도적 청능주의라 하였다.

청각에 장애가 있더라도 청각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고 자아를 발전시키며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농인의 문화와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언어와 문화에 의한 성장과 발전은 인간의 본능이며 능력이다.

그러나 농아동이 태어나면 이비인후과에서 일방적으로 청력 회복이나 교정을 위한 치료를 요구하며 농아동이 가진 능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집에서는 청인 부모가 음성언어 자극만을 제공한다. 학교에서도 농인의 언어를 사용해 교육하지 않는다. 사회에서도 농인의 필요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 정책에 일괄적으로 편입하여 정책을 수

립한다. 이것이 모두 제도적 청능주의인데 이것은 농인의 성장 과정에서 지극히 흔하다. ‘수어로는 전문 영역의 지식을 습득할 수 없어 농인은 교육의 전문 분야인 특수 교육을 수행할 수 없으니 농학교에 농인 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농인에게 주어지는 복지적 지원이 보청기 보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제도적 청능주의이다.

3) 이념적 청능주의(Metaphysical Audism)

바우먼(Bauman 2004)은, ‘인간의 정체성은 말(음성언어)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말을 사용하지 않는 농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접근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벌이 춤을 추고, 앵무새가 흉내 내기 말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사소통 체계를 가진 동물들도 존재하지만, 이와는 달리 인간은 고도로 발달된 문법 체계인 ‘언어’를 사용하며, 청인이든 농인이든 모두 고유 언어를 갖고 있기에, 전통적으로 동물과 다른 존재인 ‘인간’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렇게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성을 논할 때는 청능주의가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특성으로서 언어를 설명할 때 혀를 의미하는 라틴어 ‘Lingue’를 수천 년 동안 사용하여 왔는데, 이 정의는 불완전하다(Bauman 2004). 수 세기 동안 말(음성언어)과 언어에 대한 의견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으며, 그러한 잘못된 정의가 서구 전통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언어는 인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인간의 뇌 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언어’를 청각과 구강 구조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인식과 오해는 농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할 뿐이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도 한국 농인들은 한국수어 어휘인 [언어]를, 오른손 주먹의 집게손가락을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미는 움직임을 계속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언어인 수어를 언어로 주장하는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이념적 청능주의 관점에서 보면, ‘입말을 못하는 농인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는 언어가 아닌 단순한 의사소통 체계’라는 잘못된 정의에 여전히 갇혀 있는 형국이다.

바우먼은 이러한 현상이 ‘언어(음성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특징이다.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농인은 인간이 아니며, 농이라는 것은 문제인 것’이라 설명하는 서구의 오랜 전통, 즉 청능주의의 영향에서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Brenda Brueggemann 1999, Bauman 2004). 농인을 문제가 있는 존재로 보면서, ‘청인만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우월적인 이념을 청인 사회가 세대를 거쳐 상속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많은 농인들이 이러한 청능주의에 대항할 때, 청능주의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집단적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노르웨이어의 단어 중 하나인 ‘듣다’는 또 다른 의미로 ‘소속감’을 나타내기도 한다(Hauland 2007, Bahan 2011). 청인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는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생겨난 소속감으로 뭉쳐 있어 농인들이 감히 그들의 힘에 대항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그림으로 본 청능주의

『패밀리 도그(family dog)』는 농인과 청인 가족에 관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품에서 어린 소녀는 마치 반려견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농인 아동의 대다수가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부재를 겪기 때문에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은유는 농인 모두에게 익숙하다. 작품에서 어른들은 입이 흐려진 상태이고 손과 팔은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다. 이 농인 소녀의 존재 양식을 무시하고 수어나 심지어 동작조차 없이 음성언어로만 공공연히 대화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Patricia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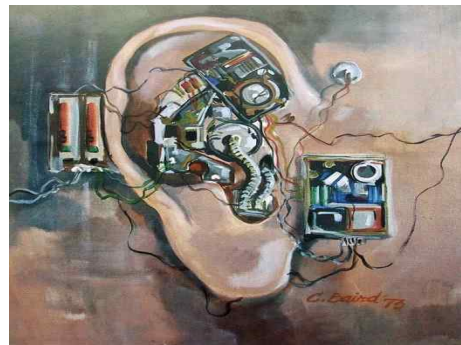
[그림 14] 패밀리 도그(Family Dog)
수전 듀퍼(Susan Dupor, 1991)

『이탈리아 밀라노, 1880』은 1880년 국제학술회의에서 수어의 사용을 억압하며 구화의 사용을 천명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 화가 본인은 구화법이 채택된 1880년 이후인 1950년에 태어났으나 여전히 구화주의가 지속되는 잔인한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기억을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다. 작품에서 미국수어(American Sign Language)를 뜻하는 ‘ASL’이라는 단어에 총을 쏘는 사람들은 수어를 제거하려고 하는 구화주의자들을 의미한다.



[그림 15] 이탈리아 밀라노, 1880
메리 손리(Mary Thornley
1994)

『기계적인 귀』는 보청기와 달팽이관 이식 즉 인공 와우 사용으로 표현되는 농문화 혐오를 묘사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인공 와우 확산을 예고함으로써 일종의 예언적 느낌을 준다. 이 작품은 청인의 우월성을 믿는 청능주의자들의 ‘농인의 청력화 시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상징으로 평가받는다(Patricia 2006). 인공 와우와 우생학에 이르기까지, 농인은 혐오의 대상이며, 농을 없애기 위한 국가적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다. 우생학이 시작된 영국의 경우 2008년에 장애를 갖게 될 배아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농인을 ‘비정상성’으로 규정한 법 조항에 영국의 농인들은 우생학을 멈추라며 시위했다. 결국, 부부는 5대째 농인이 있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바람대로 농인 아들을 낳았다(염운옥 2009).



[그림 16] 기계적인 귀
척 베어드(Chuck Baird 1973)



[그림 17] 농학교 안의 두 소녀 [그림 18] 벨 학교, 1944
 베티 밀러(Betty G. Miller 1971)

『농학교 안의 두 소녀』와 『벨 학교, 1944년』은 화가의 10살 때 경험을 주제로 한 것이다. 1944년 당시 화가가 다니던 농학교는 벨이 주창한 구화주의에 따라 수어와 농문화를 억압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 구화법을 몸소 체험한 기억을 회상하며 그림에 담았다(Patricia 2006).

4. 청능주의의 실제

에커트와 롤리(Eckert · Rowley 2013)는 청능주의 현상을 명백한 청능주의, 은밀한 청능주의, 그리고 혐오적인 청능주의로 나누어 소개하였는데, 이 세 가지 현상을 아래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할 것이다.

1) 명백한 청능주의(Overt Audism)

‘명백한 청능주의(Overt Audism)’는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소수 민족 간의 권력 차가 커서, 절대다수에 속한 이들이 의사 결정의 흐름을 주도하고 결과를 지배하는 인종 차별주의와 유사하다. ‘명백한 청능주의’ 사고를 가진 집단은 차별과 우열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학교, 직장, 의료 관련, 또는 농인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절차에서 정작 농인이 배제되는 일이 바로 ‘명백한 청능주의’에 속한다.

명백한 청능주의는 개인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농인이 청인

과 대화가 되지 않자 통역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신경 쓰지 말라.”라는 식의 답변을 내 놓는 청인에게는 명백한 청능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다. 1880년 이탈리아 밀라노 회의에서 구화주의를 주창한 사건은 제도적으로 드러난 명백한 청능주의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명백한 청능주의는 농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그들의 삶을 노골적으로 억압하였다. 농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상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결혼이 금지되었으며, 투표가 금지되었다(Gallaudet 1864, Gaw 1907). 명백한 청능주의는 농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이념으로, 명백한 청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에 따른 태도와 행위를 숨기거나 위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청능주의를 찾을 수 있다. 농인 통역사 배출을 위한 수어 관련 시험에서 한국수어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한국어를 시험 도구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 은밀한 청능주의(Covert Audism)

‘은밀한 청능주의(Covert Audism)’는 덜 분명하고 숨겨져 있으며 종종 위장을 한다.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명백한 청능주의와 다르기 때문에 은밀한 청능주의를 식별하고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 청능주의적 편견과 차별 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부인하고 숨길 수 있다. 은밀한 청능주의자들은 사회적 제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편견과 차별 행위를 합리화한다. 사회 구조를 탓하며 자신이 농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험프리스(Humphries)는 개인적이며 ‘은밀한 청능주의’의 강력한 사례로, “우리는 더 많은 농인을 고용하고 싶지만, 박사학위를 딴 농인이 없어서 고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청인의 언행을 언급하였다(Humphries 1977: 14). 그리고 정기적이고 중요한 회의에서 농인 직원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메모나 필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일 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 환경이 지속될 경우 농인의 업무 성과나 승진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 운영은 농인을 고용하지 않거나 승진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은밀한 청능주의이다.

3) 혐오적 청능주의(Aversive Audism)

‘혐오적 청능주의(Aversive Audism)’는 편견과 회피 그리고 부정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회피나 부정은 사회적 배제에서 비롯된다. 혐오적 청능주의자는 농인을 회피하려고 하면서 농인의 구조와 스키마, 그리고 관습을 무효화하려고 한다. 혐오적 청능주의자들은 종종 농인들이 청인에게 동화되기를 바라고, 그런 동화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여 줄 것이라 주장한다. 놀랍게도 혐오적 청능주의자들도 다양성과 평등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다양성과 평등주의가 권장하는 그 가치에 맞게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농인을 못미더워한다. 농인을 청인과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개인의 기준과 경험에 근거하여 내심 ‘농인들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에 차별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이것은 청인과 동등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농인을 무력화하고 해체하려는 개인적 시도, 즉 혐오 조장과 연결될 수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가 농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면 수어를 음성언어와 동등한 언어로 보지 않고 열등한 언어라고 규정해 버리고, 수어의 사용과 교육을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인공 와우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이념적 청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농사회 내에서도 “당신은 내 입술을 읽을 수 있나요?” 등의 질문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질문에는 질문하는 사람이 상대가 자신처럼 구화와 독순을 잘하는지 평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평가는 자기와 다른 문화를 가진 대상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데 이용되고 이로 인해 심각하게는 혐오의 단계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편견과 회피 그리고 부정은 꼭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출 수 있기 때문에 혐오적 청능주의자들은 농문화를 마치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5. 농인과 청능주의

2012년에 서울농학교 교장이 모든 농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구화를 하는 모습의 사진이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유되자 일부 농인들이 홈페이지의 그 사진을 보고 분개하는 일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국내 수어통역 관련 학술 세미나에서 특수 교육학자인 한 청인이 ‘한국어로 낸 소리’와 함께 수지한국어를 구사하며 발표를 하여 일부 농인이 분개하였다. 그러나 농인 상당수는 이 사건이 청능주의

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들 속에 드러난 청능주의에 분개하는 농인에게 오히려 “왜 분개하느냐?”라며 비난하는 농인도 있었다. 그 학술 세미나에는 통역사가 배치가 되어 있었지만 발표자가 수지한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수어가 있다!”라며 통역을 하지 않는 등, 통역 지원 시스템에서 수어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심지어 농인 관련 기관 단체장이 페이스북에 학술 세미나 발표에서 특수교육학자가 수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공식적으로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농인 대부분은 그 학자의 ‘수지한국어로 된’ 발표 내용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농인이 구화주의의 억압을 받아 왔다. 농교육 현장에서 구화 혹은 수지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언어적 억압이다. 그리고 많은 수어통역사들이 수지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농인 사회 내에서도 완전한 한국수어가 오히려 억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인의 성장 과정에서 관계자와 부모들이 아이에게 음성언어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거나, 양육자나 교육자 본인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농인의 언어가 아닌 수지한국어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암흑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수어보다는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중심에 놓고 대처하는 방식은 농인에게 사회 문화적 차별과 억압이 된다. 이렇게 명백한 상황을 청인도 농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다수인 청인으로 구성된 청인 사회에서만 아니라 소수인 농인 사회 내에서조차도 너무나 일상화된 일이기 때문이다. 수지한국어 발표에 감사 인사를 올린 그 농인 또한 그 세미나에서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보다는 한국어 음성(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수지한국어를 구사하며 농인보다는 청인의 이해를 먼저 챙겼다. 수지한국어는 한국어(음성, 문자) 문법에 한국수어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농인이 분개하여도 농인의 고통은 늘 작고 사소한 것으로 취급당했으며 외부에서가 아니라 농인 사회 내부의 문제로 인식되어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농인 사회 내에서조차 긴 역사를 가진 이 억압에 직면하고 억압을 인식하는 농인을 제쳐 두고, 청인의 이해를 먼저 챙기는 사대적 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일까? 그렇게 음성언어와 관계되거나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음성언어주의 및 청능주의 권력으로 농인을 억압하는 데 대해 왜 따지지 못하는 것일까? 청능주의의 통제로 언어 선택에서 폭력을 당하는 농인의 삶에 관하여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인 스스로에게도 이런 상황이 내면화되어 억압에 분개하는 농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

르렸다. 청인과 농인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인식하고, 재점검하며, 깨닫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6. 청능주의에 대응한 사례

청능주의에 대응한 사례 몇 가지를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갤러뎃대학교(Gallaudet University)에서 농인 총장을 외친 사례, 한국에서 농인의 권리 보장을 외친 사례, {언어}를 뜻하는 한국수어 단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례 등이 그것이다.

1) 사례 1

1988년 3월 23일 동아일보에는 갤러뎃대학교의 총장 선출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이 대학의 이사회에서 ‘듣지 못하는 농인은 총장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청인을 총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며 청인 총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1988년 당시에도 이미 박사학위를 소지한 농인이 많이 있었으며, 해당 대학에도 농인들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청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청능주의가 가진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역사적으로 크나큰 사건이었다. 이에 많은 농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거부하였고 외국 농인들과 리더들 그리고 통역사들이 집결하여 “지금 당장 농인 총장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로 투쟁하였다. 그 결과 최초로 농인이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농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인 일이 되었다.

2) 사례 2

2005년 6월, 농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농아인협회의 결의 대회가 이틀간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3500~4000명의 농인이 이 결의 대회에 참여하여 권리 투쟁을 하였다. 농인들은 이 결의 대회에서 농인들의 1종 운전면허 제한권 폐지와 수어통역센터 배치 그리고 텔레비전 자막방송 실시 등 농인으로서 인간다

운 삶을 요구하였다. 당시 텔레비전 스무 대와 승용차 한 대를 부수는 장례식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는데, 농인도 납세자이며 텔레비전을 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는 관료적인 사고에 안주하여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그리고 1종 운전면허 제한권 폐지는 농인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회의 편견에 대한 저항이었다. 운전은 청각적 작업의 비율보다 시각적 작업의 비율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청능주의에 기반하여 판단함으로써 농인의 생존과 직업 선택을 막게 되는 제도적 발상이 농인들을 시위에 나서게 했다.

3) 사례 3

2018년 9월 ‘수어민들레’는 페이스북에 수어 동영상 올려, 한국수어의 {언어}라는 단어가 청능주의에 기반한 표현임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수어 단어는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소리를 듣고 소리를 발화하는 행위만이 ‘언어’다.”라는 청능주의 사고를 담고 있다. 그러나 농인들의 언어는 한국수어이며 소리와 발화에 의존하지 않는다. 한편 이 일을 계기로 많은 농인과 수어 사용자들이 기존의 수어 단어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어 단어를 생각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기 시작했다.²⁷⁾ 청능주의를 드러내는 {언어}라는 단어의 사용을 거부하면서 농인의 문화에 맞는 수어 단어 표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이다.



수어 단어 {언어}
(『한국수어사전』, 국립국어원)

4) 기타

27) 수어 사용자가 제안한 영상들을 통해 단어를 선정하거나 결정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다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과정까지만 진행되었다. 수어 단어 표제어는 누군가가 만들어내거나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개념을 어휘화하는 과정은 다양한 변이들이 생산되고, 그중에서 한두 변이가 자연스럽게 선택되어 통용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선정되어 가는 것이다. 제안을 하는 것과 결정하고 공표하는 것에는 다른 접근 방식이 적용된다.

농인은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늘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체험한다. 농인들은 개인적으로 청능주의에 대응하기도 한다. 가령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농인에게 청인이 “너는 청인이 아니니까 안 돼!”라는 청능주의적 발언을 하였다고 하자. 몇십 년 전 같았으면 농인은 그 청인의 말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농사회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인이 청인에게 “나는 농인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리고 청능주의와 언어 차별주의(linguicism)를 기반으로 농인에게 “너는 언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라며 청인의 언어를 가르치거나 훈련을 강요하는 많은 청인과 농교육자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농사회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이제 농인은 “난 한국수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청능주의에 기반한 구화주의가 우리 사회의 기반이며, 거의 모든 정보를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을 사용해 문서에 담고 있다.

또한 학습에는 기록할 문자가 있는 언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믿음 속에서 전문가주의(specialism)적인 판단에 따라 농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너는 수어를 사용할수록 말을 못하고, 읽고 쓰는 건 더욱 못하게 될 거야. 수어의 사용을 멀리할 필요가 있어.” 청인의 음성언어에 기반한 문자를 통해 정보가 주도적으로 전송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힘이 실려 왔던 것이다. 이러한 언어와 인지에 대한 청능주의적 차별은 농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농인에게는 활자(음성언어 기반 문자)만이 아니라 수어로도 정보를 전달하는 책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수어를 통해 정보의 생성 및 전달을 주도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반드시 종이로 된 책이 아니더라도 수어를 사용하여 정보 주도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인의 지적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농인을 전문 영역으로 진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이들에게 점자 도서를 지원하듯이 정부에서 농인에게 수어 디브이디(DVD) 도서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부 농인은 “내가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당신 또한 한국수어를 모르잖아. 난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라고 하기도 한다. 많은 청인은 소수인 농인을 만날 기회가 적으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도 없어서

농인에게 왜곡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인을 부족한 존재로 보고 농인에게 가부장주의(paternalism)적 행위(“내가 널 위해 도와줄게.”와 같은 비평등적 접근)를 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와 제도 그리고 개인의 차원 등 모든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농인의 생각은 다르다. 농인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농인은 청인과 동등한 관계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난 너희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주장이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어로 전달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이다.

7. 청능주의에 대응하는 방안

미국의 ‘오디즘 프리 아메리카(Audism Free America)’ (미국을 청능주의로부터 자유롭게, 이하 에이에프에이(AFA)라 함)는 미국 농인의 권리와 문화적 재기를 옹호하며, 미국 내 청능주의의 이념적 토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인 활동 단체이다. 에이에프에이(AFA)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첫째, 농인의 인권과 언어권, 둘째, 청능주의 및 언론의 허위에 대한 진술,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옹호이다. 에이에프에이(AFA)는 미국 정치계에서 일한 사람들이 농아동의 인권과 언어권을 보호하는 데 비효율적이었으며, 미국 농인의 견해와 경험을 철저히 무시하여 왔고, 청능주의가 미국 주류 사회의 행동과 태도 속에 뿌리내려 농인에게 가부장주의, 편견, 차별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에이에프에이(AFA)는 시민으로서 농인의 권리를 침해한 제도적, 사회적 편견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별의 패턴을 풀어낼 것을 약속하면서 2008년부터 많은 농인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청능주의를 기반으로 한 뿌리 깊은 차별이 농인의 전 생애에 걸쳐 전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앞으로 한국수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원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농인의 삶 속에서 어떤 청능주의가 발동하고 있으며 어떤 억압 아래에서 농인들이 수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해

하는 것이 수어 교원에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농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혹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서는 일차적으로 농인과 청인 모두를 대상으로 청능주의 관련 워크숍과 연수를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본인이 농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청능주의의 차별과 억압 경험을 농인에게 질문하면서 농인에게 배우는 것은 농인과 함께할 교원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다. 청능주의를 알고 청능주의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 현상을 끊임없이 분석적인 눈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즉 미디어와 교과서 등에 농문화, 데프후드(Deafhood), 청능주의, 수어 등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농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인식을 전환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개괄하는 수준에서 청능주의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청능주의가 지속되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농인의 경험을 살피고 역사를 돌이켜 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수어 교원들은 교육 현장에서 수어 학습자들에게서 청능주의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개별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수어 학습자가 농인과 만나 수어로 대화할 때 청능주의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해야 한다.



- 염운옥(2009),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 책세상.
- 허일(2009), 『무능과 결함, 지체가 아닌 유능과 강점, 장점에 근거한 장애인 문화의 이해』, 서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 Bauman, H.(2004), Audism: Exploring the Metaphysics of Oppressio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9, 239-246.
- Durr, P.(2006), De'VIA: Investigating deaf visual art, *Visual Anthropology Review, Society for Visual Anthropology*, Vol. 2, Accessed from.
- Eckert, R. C. · Rowley, A. J.(2013), Audism: A theory and practice of audiocentric privilege, *Humanity & Society* 37(2), 101-130.
- Lane, H. L.(1992), *The Mask of Benevolence: Disabling the Deaf Community*, New York: Knopf.
- Spradley, T. S. · Spradley, J. P.(1985), *Deaf like me*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https://www.rit.edu/ntid/dccs/dada/profiles/mary-thornley/>(Mary Thornley 누리집)

제 11 장

농사회의 문화 수용

김 유 미

1. 문화의 다양성과 범주화 245
2. 농사회에 들어온 소리 문화(청각 문화) 247
3.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시각 문화와 자신의
이야기를 입혀가는 농사회 250
4. 문학으로 농인의 삶을 드러내는 농사회 252
5. 문화 수용이 갖는 의미와 한계 257
6. 보호되어야 할 문화, 한국수어 259
- 참고 문헌 260



요 약

이 장에서는 농인이 향유하고 다루는 모든 문화와 예술 장르를 살펴봄으로써, 문화 수용 및 확장 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농인의 입장에서 문화를 구별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은 자신의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농인이 참여하는 모든 문화와 예술을 농문화라고 오해하는 지금의 현상은 농문화의 범주를 고민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온 속 쓰린 대가일 뿐이다

운동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농인들이 애써 모여든 농공동체, 그 안에서조차 농인은 청인의 시선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수화노래는 이미 농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수화노래는 소리에 의존하는 청인의 문화이다. 수화노래는 한국수어 고유의 운율을 거세하고 고정된 음악의 운율에 수어 단어를 끼어 맞춘다. 이 때문에 생기는 어색함을 농인의 감성과 예술성으로 덧씌워 감춰버린다. 수화노래에는 농인의 서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수화노래는 농인의 예술성을 소모하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한편 수화 창작 뮤지컬은 그 안에 농인의 예술성과 농인의 서사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 그러나 농인이 주도한 창작물이라 해도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음악을 근간(根幹)으로 서사를 끌어가기 때문에 수화 뮤지컬에 ‘농문화’라는 이름을 내줄 수는 없다.

문화 수용의 결과가 농문화의 훼손인지 확장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인가? 문화적으로 결합한 한국수어가 고유의 특질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바로 그 척도가 될 것이다. 농사회의 문화 수용 현상이 농문화의 정수인 한국수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8) 이 단원 중 ‘1. 문화의 다양성과 범주화’는 필자가 한국수어학회 2018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농문화와 한국수어」에서 가져 왔으며, 일부 단어와 문장은 이 책의 방향에 맞게 수정하였다.

1. 문화의 다양성과 범주화

1) 문화의 다양성

문화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갖는다. 문화 보편성이 인간 본성, 즉 인류 모두가 갖고 있는 지향과 욕구를 동인(動因)으로 형성된 사상과 생활 양식이라면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지향과 욕구를 개개 공동체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관철해 낸 결과물이다. 언어생활을 비롯한 공동체 특유의 관습과 생활 양식은 각 공동체의 고유성을 보여 주며 그 특수성은 문화를 범주화하는 근거와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범주화된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름이 붙게 된다.

한국 농사회 또한 농문화 혹은 농인 문화라고 불리는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농사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기 고유의 문화이며, 청인과 자신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記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농사회의 입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과업인 동시에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2) 문화의 범주화

문화를 범주화하고 그 범주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응원보다 비판을 받기 좋은 작업이다. 문화는 모래알처럼 구별과 분리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문화와 문화 간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으며, 그 패턴들은 비슷한 듯 다르며, 다른 듯하나 비슷하기도 하다. 그래서 문화를 논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실체를 온전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 공동체의 문화를 논(論)하는 것은 바다에 금을 긋고 구역을 나누는 것과 같은 행위일 수 있다. 바다가 그려진 지도 위에 자를 대고 구획할 수는 있어도 해류와 물고기의 왕래를 제한할 수는 없듯이 문화와 문화는 같은 지역과 세대 안에 있을수록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융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유미 2018c: 74)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의 문화를 청인의 문화와 구별하려는 시도는 필요하다. 정확히 말하면, 청인 사회가 아니라 농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며 농인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사실 인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청인들은 청인 문화라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다. 자

신을 설명해야 하는 이들은 언제나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수에 의해 지탱되는 문화는 다수를 점하는 문화와 동등하게 공존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러다 보니 소멸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소수 공동체는 자기 정체성과 문화를 증명해야 하는 운명 앞에 놓이곤 한다. 여기에 문화 담론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문화는 유기적이어서 범주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범주화되지 않은 문화는 자신의 이름마저 잃을 수 있다. 결국 멸종 위기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를 분석하듯이, 소수 공동체의 문화 양식을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문화를 범주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김유미 2018c: 74-75)

청인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인지하는 농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문화를 구별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은 자신의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언어·문화적으로 소수자인 농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상대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것을 지켜나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농문화의 출발점은 농 경험, 시각 중심의 삶의 양식과 경험에 있다. 그 경험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구현될 수 있으나 청각과 음성언어를 주요 도구로 사용하는 장르를 농문화의 범주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소리를 들음'에서 출발한 모든 문화를 농인이 다룰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다고 해서, 농인이 주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농문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김유미, 2016)를 한바, 농문화와 농인의 문화예술 창조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인도 청인처럼 자신의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예술 장르와 모든 문화를 창조하고 소비하고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농문화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농인의 문화영토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농문화'라는 그 이름이 존재 이유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김유미 2018c: 75)

한편 농사회가 농문화를 범주화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농인 고유의 문화와 예술 장르는 농사회 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청인의 문화가 반영된 예술 장르들이 점점 더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수화노래와 같은 청인의 문화가 반영된 장르들이 농사회 안에서 농문화인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농인은 모든 문화의 향유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농인이 참여하는 모든 문화와 예술을 농문화라고 오해하는 지금의 현상은 농문화의 범주를 고민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온 것 때문에 치러야 하는 속 쓰린

대가일 뿐이다.

2. 농사회에 들어온 소리 문화(청각 문화)

1) 주류 문화인 소리 문화(청각 문화)

두말할 것 없이 인류의 주류 문화는 소리 문화(청각 문화)이다. 인류는 소리와 음성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를 일구어 왔다. 청인이 절대 다수인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청각 기능을 우선한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인류의 거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막강한 위세의 문자 언어조차 그 근본적인 기능은 음성 언어를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 청각 기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음성 언어를 비롯한 소리의 세계가 인류의 보편 문화인 것이다.

농인의 문화는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청인의 문화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농인의 문화는 청각 기능이 아닌 시각 기능에 우선한 정보 체계를 갖고 있으며, 수적 열세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주류 문화가 될 수 없다. 농인과 청인은 물리적으로 한 사회 안에 있지만 그들의 문화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그리 큰 화두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당연히 소리 문화(청각 문화) 사회이며 농인은 소리 문화(청각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농인의 문화는 확장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농인의 문화는 농인의 자녀들 중 약 십 분의 일에게만 전승 가능하며, 농사회에 유입되는 농인의 수도 세대가 거듭될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 소리 문화(청각 문화)는 어떻게 농사회에 들어왔는가

사회의 다수로 기득권을 가진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회의 구조와 방향, 전체 문화를 이끌어 갈 권력을 갖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주류 문화 그 자체이며 주류 문화의 파급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주류 사회 내에 공존하고 있는 하위문화에 발을 들이거나 하위문화와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그들이 머문 그 자리에는 주류 문화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 있다.

다른 문화를 가진 누군가가 문화가 다른 공동체에 들어간다면, 심지어 그가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주류 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자신과는 다른 문화

를 가진 그 공동체 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그 공동체에 이식하게 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한국의 봉사 단체들이 타국 어느 오지로 가서 일정 기간 머물며 봉사 활동을 하면 그 오지 원주민들은 새롭고 운택한 혜택을 경험하게 되는데, 동시에 절대 가치의 대상이었던 자신들의 고유문화가 상대 가치로 내려앉는 경험 또한 얻게 된다. 하물며 같은 시공간 안에서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두 문화 간에 일어나는 간섭과 영향력은 오죽할까?

농인들은 자기 방문만 열고 나가도 자신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심지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과 마주해야 한다. 대문을 열고 나가 만나게 되는 세상에는 온통 소리 문화(청각 문화)로 가득 차 있다. 또한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애써서 찾아간 농사회의 농인교회 등 종교 커뮤니티에는 청인이 지도자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문화권에 들어와 농인과 함께 했던 청인들은 자신이 주류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숙고할 필요가 그다지 없었다. 지금과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농사회에서는 농인과 청인 어느 쪽도 농인이 문화적 존재임을 인식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으며 장애 영역 중 하나를 가진 존재로 대하였다. 농인을 문화적 존재로 생각하는 길이 있다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온통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농인들이 애써 모여든 농공동체, 그 안에서조차 농인은 청인의 시선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농인에게 호의를 갖고, 더 나아가 사명감을 갖고 시작한 청인의 봉사와 활동, 농인의 존재와 가치를 청인 사회에 환기하기 위해 기획했던 행사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청인의 소리 문화(청각 문화)가 농사회 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때 청인이 놓친 것은 자기 자신이 농인과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농인이 가진 고유한 문화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농인 문화와 다른 문화에 속한 자신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청인들의 활약은 일정 부분 역기능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 한국수어 위세가 약화되고 농인이 구현한 소리 문화(청각 문화)가 농문화로 인식되는 현상으로 인해 농문화의 근간이 흔들리고 농사회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3) 대표적 소리 문화(청각 문화)-수화노래

오늘날 수화노래는 농사회에 만연한 행사 품목이 되었다. 수화노래는 종교 예전(例典)의 주요 순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종교의 힘이였다. 이후 단시간에 청인들의 귀와 눈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수화노래임을 농사회는 알게 되었고, 수화 교실이라는 이름의 수어 교육 현장에서 엄청나게 소비되기 시작했다. 1980~90년대를 풍미한 수화 교실, 수화 동아리 열풍과 맞물려 수화노래는 공연형태로 무수히 확장되고 확산되었으며, 농인교회의 연례 행사와 연합 행사로 수화찬양대회가 뿌리를 내림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화노래 공연자로 활약하는 농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더 강화되고 있다. 수화노래는 이미 농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농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과연 수화노래가 농문화인 것일까?!

예컨대, 수화노래는 한국수어의 주요 문법을 구현할 수 없으며, 오류투성이 수어 단어와 과장된 감정 표현으로 비어 있는 박자를 채우고 있을 뿐이다. 수어 원어민의 짝 찬 수화노래 퍼포먼스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수화노래가 온전한 한국수어로 구현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저 농인의 예술적 재능과 감수성, 그리고 갈채에 대한 갈구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수화노래에 갇혀 있는 셈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수화노래는 청인의 문화 양식을 빌린 퍼포먼스이며 농문화에 편입되기에는 하자(瑕疵)가 너무 많은 혼종이다. 그렇다면 수화노래가 한국수어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김유미 2018c: 76)

수화노래는 청인의 문화에 속한다. 귀에 익은 혹은 귀를 자극하는 음정과 박자에 맞춰 현란하거나 우아하게 손을 움직이며 댄스까지 선보이는, 시각 문화를 버무린 이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청인들은 환호한다. 물론 농인들 중에서도 수화노래를 즐기는 이들이 있다. 잔존 청력이 남아서 평소 음악을 즐기는 이들, 수화노래 공연을 하면서 호응을 받는 짜릿한 경험을 해 본 이들, 아니면 자신이 아끼는 누군가의 무대를 지켜봐 주는 이들이 그들이다. 수화노래를 공연하고 즐기는 이 행위는 주류 사회의 소리 문화(청각 문화)를 즐기고 누리는 행위이다. 농인이 무대에 올랐다고, 농인이 더 잘 표현한다고 해서 농문화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소리 세계에 무관한 농인들이 수화노래 공연을 몇 시간씩 즐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수화노래는 한국수어 고유의 운율을 거세하고 고정된 음악의 운율에 수어 단어를 끼워 맞춘다. 이 때문에 생기는 어색함을 농인의 감성과 예술성으로

뗏 띄워 감춰 버린다. 수화노래는 농문화가 아니므로 소리 세계와 무관한 농인 들은 수화노래에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 농인들에게 시각 경험과 이 에 대한 해석을 고차원적으로 심상화한 수어시 공연을 보게 한다면 이들은 몇 시간이고 관객석을 지키며 수어시의 세계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짜 문화와 가짜 문화의 차이이다.

노래, 예컨대 케이팝(K-Pop)은 청각 경험의 총화인 음성언어, 즉 한국어를 음악으로 표현한다. 수화노래는 이렇게 완성된 곡에 한국수어 요소들을 버무린 다. 결국 수화노래는 청인의 문화를 농인의 문화로 포장한 것이다.

한편 수어시는 온전히 시각 경험에서 출발하며 시각 경험의 총화인 수어를 통해 농인만 의 감성을 표현한다. 농문화는 오롯이 시각 경험에서 출발한다. 청각 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음악이라는 장르에 시각 경험의 총화인 한국수어를 접목할 때 한국수어 고유의 문법, 그리 고 (음성언어의 운율에 해당하는) 고유 리듬은 파괴된다. 그리고 한국수어의 어휘도 한국어 로 만들어진 가사에 종속되어 왜곡되거나 제한을 당하고 소모된다.

수화노래는 수지한국어와 페이스(얼굴 표정)의 조합이다. 이것을 얼마나 잘 포장하느냐 는 역설적이게도 공연자의 한국수어 능력과 예술적 재능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화노래는 농인들이 잘할 수 있는 장르이긴 하나, 농문화의 범주에 수용 될 장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화노래가 농문화의 범주에 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농사회 안에서 수화노래를 수용해 나가는 현상은 별개의 것이기도 하다. 원인제공자가 누구든 간에 이미 수화노래는 농사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어 떻게 다뤄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농사회의 몫이 되어 버렸다.

(김유미 2018c: 76-77)

3.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시각 문화와 자신의 이야기를 입혀 가는 농사회

수화노래는 음정, 박자, 가사, 공연 시간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장르이다. 이미 틀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아무리 가사를 수어답게 해석하고 농인 특유의 퍼포먼스를 더한다고 해도 수화노래가 농문화로 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긴 호흡을 갖고 있고 대본 창작이 가능한 수화 뮤지컬의 경우, 창작과 연출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농문화의 색채를 많이 가미할 수 있는 장르이므로 수화노래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농인이 주도한 창작물이라 해도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음악을

근간(根幹)으로 서사를 끌어가기 때문에 수화 뮤지컬에 ‘농문화’라는 이름을 내줄 수는 없다. 수화 창작 뮤지컬이 농인들의 호응을 받는 이유는 농문화로서 음악을 연출하고 시각적 퍼포먼스를 보여 주어서가 아니다. 호응의 이유는 오히려 농인의 삶과 애환과 세계관을 다룬 그 서사에 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수화 창작 뮤지컬 중 일부는 농인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시나리오에 담고 청인의 문화 양식으로 풀어내어 일부 농인들의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음악이 갖는 힘이 아니라 농인의 내려티브가 갖는 힘이다. 따라서 수화 창작 뮤지컬을 농문화의 장르로 볼 것인지는 농사회의 선택을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음악을 기반으로 한 예술 장르를 농문화라 명명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농사회가 수화노래와 수화 뮤지컬에 너그러운 이유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농사회의 주요 커뮤니티인 종교 단체(특히, 농인교회)의 종교 음악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 지금의 수화노래 확산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농사회 내의 종교 단체들은 자신들의 양적·질적 에너지를 수화노래에 할애하는 반면 수어 연극이나 수어시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김유미 2018c: 77)

수화 창작 뮤지컬이 갖는 의의는 농인이 청인의 문화에 농인의 서사를 입혀 가며 농문화의 특질을 부여하는 그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화노래에는 농인의 서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수화노래는 농인의 예술성을 소모하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수화 창작 뮤지컬은 그 안에 농인의 예술성과 농인의 서사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소리라는 재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어 소비하거나 스스로 소모되기보다 소리라는 재료를 농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창작과 향유에 주도적인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문화 교류, 혹은 문화 융합이라 이름 붙일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되물을 필요가 있다. 뮤지컬이란 장르는 농사회에서 시작된 장르가 아니다. 청인이 농사회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며, 이 장르에 농문화를 입혀가고 있는 이들은 농인이다. 결국 유입된 청인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용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수화뮤지컬을 농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

수화 뮤지컬과 같은 농인의 문화 수용 현상은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농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원한다면 농사회가 아래 주제에 대하여 숙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농사회 내에서 농문화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전개될 기회가 온다면 농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숙고하였으면 한다.

- 농인이 하는 모든 예술이 농문화일 수 있는가?
- 출발어가 한국어인 작품들이 농문화일 수 있는가?
- 청각 경험에서 출발한 예술 장르가 농문화일 수 있는가?
- 농인 문학²⁹⁾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김유미 2018c: 77)

4. 문학으로 농인의 삶을 드러내는 농사회

앞서 밝힌 바 있듯이, 한국어를 매개로 농문화를 다룬 문자 문학이 농인 문학 범주에 수용되고 있다. 수어시를 비롯한 수어문학은 두말할 필요 없이 농인 문학의 전형적 원형이다(변강석 2018). 한편 문자 문학 또한 농인의 문화와 심상을 작가 자신의 호흡에 맞게 창작한다는 점에서 수어문학과 겹치는 층위가 있다. 그로 인해 농사회는 문자 문학 등을 농인 문학의 범주로 이해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많지는 않지만 문자 문학을 통해 농문화를 표현해 낸 작품들이 있다.

1) 농사회와 연결 고리가 있는 출판물

농사회 안에는 문자 언어인 한글로 된 문학 작품을 통해 농인인 자신을 반추하거나 농인의 삶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이 있다.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작품 수가 현저히 적지만, 농사회가 자신의 이야기를 문학을 통해 드러내는 경험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농사회와 연결 고리가 있는 출판물이라고 해서 이들 모두를 농인 문학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2) 기존 출판물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청인의 시선과 간섭에서 자유로운 결과물

29) 원문에는 ‘농문학’으로 기술되어 있다.

농사회 일원 특히 농인 자신이 자신의 세계를 출판물로 세상에 내놓는 일은 여러모로 뜻깊은 일이다. 출판물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청인에 의해 주도되는 영상 매체(방송이나 다큐, 인터뷰)는 기획자인 청인의 의도에 따라 농사회의 진면목이 묻히거나 왜곡되기 쉽다. 게다가 영상 매체가 갖는 파급력도 농사회에 대한 오류와 오해를 확대 재생산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쉽다. 반면 출판물은 속도는 더딜지라도 자신이 기획하고 제작한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인과 농사회의 존재를 세상에 제대로 드러내고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농사회는 출판물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청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한글은 한국수어 문자가 아니라 한국어 문자이므로 이 경로를 선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출판물은 청인의 간섭과 그로 인한 왜곡 없이 농인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므로 이 길에 도전하는 농인들이 늘어난다면 농사회에도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이 어려워진 원인은 역시 지금까지 한국수어에 배타적이었던 농교육 기조에 있다. 농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인 한국수어를 일찌감치 배울 기회가 있었던 농인들은 자신 안에 내재된 언어 논리를 통해 제2언어로서 한국어의 읽기, 쓰기를 잘 해낼 수 있는데 한국 농인들에게는 한국수어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농인들이 문자 문학을 자기표현의 도구로 선택하기 어려워졌다. 한국수어에 대한 농인의 언어권이 보장될 때 오히려 작가의 길을 가는 농인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2) 한계: 농정체성과 장애 정체성의 혼재

출판물을 만들어 가는 작업은 청인의 시선과 간섭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런 독립성이 농인의 삶을 왜곡 없이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동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농인 작가도 드물거니와 그들의 작품 안에 일관된 기조가 결여되어 있고 사회로부터 이식받은 장애 정체성과 경험적으로 내재된 농정체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독자들이 농인의 작품을 접하고 도 농인의 진면목에 다가서지 못하고 여전히 장애 영역의 일부로서 농인과 농사회

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생기는 일상의 이야기를 어떤 정체성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독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사뭇 달라진다.

‘농인은 듣지 못해 불편하고 불행하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온 농인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체성을 장애 정체성과 구분하여 언어적 소수자로 명료하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인 농인들, 그리고 작가를 꿈꾸는 농인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떤 기조에서 쓰였는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1인 미디어 시대인 오늘날 유튜브 창작자를 비롯한 1인 창작자들에게도 요구된다. 개인의 소소한 일상이나 의견이 아닌 농인으로서 농사회와 한국수어에 대해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기초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능동적으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농인 작가가 농정체성이란 기조 아래 자신의 작품을 창조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농정체성에 기초하여 창조된 작품들만 농문화와 연결 고리를 갖는다. 농정체성과 연결고리가 없는 추리 소설을 창작한 농인이 있다면 그는 문학 예술 활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농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농사회의 여러 현상을 풀어내었다면 그 장르가 무엇이든 그 작품은 농인 문학과 연결 고리를 갖게 된다. 농사회는 많은 농인 작가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러나 농인 작가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문학이 모두 농문화와 연결 고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농인의 삶과 철학이 반영된 문자 문학만이 농문화와 겹치는 층위를 갖게 된다.

3) 제언

(1) 농정체성이 뚜렷하게 반영된 문학

문자 문학 출판물 하나가 농인 문학 범주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작품에서 농정체성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자신의 특질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인식하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삶에 대한 농문화적 해석이 문학 작품에 녹아들어 있어 이 작품으로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를 환기한다면 그 문자 문학은 농인 문학으로 받아들여진다. 농문화적 해석이란 자신을 언어·문화적 소수자로 인식하는 농정체성에 기초한 해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정보 접근과 관련하여 언어적 소수자로서의 요구와 장애인으로서의 요구는 그 결말

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전달되는 메시지와 메시지의 영향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농인이 수어통역을 요구할 때, 그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다. 듣지 못해서 요구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의 정체성은 장애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자신의 언어가 수어임을 피력하며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의 정체성은 언어·문화 영역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농인이든 청인이든 농사회 구성원들이 창작한 문학 작품 모두가 농인 문학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농인 문학을 지향한다면 농문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담긴 기초가 장애 정체성인지 농정체성인지, 자기 정체성의 핵심에 있는 것이 ‘농인인 나’인지 ‘청각장애인인 나’인지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정체성은 타자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며 그 작업이 있어야 타자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문학 작품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농인 문학은 그 도구가 수어이든 문자이든 농정체성을 갖고 세상을 농문화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을 말하기 때문이다.

(2) [한국수어-한국어 번역] 도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된 문학 작품이 많지 않다. 수어시도 최근에서야 그 가치가 재조명되며 농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수어표기체계(Sign Writing)의 경우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농인의 수어를 시각화하는 수어 문자 기능을 한다. 그러나 수어 문자가 활발하게 응용되는 나라들은 많지 않다. 브라질이나 독일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수어 문자가 활성화된 곳은 많지 않다. 결국 농인의 삶과 심상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문자 문학에 도전할 농인 또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욕구가 있어도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 문자라는 도구를 통해 농인의 삶과 농문화를 출판물로 남길 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한국수어-한국어 번역] 도서 제작에 있다. 국내에서 출판된 적이 있는 기무라 하루미 등의 『농문화의 이해』가 바로 그런 예시가 될 것이다. 『농문화의 이해』는 일본 농인들의 담화가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 일본 농인의 담화 내용을 몇 단계 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출판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의 출판물은 한국 농사회에서도 충분히 기획하고 출판할 수 있다. 농인의 인생을 회고하는 대담 형식의 자서전,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농인에 대한 인터뷰 묶음 등 다양한 주제로 접근이 가능하다. 농인 스스로 문자 문학을 중심으로 한 작품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번역 문학의 형태로 농문화와 농인의 삶을 청인 세계에 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신한 기획과 진지한 접근, 그리고 수준 높은 번역이 빚어낸, 농인·농사회·농문화 관련 번역물들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5. 문화 수용이 갖는 의미와 한계

1) 문화 수용, 농문화의 훼손인가 확장인가

문화는 서로 영향을 받으며 생성과 융합, 그리고 사멸의 길을 가는 유기적 실체이다. 특수한 상황에 있지 않은 한, 많은 문화들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문화는 상호 간에 교환되고 융합되며 역사 속에 살아남아 생명력을 이어간다. 농문화의 경우는 영토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청인의 문화 영토 안에서 자신들의 특질을 지켜가야 하는 디아스포라적인 문화 특성을 갖고 있다. 농인은 종종 농인들만의 세상을 꿈꾸지만 농인 부부의 자녀 중 9할이 청인으로 태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농인들만의 물리적 영토가 세대를 거듭하며 유지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들의 문화는 청인의 간섭이 없는 독자적인 영토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농문화는 새로운 농인 세대의 유입으로 유지 전승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농인들은 청인의 세계에서 농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으며 농사회는 이런 이유로 크든 작든 문화 수용을 선택해 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화 교류와 문화 수용 속에서 농문화의 특질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일이다.

그렇다면, 문화 수용의 결과가 농문화의 훼손인지 확장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인가? 문화적으로 결합한 한국수어가 고유의 특질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바로 그 척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수어는 농문화의 정수이며, 그 어떤 문화 융합이든 한국수어를 훼손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면 그 결과는 농문화의 훼손이 되기 때문이다. 농사회가 수화노래를 수용하는 이 현상이 농문화의 확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자 문학은 한국수어를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화노래는 음악이란 소리 문화(청각 문화)에 한국수어를 가두기 때문에 한국수어의 주요 특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노래는 농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확장이 아니라 농문화의 희생을 강요하는 훼손인 것이다.

2) 문화 수용과 한국수어의 위기

한국 농사회 내에서 농정체성과 농문화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농정체성은 장애 정체성과, 농문화는 장애 극복과 인권이라는 주제와 엮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농정체성과 농문화

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농사회에 퍼져 나가기 전, 이미 소리 문화(청각 문화)는 농사회에 들어와 그 뿌리를 깊이 내렸다. 이와 같은 소리 문화(청각 문화)의 유입은 청인의 가치관을 농사회에 이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 인해 한국수어는 음악의 시녀 역할을 했으며, 시각적 특성에서 자라난 한국수어 지명과 고유명사들은 청인의 가치관에 맞게 변경되었다. 예컨대 오늘날 각 지역의 수어 지명은 ‘노골적이다’, ‘한자 뜻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 밀려, 지명의 한자 의미가 수어 단어로 단순 치환되고 있다. 이렇게 대체된 지명과 고유 명사 상당수는 외향만 수어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안에 반영되어 있던 시각 중심의 농문화 특질은 사실상 거세된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한국수어와 농문화의 훼손이다. 그러나 이러한 훼손이 농인의 가치관에 따른 것인지 청인의 가치관에 따른 것인지 분별하여 훼손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선택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은 농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3) 보전과 확장의 줄타기

농문화의 보전과 확장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일 수 있다. 농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청인 문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농문화는 확장성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개 문화에는 교류와 융합이 가능한 부분과 고유 특질 보존을 위해 방어적인 선택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결국 보전과 확장을 위한 선택은 양자택일이 아닌 줄타기를 필요로 한다.

이제 한국 농사회는 한국수어 고유의 특질을 유지하고 전승해 나가는 이 과업에 주의를 기울이며 농인의 가치관과 문화를 청인 사회에 알리며 청인과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자기 문화의 가치를 모르는 공동체는 문화를 잠식당하고 결국 소멸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이제 농사회는 유형의 유산만이 아니라 무형의 유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6. 보호되어야 할 문화, 한국수어

현실적으로 농사회가 청인의 가치관과 문화를 부득이하게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나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인과 청인은 같은 시공간을 살며 소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수용의 마지노선은 엄연히 존재한다. 바로 한국수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수어의 보존이 담보되는 선 말이다.

이미 한국수어는 청인의 가치관이 개입되면서 연구와 연구물 그리고 현장의 담화 모두가 훼손되고 있다. 게다가 농사회가 청인의 가치관과 농인의 가치관을 구분하지 못한 채 청인의 방식을 답습한다면 한국수어에 대한 착취와 훼손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농사회의 문화 수용 현상이 농문화의 정수인 한국수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한국수어의 특질을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농문화의 성쇠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농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여야 할 것이다.



- 김기혁 · 호정은 역(2012),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 글항아리. [Evans, N.(2010), *Dying Words: Endangered Languages and What They Have to Tell Us*, Wiley-Blackwell.]
- 김병욱 역(2011), 『언어들의 죽음에 맞서라』, 나남. [Claude Hagège(2000), *Halte à la mort des langues*, Odile Jacob.]
- 김유미(2016), 『영혼에 닿은 언어』, 흥성사.
- 김유미(2018a), 「농인의 강점과 농문화에 맞는 일상」, 『농인의 생활과 문화』(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유미(2018b), 「청인사회와 농인」, 『농인의 생활과 문화』(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유미(2018c), 「농문화와 한국수어」, 『제20회 한국수어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수어학회, 71-86.
- 김칠관 · 윤병천(2014), 『농문화입문』, 정림사.
- 김형엽 역(2015), 『언어의 역사』, 한울. [Janson, T.(2012), *The History of Languages: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박미애 역(2004),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드』, 한길사. [Elias, N. · Scotson, J. L.(1965), *Etablierte und Außenseiter*, Suhrkamp.]
- 박승희 역(2003),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한길사. [Groce, N. E.(1988),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Hereditary Deafness on Martha's Vineyard*, Harvard University Press.]
- 오영나 역(2008), 『언어의 종말』, 작가정신. [Dalby, A.(2002), *Language in Danger*, Columbia University Press.]
- 유기쁨 역(2018), 『원시문화. 1 신화, 철학, 종교, 언어, 기술, 그리고 관습의 발달에 관한 연구』, 아카넷. [Tylor, E. B.(1921),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London: John Murray.]
- 이와이 · 김만영 · 김상화 편역(2002), 『농문화의 이해』, 농아사회정보원.
- 이종인 역(2008), 『문화의 패턴』, 연암서가. [Benedict, R.(1934), *Patterns Of Culture*, A Marinar Book.]
- 조원일 역(2009), 『장애학예의 초대』, 청목출판사. [石川 准 · 長瀬 修 編(1999), 『障害学への招待——社会、文化、ディスアビリティ』, 東京: 明石書店.]

- 장진석 역(2007), 『미국 농사회의 변천사』 교육과학사. [Van Cleve, J. V. · Crouch, B. A.(1989), *A Place of Their Own: Creating the Deaf Community in America*, Gallaudet University Press.]
- 장진석 역(2012), 『오디즘과 인간으로서의 농인』, 교육과학사. [Nordell, P.(2011), *Deafhood/Audism*, Dövia konsult & tjänster.]
- 장진석 역(2014), 『미국의 농문화』, 교육과학사. [Padden, C. · Humphries, T.(1990),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제 12 장

농문화와 농사회의 미래

김 유 미

1. 들어가며	265
2. 한국수어로 보는 농문화의 현주소	266
3. 도전에 직면한 농문화	269
4. 미래를 위한 선택	273
5. 맺으며	276
참고 문헌	278



요약

이 장에서는 소수 언어이자 위기 언어인 한국수어와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다루고, 농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찰하였다. 한국수어는 농공동체의 정체성과 농문화를 지지(支持)하는 기동이며, 농문화를 키워 내는 동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수어는 시대의 거센 변화 앞에 점점 더 위태해져 가고 있다. 한글을 통해 한국수어를 논하고 기록하다 보니 한국수어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보도 쌓여 가는 것이 농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정보들이 디지털화됨으로써 왜곡된 정보의 파급 또한 빨라지고 광대해졌으며, 그 정보위에 또 다시 왜곡된 창작물들이 쌓이고 있다.

농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는 또 있다. 바로 농사회로 유입되는 인구의 감소이다. 또한 수지한 국어의 확산도 농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농사회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농사회에는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소수문화의 담지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농정체성의 내적 기준 확립, 한국수어 보전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기다리는 농문화에서 초대하는 농문화, 찾아가는 농문화라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농문화 거점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농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에 농문화를 품어 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1. 들어가며

문화와 언어는 유기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문화와 언어는 어떤 도구를 통해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면모와 가치를 드러낸다. 문화와 언어가 문화

30) 이 단원은 필자가 한국수어학회 2018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농문화와 한국수어」를 가져온 것이다. 일부 단어와 문장은 이 책의 방향에 맞게 수정하였다.

학과 언어학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와 언어는 철학, 심리학, 사회학, 과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 분야의 화두가 되어 왔으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공동체가 있다는 것, 특히 그 공동체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타 공동체와는 다른 특질을 내포한 유무형의 기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 기반을 문화라고 부른다. 개별 공동체가 가지는 문화의 고유성이 바로 그 문화의 이름이 된다. 문화는 공동체의 존재 기반인 동시에 존재 양식이다. 문화는 공동체를 지지(支持)하고 공동체는 문화를 살아 있게 한다. 그리고 그 문화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와 문화를 고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언어이다.

언어학자인 클로드 아제주(Claude Hagège)는 그의 저서 『언어들의 죽음에 맞서라』에서 “언어는 문화의 내용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문화를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라고 말하며, 문화와 언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통찰을 내놓았다.

언어의 상실은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도구 자체를 잃어버리는 일이다.
(...) 한 문화가 가지는 언어 표현들은 그 문화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문화 정체성의 가장 깊은 내면에까지 관계한다.

(김병욱 역 2000: 276-277)

또한 그는 언어가 자기 위세를 잃을 때 변형, 대체, 소멸의 과정을 밟아 해체된다고 하였다(김병욱 역 2011: 119-121). 이러한 해체 과정이 문화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언어의 흥망성쇠가 해당 문화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척도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위세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 원어민의 자부심, 사용 인구, 언어의 특질 유지 등이 언어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일 것이다.

2. 한국수어로 보는 농문화의 현주소

1) 한국수어와 농문화

한국수어는 농문화라는 대지에서 성장한 아름드리 숲과 같다. 대지는 숲에 자신을 내어 주고 숲은 생명 있는 것들을 그 안으로 불러들여 대지를 풍성하게 한다. 숲은 대지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숲이 없는 대지는 황무하다. 한국수어는

농공동체의 정체성과 농문화를 지지(支持)하는 기둥이며, 농문화를 키워 내는 동지이기도 하다. 구화주의 교육이 지속되어 온 지난 100년 동안 농인들의 언어인 한국수어는 저평가되고 외면당해 왔다. 그러나 농학교 기숙사와 종교 커뮤니티의 왕성한 성장에 힘입어 한국수어는 전승되어 왔고 그 특질과 고유성을 풍부하게 유지해 왔으며 그 안에서 농정체성과 농문화도 성장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과학 기술의 발달과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농공동체 또한 위기를 맞고 있다. 농학교 커뮤니티는 현저하게 약해졌으며 농인교회로 대표되는 종교 커뮤니티도 약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는 활발해지고 있는 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한국수어의 상호 교환과 확장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어렵다. 결국, 지금의 추세대로 농학교에 입학하는 농아동의 수가 줄어든다면, 한국 농사회는 자신의 문화를 지탱하는 주요 커뮤니티 중 한 개를 잃는 셈이 된다.

한국수어의 확장성이 약화되면 한국 농사회에 뿌리내린 한국수어의 특질도 약화된다. 우리는 이미 청인의 문화, 한국어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 상처 입은 한국수어를 마주하고 있다. 공동체가 약화되는 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이런 현상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농학교를 졸업한 20대 농인들 중에는 장년층 농인들보다 어휘나 문법 사용 측면에서 수어를 풍부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꽤 보인다. 단순한 세대 차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어의 풍부한 어휘와 문법이 사라진 그 자리를 수지한국어나 지문자가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언어인 한국수어는 시대의 거센 변화 앞에 점점 더 위태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위협요인이 농사회 밖에서 오는 것만도 아니다.

2) 한국수어를 위협하는 것들

(1) 왜곡된 정보 양산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나 전자는 시각 경험과 그 양식, 후자는 청각 경험과 그 양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는 세계가 놀랄 만한 표음 문자(한글)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도 하다. 이 한글을 통해 한국수어를 논하고 기록하다보니 한국수어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보도 쌓여 가는

것 또한 농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세상의 모든 연구물들은 그 시대의 한계를 안고 있다. 그간 한국수어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연구물들이 나왔고 그중에는 한국수어의 참 가치를 드러내는 연구물들도 많다. 반면 잘못된 전제 설정과 연구 방법으로 왜곡된 연구물들도 양산되었다. 특히 음성언어를 잣대로 삼아 한국수어를 해부하려 한 연구물들은 한국수어 원어민인 농인들에게 한국수어는 열등한 언어이며 어떤 결함이 있는 언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런 결과들은 연구자들이 청인이어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연구자에게 시각언어인 한국수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다. 이제 와서는 농인들도 기존의 연구물이 갖는 한계를 간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로 수용한 채 잘못된 연구 방향으로 자신의 재능을 소모하기도 한다. 음성언어가 연구의 잣대인 이상 한국수어는 제대로 연구될 수 없다. 언어학적인 접근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연구물은 한국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라는 명제는 그저 달콤한 빈말인 듯하다. 농사회는 한국수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전망을 담고 있는 연구물들을 구분해 내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2) 왜곡된 정보 수용

구화주의 혹은 청능주의를 주입받고 자란 농인들은 자신의 언어인 한국수어에 양가감정을 가지기 쉽다. 농인들은 한국수어로 소통하여 지적 자산을 습득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 과정에서 정서적 만족감을 뚜렷하게 느낀다. 그러나 한국어의 ‘위세’(김병욱 역 2011:0) 앞에선 마냥 위축되고 만다. 클로드 아제 주는 이런 현상의 기저에 ‘수치심’이 있음을 간파하고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특히 어느 언어든지 신어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를 하기만 하면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언어가 현대성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추상개념들을 표현할 수 없다고 믿는다.

(김병욱 역 2011: 197)

지금 한국 농사회가 한국수어에 대해 갖는 인식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어 중심의 비교와 연구, 즉 다수자인 한국어 화자의 시선과 평가가 개입된 것으로 많은 농인들이 이런 평가들을 수용하고 따라가고 있다. “한국수어는 단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배우려면 단어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수어는 사투리가 심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표준수어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수어로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우므로, 문장식 수화(수지한국어)도 필요하다.” 등과 같은 명제들이 최근 농사회에서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언어학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논리들이 여러 연구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들은 잘못된 어휘집을 양산하였고, 이 어휘집들이 한국수어나 표준수어로 공식화됨으로써 한국수어 생태계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이 어휘집들이 주는 피해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정보들이 디지털화됨으로써 왜곡된 정보의 파급 또한 빨라지고 광대해졌으며, 그 정보 위에 또 다시 왜곡된 창작물들이 쌓이고 있다.

지금 한국수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사업들은 언어학적 접근과 연구 방법으로 수어 발음치류, 그리고 한국수어 1세대라 할 수 있는 고령 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어 구술류 등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이런 연구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 온 연구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농사회는 위에서 다룬 모든 문제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위협적인 도전을 이미 마주하고 있다.

3. 도전에 직면한 농문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농사회는 다음 세대에도 자신들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공동체가 문화적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소수 민족, 특히 지리적 영토를 갖고 있지 않는 농인 공동체들은 인류사적 변화의 높은 파고 앞에 서 있다. 농사회는 문화 소멸의 전조 현상에 직면해 있다. 바로 유입 인구의 감소이다.

1) 유입 인구의 감소와 그 원인

농사회에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농학교 농학생 수는 30년 전과 비교할 때 1/5~1/6 수준으로 줄었다. 농학교에 유입되는 농학생 수의 감소는 결국 종교 커뮤니티로 유입되는 인구의 감소로 연결된다. 현재 농아인협회 회

원 상당수는 40대 이상의 장년층이며, 종교 커뮤니티의 청년 인구 감소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농사회로 유입되는 인구의 감소가 주는 영향이 지금 당장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문화가 지리적 영토 없이 오직 전승 가능한 인구 유입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유입 인구의 감소로 문화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일련의 흐름을 멈추거나 거꾸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유입 인구 감소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1) 의료 기술의 발전

인류의 과학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농사회에도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왔다. 의료 기술과 지원 체계의 발달도 농인과 청인 모두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윤리적 합의와 통제보다 더 빠르게 달려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공 지능과 유전 공학의 발달이 인류에게 가져다 줄 세상이 농사회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 과학 기술에 대한 주도권은 언제나 그랬듯이 다수자인 청인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농인과 농사회를 ‘청각장애를 가진 이들의 집단’으로, ‘수어는 음성언어 대신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소통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농인 스스로가 ‘자신을 장애인으로만 인식’하고 자신의 언어인 ‘수어를 음성언어보다 열등하게 생각’하는 한 기술 문명은 장애를 없애는 쪽으로 사용될 것이고 그 큰 흐름에 휩쓸려 농문화 소멸을 향한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2) 인공와우 수술과 통합교육 패러다임

지구촌 곳곳에서 농사회는 인공와우를 화두로 저항과 논쟁과 수용의 길을 걷고 있다. ‘인공와우 수술은 농문화의 말살’이라는 거부감과 위기감이 농사회 내에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인공와우 수술의 안정성 문제, 윤리·철학적 숙고와는 별개로 수술을 받은 당사자들, 특히 수술을 받은 농아동들을 농사회의 구성원으로 흡수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아동의 상당수가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그 부모가 농인이든 청인이든 상관없이 통합교육 현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통합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한국수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농문화와 괴리된 채 성인이 된다. 이렇게 사회에 나온 아이들은 정체성을 고민하고 장애학과 인권을 논하며 나름의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애쓴다. 이들을 한국어로 자신의 세계관을 쌓은 사람들이다. 분명 한국수어로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한 농인들과 다른 사고방식과 선택지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며 생애 한 번쯤은 농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애써 본다. 그러나 농사회는 과거의 방식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다.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농사회에 남을지 아니면 주변인으로 물러날지를 결정하게 말이다. 그러나 지금 농사회가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농사회로 유입되는 인구는 심각하게 줄어든 것이며 농문화의 내적 영토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농사회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들을 농문화에 초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 유입되는 구화 사용자들이 농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수지한국어에서 한국수어로 넘어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2) 수지한국어의 확산과 원인

지구상에서 영어라는 언어의 위세를 넘어서는 언어는 아직까지 없으며 한국어도 영어의 간섭과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영어라는 외적 도전과 신세대의 언어 파괴적인 한국어 사용이라는 내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특질과 흐름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국어마저도 인구 절벽에 당면한다면 그 운명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소수 중의 소수 언어인 한국수어의 위상과 운명은 어떠하겠는가.

한편 인구 감소의 문제와 별개로 주의를 기울이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러나 양상이 바뀌지 않는 현상이 농사회에 있다. 바로 수지한국어의 사용 확산이다.

(1) 피지배 언어로서의 경험

한국수어는 오랫동안 억압과 간섭에 시달려 왔다. 지금의 농장년층은 한국수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한국수어를 가장 풍부하게 누리고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침해를 인지하고 방어하는 데에 소극적이다. 지역의 거점 수어통역센터가 그간 농인들이 잘 사

용해 온 지명(농문화가 잘 드러나는 수어 이름)을 지명이 갖는 한자 의미를 따라 바꾸는 일,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지문자로 활용하여 만들어진 조어의 확산, 청인의 시선과 한국어의 관점에서 거부감이 드는 수어 사용의 위축 등 한국수어의 특질을 훼손하는 선택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원어민은 많지 않다. 농인들이 이런 현상에 호도되거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한국수어가 갖는 위상과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이기도 하며 다수자인 청인들의 언어 위세에 눌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지배 언어를 가진 이들의 간섭

농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청인들의 수지한국어 사용과 농문화에 대한 몰이해 또한 한국수어를 교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수지한국어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자신의 수지한국어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고유성을 가진 언어인 한국수어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닐뿐더러 한국수어 원어민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3) 하위 사용자들의 증가

농사회에 뒤늦게 유입된 구화 사용자들도 수지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한국수어를 제대로 익히는 것은 청인들이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익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며 이들이 한국수어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농사회 내에서 수지한국어 사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4) 미디어 발달의 그림자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수지한국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수어 관련 영상들 중에는 유용하고 좋은 콘텐츠들도 있지만 한국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오류와 오해를 양산할 만한 콘텐츠들도 많이 있다. 기록된 것들은 가치를 지니게 되기 마련이다. 무가치한 것들도 기록으로 남게 되면 어느 순간 가치 있는 대상이 되고 만다.

4. 미래를 위한 선택

1) 패러다임의 전환

(1) 농정책의 전환

농사회는 거의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 왔다. 농사회의 미성년은 특수교육, 장년층은 사회복지, 농사회를 향한 모든 정책과 지원도 이 두 가지 틀 안에서 결정되어 왔고 농인 당사자들의 자기 이해도 이 해석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농사회는 언어·문화적 소수자라는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전망과 정책을 고민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어떤 면에서 농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지의 대상으로서 계속 몸집을 부풀릴 것인가, 아니면 언어·문화적 소수자에 걸맞은 존중과 지원을 요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무엇이 농사회에 밝은 미래를 가져올 선택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화두를 붙잡고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다 보면 더 좋은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농정체성의 내적 기준

언어·문화적 존재로서의 ‘농인’은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걸까? 이 물음에 대한 저마다의 대답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만 정체성이 공동체와 개인의 상호 작용인 동시에 개인의 수용과 선택이기도 하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공와우 수술 여부, 한국수어 능력 수준,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은 농정체성에 대한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인공와우 수술은 했지만 한국수어 원어민인 A, 한국수어 화자로 성장했지만 언제나 청인이 부럽고 듣지 못하는 자신이 미운 B, 노인성 난청으로 농사회에 발을 들였는데 수어는 잘 못해도 농공동체에 있을 때 더 편안한 C 등 이런 다양한 개개인의 농정체성 유무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는가? 반면 한국수어에 대한 애착과 바른 사용을 위한 노력, 농사회에 대한 소속감 등은 농정체성의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

아울러 농정체성을 ‘몰입 정체성 대 이중언어·이중문화 정체성’의 구도로 해석하는 방식이 갖는 한계를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몰입 정체성을 거쳐 가는 기초 단계 정도로 이해하고, 이중언어·이중문화 정체성을 더 성숙한 정체성인양 바라보는 풍토는 이 이론의 원 취지에 맞지 않다. 몰입 정체성은 농인이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몰입 정체성은 폐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 제대로 형성된 몰입 정체성은 긍정적인 자아상과 회복 탄력성으로 드러난다. 어쩌면 지금은 농정체성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름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른다.

(3) 한국수어 연구 방법론과 연구 윤리

앞서 밝힌 한국수어의 당면 과제들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물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좁은 농사회에서 한국수어를 연구하다 보면 연구자들도 이해관계와 인맥 안에 갇히기 쉽다. 그렇다고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을 통해 연구물을 검증받기도 쉽지 않다. 한국수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을 만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먼저 이 길을 걸은 연구자들이 다시 자신의 길을 되짚어 보며 쓰린 복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일종의 한국수어 연구 백서를 만들어 보는 것은 불가능할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연구자들 간의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한국수어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수어 관련 학계는 농당사자와 함께하는, 궁극적으로 농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능 있는 농인들이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농인 연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윤리를 세워야 한다. 농인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소모되지 않고 성장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학계가 뜻을 모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희생을 감수하기 바란다.

2) 선택과 집중

농공동체는 농문화와 한국수어에 대하여 분명한 정책 노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구화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농사회에 초대하여야 한다. “한 언

어의 죽음은 분명 물리적 공동체의 죽음이 아니다. 한 언어를 버리고 다른 언어를 취하는 인간 사회가 마찬가지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언어의 죽음은 집단적 현상이다.”(김병욱 역 2011: 121)라고 한 클로드 아제주(Claude Hagège)의 견해처럼, 언어의 소멸이 물리적 공동체의 소멸은 아닐 수 있으나 언어가 소멸된, 즉 다른 언어로 대체된 물리적 공동체는 결국 대체된 언어와 해당 문화에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농사회 인구 유입에 적극적이되 농공동체가 담보하고 전승하여야 할 내적 유산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1) 농문화 거점 구축

‘소리를 보여 주는 사람들’은 농사회가 아직 시작하지 못한 ‘농문화 거점’ 역할을 하는 대안 교육 기관이다. 현재로서는 이곳이 농아동에게 한국수어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기존 종교 커뮤니티 안에도 농아동을 지원(돌봄)하는 곳들이 있으나 음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수지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로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문화 거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것은 거점의 조직과 내용이다. 공간은 지자체와 농아인협회 등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농문화 거점을 세우는 목적은 농사회로 유입을 유도하고 농문화와 한국수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조직과 내용은 행정 실무, 이론 연구, 인력 양성과 파견 업무, 대외 협력 및 홍보 등의 부서를 염두에 두고 채워 가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아낼 방향과 내용이다. 농문화와 한국수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농사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한국수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농사회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초대하는 농문화

청능주의, 인공와우 수술과 통합교육 패러다임 등으로 농문화와 접촉하지 못하고 성인이 된 구화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시대는 변했고 농사회가 가만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농사회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미 농사회를

대신할 대안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유입 인구를 마냥 늘리려고 애쓰기 전에 새로 유입되는 구화 사용자들이 농정체성을 함께 누리고 수지한국어에서 한국수어로 넘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런 과제를 해결할 연구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3) 찾아가는 농문화

수지한국어에 경도되지 않은 한국수어 사용자가 30년 후에 과연 얼마나 남게 될까?! 더 이상 농아동들은 농사회(농학교)로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은 농사회가 농아동들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아동에게 한국수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주었다. 물론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이 여전히 많고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회는 농문화 거점과 향후 배출될 농인 수어 교원들을 통해 방문 학습 혹은 공부방 서비스 형태로 농아동과 접촉하고 그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를 찾아 주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비인후과에 인공와우 관련 홍보물과 한국수어 교육 서비스 홍보물은 반드시 함께 배치되도록 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관련 해당 민원인에게 의무적으로 농문화 거점 센터 정보와 한국수어 교육 서비스 홍보물을 제공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 조항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농문화 거점이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5. 맺으며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그의 저서 『문화의 패턴』에 디저 인디언 추장 라몬과의 대화를 아래와 같이 남겼다.

어느 날 라몬은 메스키트 열매를 갈아서 도토리 수프를 만드는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 “태초에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흙으로 만든 잔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이 잔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마셨어요.” (중략) “사람들은 모두 그 잔으로 물을 듬니다. 하지만 그들의 잔은 달라졌어요. 우리의 잔은 이제 깨어졌습니다. 그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의 잔은 깨어졌습니다.〉 부족민의 생활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 가령 식사의 가정 내 의례, 경제 체제의 의무 사항,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승계되는 의식들, 곰춤에서의 빙의(憑依) 상태, 옳고 그름의 기준, 이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의 형태와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라몬 노인은 아직도 정력적이었고 백인들과의 관계에서 지도자 노릇을 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이 멸절되었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생명 그 자체, 사람들의 기준과 믿음의 기반이라 할 어떤 것이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물론 다른 잔들이 남아 있고 그걸로 같은 물을 퍼낼 수 있겠지만 그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잔의 일부에다 뭔가 보태고 잔에서 일부 떼어내서 수리를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그 물잔은 통으로 나오는 것이고 어느 한 부분이 훼손되면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만 있는 잔이었다.

(이종인 역 2008: 56-57)

언어는 문화의 산물인 동시에 문화 공동체의 보루다. 한국수어는 농문화라는 데지에서 자란 생명이다. 동시에 한국수어는 농문화를 품고 길러 내는 등지가 되어왔다. 소수 공동체들은 문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작지만 소중한 집단들이다. 그러나 열대 우림이 급속히 줄어들고 생명체들이 멸종되는 현상 못지않게 소수 문화의 사멸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감소는 문화의 소멸로 연결된다.

물리적 감소(인구)가 없어도 문화의 소멸 현상은 일어날 수 있다. 그 전조 현상은 언어의 위세 상실로 인한 해체 과정이며, 언어의 상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문화 전체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김병욱 역 2000: 278).

지금의 한국 농사회, 농문화와 한국수어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인류사적 변화 앞에 놓여 있다. 이 엄청난 파고를 이겨 내고 다 피워 내지 못한 문화의 꽃을 피워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신념과 믿음의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말이 무엇이든 농사회의 구성원이자 농문화의 목격자인 우리 모두는 이 문화와 언어가 담긴 잔이 깨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승되도록, 더 나아가 이 잔을 품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마음을 내야 할 것이다. 그저 ‘흙으로 만든 잔’일지라도 그 공동체에는 공동체의 생명을 담은 성배이기 때문이다.



- 김기혁 · 호정은 역(2012),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 글항아리. [Evans, N.(2010), *Dying Words: Endangered Languages and What They Have to Tell Us*, Wiley-Blackwell.]
- 김도현(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 김병욱 역(2011), 『언어들의 죽음에 맞서라』, 나남. [Claude Hagège(2000), *Halte à la mort des langues*, Odile Jacob.]
- 김유미(2016), 『영혼에 닿은 언어』, 흥성사.
- 김유미(2018a), 「농인의 강점과 농문화에 맞는 일상」, 『농인의 생활과 문화』(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유미(2018b), 「청인사회와 농인」, 『농인의 생활과 문화』(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 김철관 · 윤병천(2014), 『농문화입문』, 정림사.
- 김형엽 역(2015), 『언어의 역사』, 한울. [Janson, T.(2012), *The History of Languages: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박미애 역(2004),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 한길사. [Elias, N. · Scotson, J. L.(1965), *Etablierte und Außenseiter*, Suhrkamp.]
- 오영나 역(2008), 『언어의 종말』, 작가정신. [Dalby, A.(2002), *Language in Danger*, Columbia University Press.]
- 이와이 · 김만영 · 김상화 편역(2002), 『농문화의 이해』, 농아사회정보원.
- 이종인 역(2008), 『문화의 패턴』, 연암서가. [Benedict, R.(1934), *Patterns Of Culture*, A Marinar Book.]
- 장진석 역(2007), 『미국 농사회의 변천사』 교육과학사. [Van Cleve, J. V. · Crouch, B. A.(1989), *A Place of Their Own: Creating the Deaf Community in America*, Gallaudet University Press.]
- 장진석 역(2012), 『오디즘과 인간으로서의 농인』, 교육과학사. [Nordell, P.(2011), *Deafhood/Audism*, Dövia konsult & tjänster.]
- 장진석 역(2014), 『미국의 농문화』, 교육과학사. [Padden, C. · Humphries, T.(1990), *Deaf in America: Voices from a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 조원일 역(2009), 『장애학예의 초대』, 청목출판사. [石川 准 · 長瀬 修 編(1999), 『障害学への招待——社会、文化、ディスアビリティ』, 東京: 明石書店.]
- 조형숙(2015), 『다문화 톨레랑스 미국의 다문화 다인종 교육 들여다보기』, 나노미디어.

Ladd, P.(2003), 『*Understanding Deaf Culture: In Search of Deafhood*』, Multilingual Matters Ltd.

『농문화와 농사회』 교육자료를 만든 사람들

❖ 교육자료 집필진 ❖

개 요	『농문화와 농사회』 교재에 대하여	김유미
제 1 장	농인에 대한 이해	김유미
제 2 장	농정체성	김유미
제 3 장	농문화의 바탕	김유미
제 4 장	농문화의 실재(實在)	김유미
제 5 장	농문화와 한국수어	김유미
제 6 장	농교육과 수어로 배울 권리	곽정란
제 7 장	농인의 사회참여	송미연
제 8 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도와 농사회 관련 법률	송미연
제 9 장	농인의 언어권과 수화언어법	곽정란
제10장	청능주의(오디즘) 이해	변강석
제11장	농사회의 문화 수용	김유미
제12장	농문화와 농사회의 미래	김유미

집필 지원	배재만	삼화	소민지
내용 감수	강창욱	수어 사진 모델	변은정
교정 교열	손다정	수어 사진 편집	봉영선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2019년 4월 15일 인쇄

2019년 4월 15일 발행

발행인: 소강춘

발행처: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 화: 02-2669-9696

인 쇄: (주)계문사

담당: 남미정 학예연구사(특수언어진흥과)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재

농문화와 농사회



국립국어원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